

향토사료 제29집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김 동 정



황성문화원



1972년 동아일보가 창간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도별 3·1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1개 시·군에 3·1운동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는데, 검증을 거쳐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선정되어 횡성군청 뒤편에 세워지고 그 일대를 3·1공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당시 춘천교육대학 조동걸 교수가 이를 뒷받침하는 『횡성과 3·1운동』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 무렵부터 횡성을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횡성에서 1919년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가 배포될 무렵 횡성보통학교 6회 졸업생(4학년)들도 3월 18일 졸업식이 끝나고 횡성군청 뒷산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종 황제 서거의 조의(弔意)로 전교생이 가슴에 배 형식으로 상장을 패용하고 등교하였는데, 이로 인해 졸업식도 못하고 휴교령이 내려졌었다.

이러한 가운데 횡성에서는 은밀히 만세운동 계획이 진행되어 3월 27일, 4월 1일, 4월 2일 3차에 걸쳐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횡성 시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무자비한 일제의 탄압으로 순국자, 부상자가 속출하고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최양옥 애국 지시는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체포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하여 조국 광복까지 모진 역경을 무릅쓰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몸 바친 분이다. 횡성을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횡성 3·1운동의 맥은 이곳 의병들의 치열한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가까운 우리지역 인물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다. 어쩌면 관심 밖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묻혀 지고 아주 잊혀 질지도 모른다. 우리 문화원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특히 향토사 발굴 선양의 책무가 문화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횡성에 3·1운동비가 세워지고 군청 뒤편에 서있는 부근을 '3·1공원'(많은 순국자·부상자 발생 지역), '3·1광장' 등 만세공원 지명이 있듯, 치열한 항일 운동사로 애국의 고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먼저 횡성 항일운동의 중심인물인 최양옥 지사의 일대기를 담은 『횡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향토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큰 사명감으로 발로 뛰며 열정을 갖고 집필하여 주신 김동정님과 지원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장과 나라사랑의 향토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횡성문화원장 박 순 업

격|려|사



황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제29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향토사료집인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은 우리 군 갑천면에서 태어난 최양옥 지사가 고향 황성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을 시작으로 전 생애에 걸친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형무소 복역 살이 시절과 중국 망명 후의 독립운동 이야기, 광복 후의 정치 활동 등 아픈 역사에 맞서 싸우며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최양옥 지사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황성인물 최양옥의 삶을 재조명하고 소중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문학박사 김동정 선생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성은 애국의 고장입니다. 1919년 황성장터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4·1만세운동은 강원도 전역에 항일운동의 불씨를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6·25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선열의 흔적이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망언과 억측 속에서 역사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 바로 알고, 그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이며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6 향토사료 29집인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자료인지 거듭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료집 발간에 열정을 쏟아주신 김동정 선생과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이번 사료집이 지역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료로 애용되기를 기원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황성군수 한 규 호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향토사료 제29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순업 황성문화원장님과 최양옥 지사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이번 사료집 집필에 힘써 주신 김동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강(秋岡) 최양옥 지사는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한 황성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성으로 내려와 4월 1일 황성읍 장날에 만세시위 운동을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의 황성이 애국의 고장이라는 칭호를 얻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항일독립 정신을 기리는 「최양옥지사공적비」가 갑천면 전촌리에 있으며, 해마다 4월 1일 황성군민 만세운동의 기념과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넋을 기리고자 황성군민 모두가 추념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황성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항일 독립 운동가이신 최양옥 지사의 일대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번 향토사료 제29집인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료집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황성군의회회장 이 대 균

“10년이라는 長久(장구)한 時日(시일) 그 苦痛(고통)이라는 말은
입으로 다 할 수 없고 지필로 다 쓸 수 없다.”



우편수송차량을 습격한 후 10년형을 언도 받고 만기출소한 대한
공명단 단장 최양옥 선생이 자필원고에서 옥고(獄苦)가 너무나 고
통스러워 입으로 다 말할 수 없고 지필(紙筆)로도 다 쓸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횡성의 '애국의 고장'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최양옥
선생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 것은 현재 재직 중인 박순업 문화원장을
통해서이다. 원장은 1982년 선생을 직접 만났고 큰 아들 돈용과도
동갑내기로 최근까지 친구관계로 인연을 맺어왔다. 이러한 최양옥
선생·말이 돈용 부자와 박순업 원장의 만남 기저 위에서 『횡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 탄생된 것이다.

선생은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1893년에 4남 4녀의 맏이로 태어났다. 1917년 원주보통
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다가 1919년 3월 1일 과고
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직후 학업을 중단한다. 이 때 마침 만주에서 돌아 온 신덕
영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의 필연성을 듣고 횡성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4·1만세운동에 참여하
였고 체포까지 당했지만 필사적으로 탈출한다. 이날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계기와 정신으로
한 평생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만세운동 참여 후 가사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을 때 신덕영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920년
5월 상경하여 대동단에 가입을 하고 전라남도 지역을 다니면서 독립자금을 모금하던 중 담
양에서 체포를 당하게 된다. 결국 7년형을 선고 받고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다.

출소한 후 중국으로 가서 타이위안에서 신덕영, 안창남 등과 함께 대한공명단을 조직하여
단장에 피선된다. 비행학교 설립기금과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정련, 이선구와 함께 서
울로 잠입하여 1929년 4월 18일 경춘가도에서 춘천발 서울행 우편수송차를 습격하여 일제
경찰에 큰 공포와 충격을 주고 결국 체포되어 선생은 10년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한다.

광복 후 재혼하여 세 아들을 낳고 경성형무소 서무과장과 인천소년형무소 소장을 지내며
정계에도 진출하여 여러 정당의 지구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1962년 3월 1일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1980년경 못 다한 효를 하기 위해 아내 김씨와 함께 선친이 묻혀 있는 전
촌리로 내려와 살다가 1983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오직 조국독립을 위해서 달려 온 선생은 대동단 사건으로 5년, 공명단 사건으로 10
년 등 15년의 수감생활과 광복 후 경성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 5년 근무 등 총 20년 동안
형무소와 인연을 맺는 기이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선생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형적을 다음

과 같이 담아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출생 및 성장과 독립운동으로의 길을 주제로 출생과 성장, 민족과 나라를 위한 깨달음, 낙향과 횡성 만세운동 참여 등을 통하여 기나긴 독립운동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대동단 가입과 활동을 다루었다. 대동단원 신덕영의 활동과 선생의 대동단 가입, 군자금 모집, 피제와 옥고를 통하여 선생의 독립운동을 향한 거침없는 활약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한공명단의 단원으로서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출옥과 중국에서의 신덕영 만남, 비행기 조종사 안창남과의 만남, 대한독립공명단 창설, 공명단의 독립자금 마련 위한 서울입성과 우편수송차량 탈취, 도피와 피제, 신문 받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생이 이끄는 공명단원들의 우편수송차습격에서 체포되는 과정을 다룬 취재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광복 후 국가를 위한 봉사를 주제로 광복 후 정계진출, 인천소년형무소 소장과 6·25전쟁, 정계 재진출과 더불어 횡성인으로 선생을 도와 준 장석용 전 내무부장관의 '조국사랑, 횡성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애국지사 김순이와의 만남을 다루었다. 애국지사 최양옥과의 만남, 김순이 여사의 가족 이야기, 김순이 여사의 독립운동 선양사업 등을 주제로 선생과 김순이 여사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게재하였다.

제7장에서는 애국지사 최양옥 선생과 김순이 여사의 유적탐방기를 실었다. '극일을 위한 최양옥의 독립운동 고찰'이라는 박순업 원장의 특강 내용을 비롯하여 한치고개와 주막 터, 김순이 여사 묘역, 망향의 동산 내 화성 옛터 전시관, 최양옥 선생 공덕비와 묘소, 횡성호 속의 유적 답사 등을 다루었다.

부록으로 선생의 수기원고와 연보를 기록해 두었다.

이제 컴퓨터 자판에서 손을 내리려고 하지만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아직 선생의 세 아들들 중 한 자녀도 만나보지 못 했기 때문이다. 선생의 독립을 위한 절절한 몸부림을 자제분들을 통해 듣고 깊게 느껴보고 싶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신 박순업 횡성문화원장님과 관계자들, 한규호 횡성군수님과 관계자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응해주신 증언자들과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책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강원도민일보 관계자들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애막골에서 감천(甘泉) 김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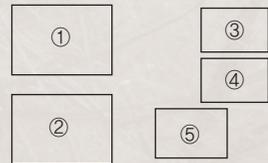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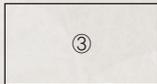
- ① 최양옥 선생
- ② 수몰되기전 선생의 출생지 화전리(1994)
- ③ 수몰된 선생의 출생지 화전리(2009)





- ① 최양옥 선생의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집터(2009)
- ② 최양옥 선생의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집터 도로변(2009)
- ③ 최양옥 선생 일행이 탈취한 우편수송차(『동아일보』 1929.4.20.)
- ④ 최양옥 선생 체포 당시 당당한 모습(『동아일보』 1929.4.22.)
- ⑤ 경기도경찰부에서 찍은 최양옥 선생 모습(1929.5.2.)





- ① 지팡이를 짚고 선산을 오가던 선생의 모습(1982)
- ② 1982년 여름 인터뷰하는 선생
- ③ 선생이 선친의 상석 정비할 때 세 아들 모습(1982)
- ④ 선생의 가족들(1982)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최양옥 선생이 살던 전촌리 집(1982)
- ② 최양옥 선생이 살다가 폐허가 된 전촌리 집(2009)
- ③ 최양옥 선생이 살던 집터에서 본 선산
(부자의 묘소가 있는 산, 2016)
- ④ 애국지사 최양옥선생공적비(2016)
- ⑤ 최양옥지사 묘비(2016)
- ⑥ 최양옥지사 묘역(2016)





- ① 김순이 여사가 주막을 경영하던 한치고개(2013)
- ② 애국지사 김순이여사 묘소
- ③ 애국지사 김순이여사 묘역(2013)
- ④ 애국지사김순이여사묘비문 후면



차 례

횡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제1장 출생 및 성장과 독립운동으로의 길 / 23

1. 출생과 성장 / 25
2. 낙향과 횡성 만세운동 참여 / 28
 - ① 낙향과 횡성의 만세운동 / 28
 - ② 횡성의 4·1만세운동과 선생의 참여 / 31
 - ③ 탈출과 기타 만세운동 / 33

제2장 대동단 가입과 활동 / 39

1. 대동단 신덕영의 활동과 만남 / 41
2. 대동단 가입과 군자금 모집 / 49
3. 피체와 옥고 / 53

제3장 공명단의 단원으로서의 활동 / 59

1. 출옥과 중국에서의 신덕영 만남 / 61
2. 비행기 조종사 안창남과의 만남 / 63

- 
3. 대한독립공명단 창설 / 67
 4. 공명단의 독립자금 마련책과 입국 / 71
 5. 경성입성과 우편수송차 탈취 / 75
 6. 도피와 피체 / 80
 7. 종로경찰서에서의 1차 신문 / 95
 8. 경기도경찰부에서의 2차 신문 / 100
 9.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의 신문 / 124
 10. 형무소에서의 도산선생에게 타벽통보법을 가르쳐 준 김정련 / 152

제4장 공명단의 우편수송차 습격사건 취재기 / 159

1. 공명단사건활동이면기(共鳴團事件活動裏面記) / 161
2. 공명단(共鳴團)과 신문호외전(新聞號外戰) / 167
 - ① 추적(追跡) 철야(徹夜) 초조(焦燥)의 삼주야(三晝夜) / 167
 - ② 호외전선(號外戰線)에 서서 / 170
 - ③ 경찰이상(警察以上), 전보이상(電報以上) 활동(活動) / 175
3. X月 XX日 / 178

제5장 광복 후 국가를 위한 봉사 / 187

1. 광복 직후의 활동 / 189
 - ① 한국민주당에의 입당과 탈당 / 189
 - ② 경성형무소 서무과장으로 근무 / 194

2. 인천소년형무소 소장과 6·25전쟁 / 200

- ① 인천소년형무소장으로 발령 / 200
- ② 6·25전쟁과 인천소년형무소의 동향 / 204
- ③ 독립운동 동지 김시현과의 만남 / 205
- ④ 고향 후배인 내무부장관 장석윤과의 만남 / 206
- ⑤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 210
- ⑥ 증인 장석윤 전장관 입회하에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무죄 / 215

3. 정계 재진출 / 219

- ① 민정당 가입과 군정연장반대투쟁위원회 지도위원 / 219
- ② 신한당 가입과 인천을지구 조직책 / 221
- ③ 민주회복국민회의 가입과 고문 / 222

4. 나는 모국의 스파이였다고 고백한 전 내무부장관 장석윤 / 224

- ① 동남아 휩쓸던 청년 시절, 이젠 10만 그루 나무 호령(號令) / 224
- ② 2차대전 때 미의 COI 대원, '버마(현 미얀마)' 전투에 참가하여 활약해 / 225
- ③ 잣나무 4년 만에 결실케, 산림 물려줄 젊은이 찾아 / 227

5. 고향에 내려와 못 다한 효 실천 / 228

제6장 애국지사 김순이와의 만남 / 231

1. 황성과의 인연 / 233

2. 슬픈 황성 의병 소식 / 235

3. 애국지사 최양옥과의 운명적 만남 / 236

4.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애국지사 최양옥 / 238

- 
5. 김순이 여사의 가족 이야기 / 239
 6. 묻혀버릴 뻔한 김순이 여사의 독립운동 선양사업 / 240
 7. 황성군 3·1만세운동 도운 주모(酒母) 김순이 여사 묘소 단장 / 241
 8. 강원을 빛낸 이달(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순이 여사 / 243

제7장 애국지사 최양옥 · 김순이 여사의 유적 탐방 / 245

1. 극일(克日)을 위한 최양옥의 독립운동 고찰 / 247
2. 한치고개와 주막 / 252
3.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 묘역 / 254
4. 망향의 동산 내 화성 옛터 전시관 / 258
5. 애국지사 최양옥 선생 공덕비와 묘소 / 262
6. 황성호 속의 유적 답사 / 271

부록 / 275

- 부록1 최양옥 선생의 수기원고 / 277
 - 부록2 최양옥 선생의 연보 / 290
- 참고문헌 / 299

제 1 장

출생 및 성장

독립운동으로의 길

1. 출생과 성장
2. 낙향과 횡성 만세운동 참여





제1장 출생 및 성장과 독립운동으로의 길

1. 출생과 성장

선생은 자가 길준(吉俊)이고 호가 추강(秋岡)이며, 권인옥(權仁玉) 또는 최인옥(崔仁玉)으로도 불렸다.

1893년 음력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법부(法部) 주사(主事)¹⁾를 지낸 강릉(江陵) 최씨(崔氏) 재건(在建)과 진주(晉州) 강씨(姜氏) 석원(錫元)의 딸 사이에서 4남 4녀의 맏



최양옥 선생의 모습

1) 1895년(고종 32) 4월에 법부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부아문(法務衙門)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參書官)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 주사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조선 말기 관료의 최하 직계(職階)에 속한다.

이로 태어났다. 선생이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던 화전리는 황성댐 건설로 수몰되어 지금은 일부만 볼 수 있다.



수몰되기 전의 갑천면 화전리

수몰되기 전의 화전리는 서쪽으로 계천이 돌아 흐르고 낮은 골짜기와 평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었지만 황성댐이 건설되면서 인공호수인 황성호가 형성되어 마을이 모두 수몰되었다. 수몰전의 자연마을에는 큰말,

버덩말, 옷말, 땅두루 등이 있었다. 큰말은 화전리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은 화전리에서 가장 넓은 들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리는 황성군의 옛 고을인 화전현(花田縣)이 있었던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현재 큰말 일부가 남아있고 황성호수변에는 펜션단지인레이크힐펜션이 들어서 있다.

양반집 8남매의 맏이로 출생한 선생은 어려서 귀동(貴童)이로 대우받고 호의호식하며 신학문에 눈을 뜬 부친의 교육열에 힘입어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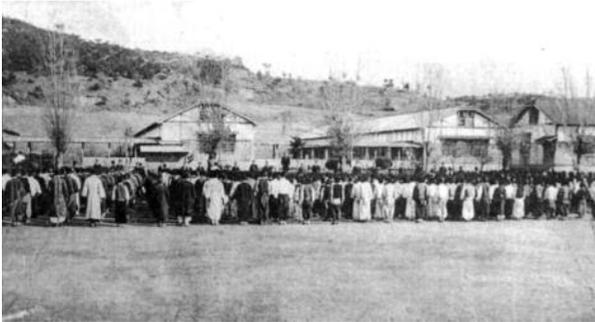
그러던 중 정미년(1907)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자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 삼아 고종황제(高宗皇帝, 재위 1863~1907)를 퇴위시키고 대한제국군의 군대해산을 통지



고종황제와 대신들(『현대사의 주역들』)

하자 군대는 항전하게 되고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愛國志士)는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군인과 접전을 하였다. 그 때가 선생의 나이 14세였다. 선생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상황을 본 후로는 왜(倭)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15살 되던 1908년경에는 장가를 들어 아내 안씨(『동아일보』 등에는 홍씨라 하였음)와 순탄한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하였다. 아마 이 때를 전후하여 고향인 화전리를 떠나 원주 소초면 둔둔리로 1019번지(지금은 1005번지)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20세 되던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보통학교는 1906년 보통학교령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육기관으로 한말 신학제 제정에 따라



원주보통학교 전경(1930)

설치된 소학교를 변경한 것으로, 수업연한은 4년이고 8세부터 12세까지의 남녀를 입학시켰다. 따라서 늦깎이 학생이었으나 무사히 4년간의 학업을 마쳤다.

1917년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의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중동중학교는 1906년 관립외국어학교 내 한어야학으로 설립(설립자 오규신·유광렬·김원배)되었고 1907년 중동야학으로 교명이 제정되었다. 초대 교장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오세창 선생이었다. 1919년에 사립중동학교로 개명되었고 광복과 함께 정규 중학교로 승격되었다. 이 학교에서 한창 학업에 몰두할 무렵인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 국장일에 독립만세가 선포되자 학업을 전폐하고 파고다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 후 선생은 서울 입정정(笠井町, 현 중구 입정동)에 위치한 아버지 친구 신병선



고종황제 국장행렬(『현대사의 주역들』)

(申炳善)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 선생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돌아온 신병선의 아들 신덕영(申德永, 1890~1968)을 만나게 되었으며,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그의 말에 찬동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 낙향과 횡성 만세운동 참여

① 낙향과 횡성의 만세운동

3·1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횡성으로 내려왔다. 이곳에서 동지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횡성 4·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는 국내외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30여 년 간 가시밭길 독립운동의 길을 걷는 운명적 계기가 되었다.

횡성에서는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여 3월 27일에 첫 번째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오고 만세운동을 추진하던 곳은 횡성읍 읍하리에 있던 천도교회 교구실과 영영포리 441번지 신재근의



3·1운동비 제막식 전경(1972)

집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옥동리에 있던 황소아줌마가 경영하는 주막으로 자주 옮겨 한적한 곳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기 위해 최종하(崔宗河), 신재근(申在根), 장도훈(張道勳)이 협의하여 3월초에 당시 돈 3원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그리하여 장도훈은 서울에서 의사원(議事員)으로 활약하던 이동구(李東求)를 만나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3월 11일 횡성에 돌아왔다. 당시 횡성 천도교의 출신으로 도훈(道訓)이었던 이채일(李采一)과 의사원 이동구는 서울 천도교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동구는 서울에서 직접 3·1운동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3·1운동과 천도교회의 활약에 대하여 비교적 소식을 자세히 전달하였을 것이다.

당시 횡성 천도교회는 대교구로 교구장은 최종하였고 천도교의 지도층 인사는 봉훈(奉訓)이었던 신재근, 장도훈, 김인경(金麟卿), 강달회(姜達會), 강만형(姜萬馨)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강달회와 강만형은 원주 소초면 둔둔리의 사람이나 당시 횡성 천도교회가 원주·원성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회가 주도한 횡성의 3·1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이며, 또 둔둔리는 원주땅이라 하여도 특히 과거에는 횡성 생활권에 속해 있어서 장날도 횡성 장날을 이용했기 때문에 횡성 3·1운동

에 가담했던 것이다.

횡성에서의 처음의 만세운동은 3월 27일에 있었다. 이날은 음력 2월 26일로 장날이었다. 시장의 각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고 만세운동 준비에 들어갈 때가 거의 점심 때였으며, 이것을 눈치

챈 횡성헌병분견소에서는 원주에 급히 연락하여 헌병 3명, 보병 4명을 불러 들여 그들대로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중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오후 1시경 윤태환이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높이 세워두고 이를 따라서 지



횡성장터(당시 장터와 동일지점)

도급 인사가 같이 군중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신재근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하였다. 이 때에 일제 헌병이 몰려왔으므로 독립선언서를 읽지도 못한 채 지도급 인사들은 체포되었고 약 300여 명의 군중들도 만세운동 경험이 없어 능동적인 행동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해산하고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3월 27일 횡성 장날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선두에 섰던 12명 가운데 8명이 체포되었고 5명이 재판을 받아 신재근 2년, 장도훈 2년, 안경춘 8개월, 강만형 8개월, 윤태환(3월 28일 아침 피체) 6개월의 형을 받아 징역을 살았다. 특히 강만형은 1920년 2월 28일 서대문감옥에서 옥중에서 29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그는 구한말 청일면 춘당리 춘당고개에서 왜경과 싸우다가 전사한 강도영의 아들이며 4월 1일 만세운동 때 피살당한 강달희(사문)의 증손자이다.

이날 운동은 장시간 계속하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이 횡성군내에 전해져서 만세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또 이 운동을 주도하던 천도교인들도 보다 치밀한 계

획을 준비하여 감리교인과 연합하여 4월 1일의 더 큰 규모의 만세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황성의 4·1만세운동과 선생의 참여

3월 27일 만세운동에 뒤이어 4월 1일과 2일 3차에 걸쳐서 황성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27일의 운동에서 황성 천도교회의 지도급이 체포되어 황성 헌병분견소 헌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은 교인들은 더욱 분개하였다. 이러한 때 배후에서 조정하던 황성 천도교회 대교구장 최종하가 있어서 보다 조직적인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황성청년회 윤태환(尹泰煥)을 비롯하여 감리교회의 지도자 정해경(鄭海璟)과 탁영재(卓英才)와 연락하여 더욱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4월 1일(음력 3월 1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대목장 같은 분위기 속에 1,300여 명(강원도장관이 보고문에서 추산한 만세군중 인원)의 만세군중을 포함하여 장꾼, 구경꾼 등 수천의 군중이 장터로 몰려왔다. 원주 소초면 둔둔리 천도교인인 하영현(河永賢)과 강달희(姜士文이라고도 함) 등이 주민을 인솔하여 황성으로 왔다.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과 장터 요소요소에는 주로 천도교인들이 파견되어 이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옥동리 한치고개에서 술을 팔던 황소아줌마(황소갈보)도 술판에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하였다. 이즈음 아마도 선생도 이들 틈에 끼어 만세운동의 필연성을 역설하였을 것이다.

만세 분위기는 익어갔고 원주에서 온 일제군대도 증강되었다. 점심때가 지나도 군중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녁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간에 심리전을 하고 있을 때 일제의 헌병은 우선 일본 민간인과 헌병들의 가족을 당시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규화(李珪和)씨 집에 숨겨놓았다. 이규화의 집은 당시 군청



3·1공원 올라가는 언덕(이곳에 관사가 소재하였고
한병분건소는 더 올라가서 소재)

뒤편 언덕에 있었던 관사였다. 그리고 면사무소의 중요서류는 이미 낮에 비상 반출하여 숨겼으며, 낮에 면서기들을 소집하였을 때 당시 심상준(沈相俊) 군수와 김석환(金錫煥) 면장이 앞에 나섰고 심상준 군수는 “오늘 총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몸조심하라”고 훈시까지 하는 등 일제 관헌의 대비가 엄중하였다. 당시 이 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던 최양옥 선생도 “이미 일본 경찰이 낮부터 사격 준비를 갖추고 3·1공원 숲속에 배치되어 있었다”²⁾고 증언했다.

이렇게 서로 심리전을 펼치다가 오후 4시가 넘어설 때였다. 장터에서 쌀가계를 하던 조흥열(趙興烈)은 집을 고치려고 준비해 두었던 석가래 나무를 잘라서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고 윤석환은 장작을 배급하였으며, 몽둥이를 못 권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적당한 곤봉을 들고 여기저기에서 모였다. 그리고 골목마다 꿈틀거리는 무거운 행렬이 잠시나마 멈추고 침묵이 흘렀다. 이때 누가 외쳤는지 알 수 없지만 탁영재라고도 하고 조흥열이라고도 하며 혹은 정두철(鄭斗澈)이라고도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하는 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동시에 군중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연호하며 장터에 있던 광고판은 물론 군청과 면사무소에 있던 광고판을 부수면서 군청 쪽으로 몰려갔다. 상점과 술집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단지 않은 곳은 파괴하였다. 황성에 유일하게 있던 일본인이 경영하던 상점인 ‘가쿠다

2) 최양옥 선생이 1982년 여름에 박순업 문화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角田]도 만세군중에 의해 불타고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규화는 군중에게 매를 맞고 도망쳤다.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중 일본헌병 상등병인 고지마[小島了]가 말을 타고 군중을 해



황성면사무소 모습(1959)

산시키려고 거리에 나타났다. 군중은 헌병을 보자 격분하였다. 최동수(崔東壽)가 그를 말에서 끌어내려 밟고 때렸다. 이 때 총소리가 울리자 군중의 움직임은 일단 멎었다.

③ 탈출과 기타 만세운동

땅거미가 깔려도 군중들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그칠 줄을 모른 채 모두들 헌병분견소로 향하였다. 헌병들이 원주로부터 출동한 일제보병의 지원을 받고 뒷산에 매복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군중의 선두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일제의 총격으로 법주리 강성순, 둔둔리의 하영현·강달회(사문), 전한국이 순국하였고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매일리의 김치정도 그날 총탄을 맞고 순국하였으며(제자 신건수의 증언), 8명 이상이 부상당하였다.

순식간에 피범벅의 이수라장이 된 가운데 최양옥 선생도 현 황성군청 옆 느티나무 밑에 죽은 척 쓰러져 있다가 어둠을 이용, 안흥면 상안리(당시 상안흥리) 처가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잡복한 일경에 체포되어 압송되던 중 황성읍 추

동리에서 수갑을 찬 채 탈출에 성공하여 일경의 추격을 피했으며, 갖은 고생을 겪다 상경하게 되었다.



3 · 1공원에서 본 당시 황성군청 옆 느티나무(현재 수령 약 600년)

이날 잡혀서 징역을 산 사람은 천선재(1년), 정해경(1년 6개월), 김성서(1년 6개월), 조상열(8개월), 김윤신(8개월), 전성수(8개월), 김윤배(8개월), 김연의(순서, 8개월) 등이었다.

4월 2일에도 만세시위를 계속 전개하며 검거된 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날은 약 200명이 헌병분견소에 몰려와서 독립운동의 허가를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분견소장의 강경한 태도로 군중은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군중은 대부분이 황성장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상점의 문을 열지 않기로 합의하고 모두 폐쇄하였다. 그리고 7일에 가서 군수와 분견소장의 간청에 의하여 문을 열었으니 이것이 일제에 대한 무언의 항쟁이었다. 일제는 4월 2일부터 시위 주도자를 검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 가혹한 고문과 태형 등을 가하였다.

횡성의 만세운동은 이후 평창만세운동을 유발시켰고 또 4월 5일 원주 소초면에서 따로 운동을 일으키게끔 하였으니, 평창과 소초면의 운동은 횡성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부채고개에서 바라본 만세시위지(『강원도 독립만세사적지』)

여기에서 원주 소초면

평장리 부채고개의 만세운동을 알아본다. 소초면의 3·1만세운동의 주동자는 작고한 박영하(朴英夏)씨였다. 춘천 출신인 그는 유인석(柳麟錫)씨의 문하로 1894년에 이미 동학군에 가담 동학군이 망하자 산으로 숨어 다녔다. 그 후 1906년 홍천에서 동지 20여 명을 규합해 창의군에 가담, 난신적자와 친일주구를 처치하며 일본군에 항거하다 다음해 10월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패주하였다. 울분을 참지 못하던 박영하씨는 그 후 소초면 장양리(長陽里)에 와서 김정환(金正煥)씨의 사랑방을 빌려가지고 서당을 차렸다.

그는 서당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항일사상을 주입시켜 오던 중 만세운동을 한다는 기별을 받고 서울에 연락하는 한편, 자신이 원주 횡성천도교강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원주골에 가서 만세를 부르자며 많은 사람들이 소초면 평장리(平庄里) 부채고개에서 모이기로 했다.

4월 5일 아침, 5백 명의 군중들이 부채고개에 모였다. 군중은 원주군내 각처와 소초면민들이었다. 이때 만세운동을 주도하던 박영하씨가 등단하여 소리높이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했다. 군중은 목이 터지라 만세를 높이 불렀고 메아리치는 만세 소리에 맞추어 '만세! 만세!'하며 나아가다가 당시의 면장 남상철(南相喆)과 면서기 그리고 헌병대보조원을 협박하여 끌어다가 선두에 세우고 시위행진을 계속했

다. 시위가 끝날 무렵, 면장 및 보조원에게 독립운동의 취지가 이러하니 너희들은 같은 피를 받은 자로서 이 성스러운 일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방해하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라 설유하고 해산했다.



소초면독립운동기념비(소초면사무소 제공)

4월 7일이 되자 이른 새벽에 소초주재소의 일본인 경관 한 명을 앞세운 일본헌병 및 보조원이 들이닥쳐 주동자 17명의 집을 뒤지고 한사람씩 잡아다가 원주헌병대로 압송 구금했는데, 이때 헌병대의 고문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주동자인 박영하씨를 비롯해서 강사문, 김학봉, 조홍수, 임운집, 전병훈, 신현철, 심능하, 신조오, 심의승, 심능복, 심의교, 정기현 등 13명이 고문의 영향으로 옥중에서 또는 출옥 직후 별세하셨다.

이외에도 서원면 분일리(현 원주 매호리, 1982년 2월 15일 원성군 편입)에서 단독으로 일으킨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원주 지정면과 건등면(현 문막읍) 방면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자 혹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다.

4월 12일에 서원면 분일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횡성군 관할이 었다. 이 만세운동을 계획한 사람은 향산(香山)에 살던 송병기(宋秉箕), 성태현(成泰鉉), 박민희(朴民喜)와 수동(水洞)에 살던 이정헌(李正憲)이 송병기의 종현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협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의 네 사람은 향산에 살던 50여 명을 규합하여 분일리 내 향산과 수동 사이의 뒷산에 올라가 봉화(烽火)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상촌에 살던 유정근(柳定根), 이두연(李斗

淵)과 수동에 살던 이종우(李鍾禹)는 수동 느티나무 옆 김옥봉(金玉鳳)의 주막에서 김옥봉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동산에서 만세소리가 들리자 뛰쳐나가 수동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올라가 같이 만세를 부르니 저녁 9시 경이었다.

이들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오항(烏項), 상촌(上村), 수동, 향산 네 개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도록 만세를 부르다가 날이 샅 무렵에야 해산하였다. 이 만세운동으로 잡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은 8명인데, 송병기(10개월), 성태현·박민희(8개월), 유정근(7개월), 이정현·이두연·이종우·김옥봉(6개월) 등이다.

제 2 장 대동단 가입과 활동

1. 대동단 신덕영의 활동과 만남
2. 대동단 가입과 군자금 모집
3. 피체와 옥고





제2장 대동단 가입과 활동

1. 대동단 신덕영의 활동과 만남

3·1운동 후 원주에 머무르던 선생은 김가진(金嘉鎭, 1846~1922)이 총재로 있던 대동단의 조선지부 책임자 신덕영이 1919년 음력 11월경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로 찾아오자, 대동단에 입단할 것을 약속하였



최양욱 선생이 살던 원주 소초면 둔둔리 1019번지(현 1005, 왼쪽사진 중간부분)

다. 선생은 1920년 음력 4월 하순 ‘상경하라’는 신덕영의 편지를 받고 음력 5월 3일 상경하여 신덕영의 집에 동거하였다.

흔히 대동단으로 알려진 이 조직은 1919년 3월 말경에 서울 전협(全協)의 집에 모여, 첫째 한국을 일본제국의 통치에서 이탈하게 해 독립국을 형성하게 할 것, 둘째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할 것, 셋째 사회주의를 철저히 실행할 것 등의 3대 강령을 제창하고, ‘조선민족대동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단원은 귀족·관리·유학자·종교인·상공인·청년·학생·부녀자 등 각계각층 11개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비밀유지를 위해 점조직으로 조직되었다. 김가진(金嘉鎭)을 총재로, 군자금 등 재정은 전협이, 선전활동 및 대외활동은 최익환(崔益煥)이 맡았다. 그 밖에 김찬규(金燦奎)·박영효(朴泳孝)·민영달(閔泳達) 등이 참가하였다.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경도·만주 등에 지부를 설치해 조직을 확대하였다. 1919년 4월부터 1년간 지하문서를 배포하고, 특히 『대동신보(大同新報)』를 제작하였다. 임시정부수립 이후에는 본부를 상하이(上海)로 옮기려 했고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垆, 1877~1955)을 상하이



대동단 총재 김가진의 모습



의친왕 이강 모습

로 탈출시키려는 거사를 기도했으나 관련자가 붙잡혀 실패하였다.

의친왕은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귀인 장씨이며,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대동단의 최익환 등과 협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만주 안동(安東(현 단동))에서 발각되어 송환되었다. 그 뒤 여러 번 일본 정부로부터 도일을 강요받았으나, 거부하고 끝까지 배일정신을 지켰다

탈출 기도는 실패했지만 그 일을 통해 대동단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들은 1920년 6월 예심을 거쳐 12월 1심판결에서 전협과 최익환 등 31명이 징역 6개월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가진과 나창헌(羅昌憲) 등이 대동단의 활동을 계승해 정남용(鄭南容)이 붙잡히기 전까지 각종 선언서·기관방략(機關方略)·포고문 등을 등사해 전국에 배포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선전, 유도하였다.

1920년 여름 서울에서 신덕영은 선생을 비롯하여 자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병 중위라고 하는 박일봉(朴日鳳), 노형규(盧衡奎), 노석중(盧錫中) 등과 우선 전라남도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들은 일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농림주식회사의 주식모집원으로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후에 조직된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은 1919년 3·1운동 직후에 설립된 대동단 조선지부의 신덕영계(申德永系) 조직에서 유래되었다. 선생과 더불어 공명단의 신덕영, 김정련은 바로 대동단 신덕영계의 구성원들이었다.

신덕영계의 중신인물인 신덕영은 1890년 충북 음성군 음성면 읍내리에서 신병선(申炳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한학(漢學)을 배웠으며, 그의 학맥은 의당(畏堂) 유흥석(柳弘錫) 혹은 의암(毅菴) 유인석(柳仁錫)과 연결되어 있다.³⁾

3) 박한철, 1995, 『중보 의왕선생삼세록』, 강원일보사, 491쪽

그는 1910년에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한일병합 이후 1914년에 만주로 건너가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合泥河)의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 입학, 이듬해 졸업하였다. 그럼 여기서 신흥무관학교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新民會)가 설립한 학교이다. 신민회는 국권회복을 목표로 설립한 비밀결사로 1907년 4월 안창호(安昌浩)의 발기로 양기탁(梁起鐸)·전덕기(全德基)·이동휘(李東輝)·이동녕(李東寧)·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盧伯麟)·이승훈(李昇薰)·안태국(安泰國)·최광옥(崔光玉)·이시영(李始榮)·이회영(李會榮)·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이강(李剛)·조성환(曹成煥)·김구(金九)·신채호(申采浩)·박은식(朴殷植)·임치정(林蚩正)·이중호(李鍾浩)·주진수(朱鎭洙)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1909년 신민회(新民會)는 만주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동녕(李東寧)·이회영(李會榮)·장유순(張裕淳) 등을 기지답사를 위해 만주에 파견하였다. 1910년 7월 이들은 남만주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柳河縣 三源堡 鄒家街)에 우선 정착하였다. 그 뒤 토민의 배척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으나, 1911년 봄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모여 드는 청년들에게 구국이념과 항일정신을 고취시켜 조국광복의 중견간부로 양성시킬 목적으로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었다.

신흥강습소는 소장 이동녕, 교관 김창환(金昌煥)·남상복(南相復)·이장녕(李章寧)·이세영(李世永) 등에 의해 운영되었고 1911년 4월 제1기 졸업생 변영태(卞榮泰)·성준용(成駿用)·김련(金鍊) 등 우수한 애국 청년 40여 명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신흥강습소가 소재한 삼원보는 교통이 번잡하고 국제적 이목을 받기 쉬운 곳이라 판단하여 '인적이 드문 벽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통화현(通化縣) 제6구 합니하(哈泥河)로 옮기게 되었다.

강습소의 본관 건물이 준공된 뒤 1913년 신흥중학교로 개칭하여 중학반과 군사반을 두었다가 중학반은 폐지하여 지방중학에 인계하고 군사반만 전력하였다. 그런데 각지 애국 청장년들이 모여들었고 신덕영도 이 즈음에 입학하였던 것이다. 입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전부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1919년 유하현 제3구 고산자가(孤山子街)로 이전함과 동시에 신흥중학교를 폐교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이후의 행보가 순탄치 않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윤기섭·김창환·여준(呂準) 등의 굴하지 않는 기백과 인종(忍從)으로 각 촌락을 전전하면서 구걸을 하여 학생들의 굶주림을 달래며 학교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3·1운동이 종식되면서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는데, 특히 만주에서 무력항일투쟁을 벌려나갔다. 이때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군 중위 지청천(池青天), 윈난(雲南)사관학교 출신 이범석(李範奭) 등 우수한 무관들이 들어오면서 입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증가하였지만 실제의

가중되는 탄압과 잇단 사고 등으로 1920년 가을 폐교되고 말았다. 폐교된 그 날 지청천은 사관생도 300명을 인솔하고 백두산지역 안도현(安圖縣) 삼림지대로 들어가 홍범도(洪範圖)의 부대와 연합하였다. 김좌진부대의 뒤를 따라 밀산(密山)에 도착하여 대한독립군단 결성에 참가하였다.



신덕영의 모습

신덕영은 1915년 신흥무관학교(당시는 신흥중학교 군사반)를 졸업하고 1916년에는 간도의 교포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1917년 북만주 동녕현(東寧縣)에 호분중학교(虎賁中學校)를 설립하고 학감으로 재직하며 군사교육을 전담하였

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귀국하였는데, 이때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동녕(李東寧)과 박은식(朴殷植)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



상해교민단 주최 이승만대통령 상해도착 환영회 때(1920.12.28)의 이동녕(왼쪽에서 두 번째) · 박은식(오른쪽에서 세 번째) 선생

귀국 후 신덕영은 서울의 입정정(笠井町,

八判洞)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최양옥 선생 등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얼마 후 대동단 단장 김가진이 통제하는 대동단 조선지부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신덕영은 1919년 음력 7월경 김가진이 이끄는 대동단에 가입하였고 동년 10월 10일 김가진이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는 김가진이 직접 통제하던 대동단 조선지부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⁴⁾

한편 그는 대동단 가입 직후 1919년 음력 7월에 경북 문경으로 정인옥(鄭仁玉)을 찾아가 「독립선언서」 및 권총과 탄환을 제공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할 것을 권유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정인옥은 1875년 12월 8일 경북 문경군 문경면 하초리 265번지에서 태어나 1907년 8월 경북 문경에서 의병에 참여한 민족의식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1919년 7월 동지 신덕영(申德永)으로부터 권총 2정 및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교

4) 조규태. 2002. 「대한독립공명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33, 90쪽.

부반아 상주(尙州) · 충주(忠州) · 봉화(奉化) 등을 중심으로 1,500여 원의 군자금
 금을 수합하는 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었다.



독립선언문(1919.3.1.)

1920년 이후 신덕영은 대외용으로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설립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내기 위해 부한청년단(扶韓靑年團)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독립자금을 모금할 때는 만주농림주식회사의 주식모집원으로 가장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8월 하순 신중선(申鍾善)으로부터 대동단 명의를 군자금 모금에 관한 권유문을 받아서 광주(光州)에 내려가, 노형규(盧衡奎)가 지명한 정인채(鄭麟采) · 양사형(梁士亨) 등 여러 사람에게 우송하고 상경하였다.

그 뒤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 명의의 포고문과 대동단 조선총지단(朝鮮總支團) 부장 한부(韓扶, 신덕영의 별명)의 이름으로 된 경고문을 전라남도 부호인 노종승(盧鍾升) · 정해봉(鄭海鵬) · 양재국(梁在國) · 국채웅(鞠採雄)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때 즈음(10월경) 신덕영의 첩인 정수현(鄭壽賢)은 서울에서 모형 권총 2정을 구입하고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해 대동단 간부로서 당시 전남 광주에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분주하던 남편 신덕영에게 전달하였다. 『매일신보』(1920.12.21) 보도에 따르면 "처에게서 모형 권총을 전달받은 신덕영은 이를 동지들에게 전달하

였고 동지들은 이 모형권총을 활용하여 수백 환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수현은 전달한 후 체포되었고 일제 당국의 취조 과정에서 임신 6개월인 사실이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정수현은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1920년 10월 광주에서 이윤호(李允鎬)·노석정(盧錫正)·김정련(金正連) 등을 부한청년단에 가입시키고 신유선(辛有善)·정호필(鄭鎬弼)·정원채(鄭遠采) 등에게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군자금 모금원을 여러 반으로 나누어 1반은 박일봉(朴日鳳)·이윤호로 편성하여 화순과 나주 방면을 맡기고, 2반은 최양옥 선생을 비롯하여 신덕영·노기준(盧基準)으로 편성해 담양과 곡성 방면을 맡겨서 많은 군자금을 모아 상하이의 임시 정부로 보냈다.

한편 임시정부의 특파원 한준호(韓俊鎬)·박문용(朴文容)·정용택(鄭容澤)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군자금 모금에 진력하던 중, 같은 해 11월 선생이 노기준과 함께 광주에서 붙잡힐 때 신덕영도 담양경찰서원에게 붙잡혔다. 1921년 5월 광주법원에서 징역 8년을 언도받고 복역 중 1923년 5월 신병으로 가출옥하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 후 1927년 최양옥·안창남(安昌男) 등과 공명단(共鳴團)을 조직하고 북만주에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해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최양옥·김정련·이선구를 국내에 파견, 설립 기금을 모금하려다가 세 사람이 모두 붙잡혀 좌절되었다.

그 뒤 하얼빈(哈爾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2년 6월 일본 경찰에 붙잡혀 대전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1934년 10월 출옥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재외이재동포원호회(在外罹災同胞援護會)를 설립하고 독립투사들의 원호사업에 힘썼으며, 광복단(光復團)을 부활시켜 광복단중앙총본부 단장, 대한독립운동자동맹의 대표로서 건국사업에 노력하였다.

2. 대동단 가입과 군자금 모집

신덕영은 1920년 음력 4월에 인천으로 가서 노형규(盧衡奎, 1876~1947)를 만나 동지로 삼았다. 노형규는 전남 화순군 화순면 광덕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15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앞 갯미산 등에서 동리 서당생도인 조정환, 조기현, 조병렬 등과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 노형규는 1920년 6월 전남 광주군 광주면 수기옥정에 거주하고 있던 1875년생의 노석중(盧錫中, 1875~1954)을 경성부 입정정의 신덕영에게 소개하여 그를 대동단 조선지부원으로 가입시켰다.



노석중 노년의 모습



노형규 노년의 모습

또한 노형규는 광주군 교촌리 숭일(崇一)중학교 회계원으로 있던 김정련(金正連)을 동지로 가입시켰다. 그는 숭실중학교를 10회로 졸업하고 1919년 평양숭실전문학교 문과를 11회로 졸업한 기독교신자로 숭실전문학교에 다니던 1915년 9월 『숭실학보』 창간호에 「20세기활무대청년제군(二十世紀活舞臺靑年諸君)」이라는 글을 발표하는 등 민족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자택에 들어와 강제로 가족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배일

사상을 품고 있었고 한일병합과 3·1운동을 겪으면서 독립의식이 확고해진 인물이었다.⁵⁾

신덕영은 1920년 7월 경 최양옥 선생을 비롯하여 노형규, 노석중 등과 자기 집에 모여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주식모집원으로 가장하였다. 이후 신덕영은 선생으로 하여금 1920년 음력 8월 광주로 가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자신도 수일 후 유선주와 함께 광주로 내려와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독려하였다.⁶⁾

신덕영은 음력 8월 27일경 전남 광주의 노석정(盧錫正, 1892~1967)을 단원으로 가입시켰다. 노석정은 1920년 5월 하순에 대한민국군계특과원이라고 칭하는 한준호(韓俊鎬), 박문용(朴文容), 이재환(李在煥), 정용택(鄭容澤) 등과 만나 동지가 된 후 그들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인물이었다.⁷⁾

이외에도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첩인 정수현(鄭壽賢)을 비롯하여 유선주(劉善柱), 윤영기(尹永淇), 조병철(曹秉喆) 등을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조병철로 하여금 양인묵(梁仁默)을, 선생과 노석정으로 하여금 신유선(辛有善)을 권유하여 가입토록 하였다.⁸⁾

신덕영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권총과 총알을 준비하였다. 신덕영은 미리 준비한 권총 2정과 탄환 18발을 1919년 음력 7월 경 자신의 집 입정정(현 중구 입정동)에서 정인옥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그는 1920년 음력 8월 유선주로 하여금 총기 1정을 마련하게 하여 소지하였고 자신의 첩인 정수현으로 하여금 모의권총 2정을 입수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광주에 있는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

5)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14쪽.

6) 『독립운동사자료집』9권, 1059쪽.

7) 「관결문」(광주지방법원, 1921. 5. 31).

8) 조규태, 2002, 「대한독립공명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33, 92~93쪽.

였다.⁹⁾

이에 정인옥계를 통하여 경북 문경·봉화, 전북 금산, 충북 충주·괴산,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1920년 음력 9월 21일에는 선생이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노석정과 함께 신대선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 음력 9월 22일경에도 선생은 노석정과 함께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곡성군 겸면(兼面) 칠봉리(七峯里) 심상홍(沈相洪) 집에 가서 동인을 마을 앞의 작은 산으로 나오게 한 후 “우리는 광복단원인데 군자금 1,500원을 내라”고 요구하였다.¹⁰⁾



노석정 노년의 모습

선생은 1920년 9월 26일 단독으로 전남 광주에 내려가 이춘수(李春秀)의 집에 투숙한 후 노석중(盧錫中)과 전치영(全稚英)을 소집하였다. 선생은 이들에게 신덕영 등의 남하계획을 통고하고 이들과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한편 선생은 신덕영의 남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노석중과 전치영으로부터 10원씩을 받아 28일 서울의 신덕영에게 송금하였다.

10월 1일 신덕영, 박일봉이 송정리에 도착하여 광주 금계리(錦溪里)의 조명석(趙明錫)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선생은 이들의 지휘를 받아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10월 7일 선생은 박일봉과 함께 조병열(曹秉烈)의 안내를 받아 회순군 도

9)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21. 5. 31), 정수현.

10)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21. 5. 31), 신덕영.

림면(道林面) 능정리(綾亭里)의 손동채(孫東採)·손영채(孫永採)와 그 숙부인 손영현(孫永絢)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없어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선생은 10월 15일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의 이윤호(李允鎬)의 집에서 신덕영, 박일봉, 노기준(盧基準) 등과 협의할 때 권총을 구해오라는 임무를 받았다. 선생은 다음날인 16일 상경하여 권총을 구하려 하였으나 권총을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선생은 신덕영의 애인인 이경민(李敬敏, 정수현의 다른 이름)이 입수한 장난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이경민과 함께 광주로 내려왔다.

총을 구입하지 못하여 거사의 추진을 망설이던 선생과 신덕영 등 대동단 조선지부원들은 1920년 10월 27일 광주군 노천면(老泉面) 양림리(揚林里) 유한선(劉漢先)의 집에 모여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해 반을 나누었다. 제1반은 화순군·나주군 방면으로서 박일봉·이윤호가 맡고, 만약 이변이 있을 경우 화순군 동북면의 오(吳)씨 집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제2반은 담양군·곡성군 방면으로서 선생과 신덕영·노기준이 맡으며, 이변이 있을 경우에는 곡성군(谷城郡) 옥과면(玉果面) 합강리(合江里)의 고인식(高仁植)의 집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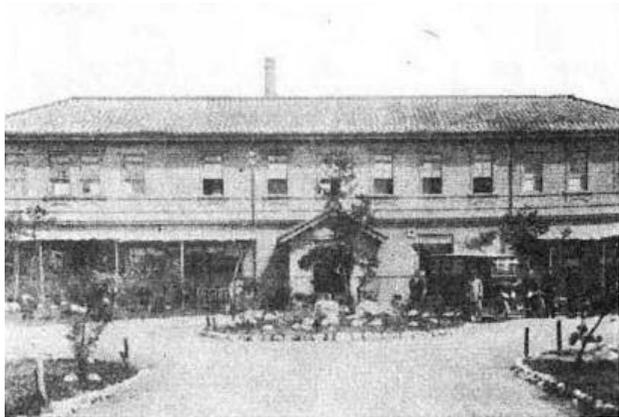
제2반에 편성된 선생은 장난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신덕영·노기준과 함께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선생은 먼저 11월 2일에 곡성군 제면(第面) 칠보리(七寶里)의 심운택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 1,500원을 요구하고 1,000원은 11월 10일, 500원은 11월 15일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에는 곡성군 화면(火面, 현 오산면) 조양(朝陽)의 신대선(辛大善)의 집에 가서 1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11월 10일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11월 3일에는 곡성군 삼기면(三岐面) 월경리(月境里)의 정호억(鄭鎬億) 집에 들어가 100원을 요구하여 11월 16일 임곡역(林谷驛)에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인 11월 3일에도 월경리의 정호필(鄭鎬

彌)의 집에 가서 200원을 요구하여 100원을 수령하였다. 마지막으로 11월 4일에는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유곡리(維谷里)의 박종호(朴宗鎬)의 집에 가서 집안사람을 전부 묶고 장난감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하여 1,000원을 요구하여 40원을 모금하였다.

3. 피체와 옥고

대동단원들이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은 선생 일행을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알게 된 연락반원 노석중은 급히 노상영(盧庠永)을 선생과 신덕영, 노기준에게 보내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렸다. 다행히 신덕영은 수집한 자금을 갖고 도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선생은 11월 5일 자동차로 전남 광주로 가던 도중 노기준과 함께 체포되었다.

선생이 체포된 후 신덕영과 다른 대동단 조선지부원들도 대부분 체포되었다. 이들은 3·4개월의 조사 후 기소되었고, 공판이 1921년 3월 8일에서 3월 17일로, 다시 변호인의 요청으로 4월 26·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 청사 모습

27일로 연기되며 신중히 다루어졌다. 공판에서 선생과 신덕영 등의 대동단 조선지부의 단원들은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뚝뚝이 밝혔다. 선생은 1921년 5월 31일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선생은 항소하였으나 1921년 12월 13일에 개최된 대구복심법원의 판결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 결국 선생은 대구형무소에서 5년동안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당시 재판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덕영 외 14명의 제령위반에 대한 공판은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재판석에는 사쿠라다(櫻田)재판장, 유복영(柳福永)·고이케(小池) 두 배석 판사와 기무라(村上)검사정이 열석(列席)하였는데, 원래 이 사건은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난 후 전라남도에서는 처음보는 중대사건임으로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는 방청인은 법정의 안과 밖에 가득하여 일시는 크게 잡답을 이루어 방청석으로 들어가는 문짝이 떨어지는 중 방청인의 머리가 터지며 의관이 상하는 등 살풍경을 이루었으며, 무장한 수십 명이 경관과 간수의 경계 중에 출정된 피고인들을 이 사건의 주뇌자되는 사람으로서 활발한 기상에 웃는 빛을 띤 신덕영을 서두로 하여 그 사람의 첩되는 여자로서 역시 피고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잉태한지 이미 여섯 달 되는 몸에 약간 과리한 그 색을 나타내 보이는 정수현(鄭壽鉉)으로 끝을 맺은 열 네 사람으로 한 대를 지어 늘어앉았는데 피고 신덕영의 물론 조선독립을 희망한다는 답변으로부터 사실심문이 시작되었는 바 그 사건의 내용은 피고 신덕영이 대정 3년(1914)부터 만주와 간도방면에서 조선인학교에 선생으로 있다가 대정 8년(1919) 조선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으로 돌아와서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로 보낼 계획을 꾸미어 최양옥·노형규를 동지로 가맹시키고 노형규의 소개로 노석중을 가입시켜

서 간부를 조직하여 작년 7월 경에 경성부 소격동(昭格洞) 신덕영의 집에서 네 사람이 관헌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한 사람의 관계를 가진 농림주식회사(農林株式會社)의 주식모집원으로 변장한 일과 둘째로 형규가 지정한 전라남도 부호에게 미리 군자금 제공의 위협문을 보낸 일과 셋째로 전라남도에 와서 활동하는 중에는 근거지를 광주군 본촌면 일곡리로 석중의 집에 돌○을 언○하고 유선주(劉善柱, 일명은 박일봉)과 조병열을 가입시킨 후 육혈포 한 자루를 구하여 가지고 전라남도 각지에서 활동을 개시하여 화순군 박현경(朴賢景)에게 금 200원, 광주군 이계익(李啓翼)에게 금 100원, 곡성군 신유선(辛有善)에게 금 30원을 가져간 일과 대동당 총재 김가진(金嘉鎭) 명의의 포고문과 대동단조선총지부장(大同團朝鮮總支部長) 한부(韓扶, 한부는 신덕영의 별명). 대동단조선총지부장 한부 명의의 경고문을 경성부 수표교(水標橋) 우체국통에 넣어서 전라남도 각 부호 중 노중승(盧鍾升), 정해봉(鄭海鵬), 양재국(梁在國), 국채웅(鞠採雄) 등에게 보낸 일과 이윤호(李允鎬)와 노석정(盧錫正)은 작년 5월부터 대한민국군제특과원(大韓民國軍制特派員)이라는 한준호(韓俊鎬), 박문용(朴文容), 정용택(鄭容澤), 이재치(李在熾) 등과 연락을 뒤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한호준 등이 서울로 올라간 후 중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신덕영 등과 결탁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던 일에 계속 활동한 일과 김정련(金正連)은 평양숭실대학 출신으로 광주숭일학교(光州崇一學校) 교원과 회계의 일을 보던 중에 암연히 독립운동자의 지도와 연락에 종사하던 중 신덕영과 한호준의 활동에도 찬동한 일과 민치도(閔致道)가 수만의 천군(天軍)이 오는 날에는 친일파는 크게 박멸시키겠다는 협박문을 발송하여 정인채(鄭麟彩)와 양사향(梁士享)에게서 모집한 군자금을 상해로 보낼일에 지도한 일이며 또한 그의 행동을 찬량한 일과 양인묵(梁仁默) · 윤영기(尹永淇) · 신유선(辛有善) 등은 신덕영 등에게 가입하여 양지봉(梁志鳳) · 양효묵(梁孝默) · 임승호(林承鎬) · 민영두(閔永斗) · 김형옥(金衡玉) · 윤희상(尹喜祥) · 정병현(鄭炳鉉) · 심상홍

(沈相弘) 등 부호의 이름을 소개하여 군자금을 강청케 한 일과 전치협(全稚莢)은 신덕영의 육혈포(당시 권총을 말함)든 행구를 송정역(松汀驛)부터 광주(光州)까지 허가없이 운반하여 준 일과 정수현은 완구용 육혈포를 경성에서 가져다가 자기 남편되는 신덕영에게 주어 군자금모집운동을 협조한 일과 유선주는 최양옥과 같이 화순군 손영현(孫永絢)·손종채(孫鍾彩)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청구하는 중 육혈포를 놓아서 그 집 기둥을 뚫어내고 집 안사람들을 위협하여 군자금을 강정한 일로 대정 8년(1919) 제령 제7호위반, 가택침입, 공갈취재, 총포화약취체, 규칙위반 등 사건이라는데 당일 오후 7시까지에 전부 심문을 마치고 그 이튿날 오전 9시부터다시 개정되어 검사의 구형이 있는 후 노병수(魯丙洙)·추장(秋場)·김병로(金炳魯)·송태환(宋台煥)·이정상(李政相) 변호사 제씨의 변론을 마치고 각 피고의 변론을 듣는 ○김정련은 일어서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반년 동안이나 옥중에서 고초를 받게 하고 또한 형기 2년이나 되는 징역을 선고함은 합당치 못하다는 말이 있는 후 폐정되었는데 시간은 오후 5시나 되었고 판결언도는 5월 7일이라 하며 검사의 구형은 다음과 같더라.

신덕영 징역 8년, 최양옥 7년, 노석정 7년, 이윤호(결석판결) 7년, 유선주(결석판결) 7년, 노석중 6년, 노형규 5년, 조병열 2년, 김정련 2년, 전치협 1년, 신유선 1년, 정수현 1년(『동아일보』 1921.5.1, 「광주에서 체포된 신덕영」).

그 후 재판소의 즉권으로 24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31일로 연기되어 당일 사쿠라다[櫻田] 재판장과 기무라[村上] 검사정이 열석한 후 언도하였는데, 이 때 운영기는 법정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여 방청인들을 놀라게 하였다.¹¹⁾

11) 『동아일보』(1921. 6. 4), 「법정에서 독립만세」

5월 31일에 진행된 광부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신덕영은 징역 8년, 최양옥·노석정은 징역 7년, 노형규·노석중은 징역 5년, 윤영기·양인묵·조병철은 징역 1년, 신유선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리고 김정련·조병열·전치협(全稚莢)은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1921년 12월 13일에 진행된 대구복심법원의 판결에서 신덕영은 징역 8년, 선생과 노석정은 징역 7년, 노석중·노형규는 징역 5년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다만 양인묵 만이 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¹²⁾

당시 공판에서 선생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대정 8년(1919) 11월경 신덕영이 내 본적 강원도 원주군 북초면에 왔을 때 동인의 권유에 의해 동인의 조선독립운동 군자금 모집에 찬성하여 동지가 되고 그해 음력 3월 중 광주에 와서 그 다음해 10월 7일경 유선주와 함께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씨명 불상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인이 없어서 그 어머니에게 “우리들은 임시정부 출장원인데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군자금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살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권총 한 발을 발사하고 모두 그 집을 떠나가고 손영순이 집에 돌아오는데 만나서 동인을 협박하여 안내인으로 하여 이웃집인 손중채 집에 침입했으나 역시 주인이 없어서 권총 한 발을 발사하고 그 집의 관벽을 관통하고 그 집을 떠나 와서 동리 손동채 집으로 갔다는 내용 및 “그해 10월 3일경 노석정과 함께 곡성군 화면 봉동리 신유선 집에 와서 동인으로부터 여비로써 10원을 받고 그해 11월 2일경(음력 9월 12일경) 신덕영 및 노석정과 함께 신유선의 안내

12) 「판결문」(광주지방법원, 1921. 5. 31), 노석중 인적사항란.

로 곡성군 검면 칠봉리 심상홍 집으로 가서 동인으로부터 군자금으로써 1,500원의 출금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 및 “군자금 모집용으로 제공하려고 신(申)의 집 토담 아래에서 완구 권총을 광주로 가지고 올 때 정수현의 짐 속에 넣어 왔는데 어시(御示)의 증제(證)호는 위 완구 권총임에 틀림없다”는 내용의 공술.

라고 하였다. 선생은 황성 4·1만세운동 이후 당시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위에 서는 북초면이라 하였는데 원주 북방 시골마을로 보면 될 듯)에 살고 있었는데, 신덕영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조선독립운동 군자금 모집에 함께 해 줄 것을 권유하자 동의하였다. 그리고 전남 광주로 가서 신덕영, 노석정, 노기준, 신유선, 유선주, 정수현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였던 것이다.

제 3 장

공명단의 단원으로서의 활동

1. 출옥과 중국에서의 신덕영 만남
2. 비행기 조종사 안창남과의 만남
3. 대한독립공명단 창설
4. 공명단의 독립자금 마련책과 입국
5. 경성입성과 우편수송차 탈취
6. 도피와 피체
7. 종로경찰서에서의 1차 신문
8. 경기도경찰부에서의 2차 신문
9.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의 신문
10. 형무소에서의 도산선생에게
타벽통보법을 가르쳐 준 김정련





제3장 공명단의 단원으로서의 활동

1. 출옥과 중국에서의 신덕영 만남

대동단 조선지부 신덕영계의 책임자인 신덕영은 1923년 5월 5일 녹막염을 앓아 보석으로 출옥하였다.

그는 연세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조금 차도가 있자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신덕영은 중국 베이징[北京], 허베이성[河北省]의 스자좡[石家莊]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1928년 초에는 허베이성 스자좡 후가(後街)에서 비밀리에 아편장사를 하고 있었다.¹³⁾

선생은 7년형을 받았지만 대정 13년(1924)의 은사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5년 남짓 옥고를 치르고 1926년 11월 15일 대구형무소에서 나왔다.

1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21쪽.

출감 후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집에 오니 부친은 4개월 전 별세하였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정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다.

가족을 돌보며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잘 먹고 살게 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일경의 회유와 “이제는 독립운동 할 만큼 했으니 가정 좀 돌보라”는 가족의 간곡한 청도 있었다.¹⁴⁾ 선생은 이 당시에 아내 안씨와 합의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자기가 큰 뜻을 품고 해외로 건너가 활동할 때에 자기 장래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소초면 둔둔리에서 1년 5개월 여 동안 생활하다가 1928년 4월(음력) 서울에 올라와 신덕영의 처 오씨를 만났다. 오씨는 선생의 출옥 사실을 허베이성(河北省)의 스자좡(石家莊)에 있는 신덕영에게 알렸고 신덕영은 선생에게 연락하여 곧 중국으로 오라고 하였다.¹⁵⁾

선생은 1928년 4월(음력) 신덕영의 처 오씨와 함께 베이징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신덕영을 만나지 못하였다. 신덕영이 허베이성 스자좡에 갔다는 말을 들은 선생은 다시 스자좡에 갔으나 이미 그는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太原)에 가 있어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선생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에는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신덕영을 만났다. 만난 직후 선생과 신덕영은 스자좡 후가(後街)에 위치한 신덕영의 집으로 가서 거주하였다.¹⁶⁾

이후 선생은 신덕영과 이곳에 본거를 정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고물장사와 아편장사를 하였다. 그러다가 이들은 1928년 음력 6월경 스자좡에서 산시성 타이위안으로 거처를 옮겼다. 선생은 타이위안부(太原府) 해자변(海子邊) 문패(門牌) 3호에서 신덕영과 함께 거주하였다.

14) 1982년 여름, 선생이 박순업 문화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15) 최양옥 「수기원고」(독립기념관 소장)와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60쪽 참조.

16) 최양옥 「수기원고」와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09쪽 참조.

2. 비행기 조종사 안창남과의 만남

선생과 신덕영이 여러 곳을 다니다가 비행기 조종사로 활동하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일본에 대한 민족적 분개를 느껴 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타이완에서 연시산[閻錫山, 1883~1960]¹⁷⁾의 비행기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던 안창남(安昌男)을 알게 되었다.



안창남의 모습

그는 1901년 3월 19일 서울 평동에서 안상준과 이씨 사이에 태어나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미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15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

으나 부친의 사망으로 중퇴하였다. 1918년 결혼을 하고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大阪]자동차학교 전수과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민모씨와 함께 운수업을 하였다. 이 때 계모가 혈값에 팔아치운 유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1919년 8월 다시 일본으로 가서 자체 비행기를 보유하고 조종을 훈련시키는 도쿄[東京] 아카바네[赤羽]비행기제작소 기계부에서 6개월 수학하였다. 1920년 8월 일본 도쿄 스사키[洲崎] 해변에 있는 오쿠리[小栗]비행학교에 입학, 그 해 11월 줄

17) 자는 보환[伯川], 산시성[山西省] 출생. 1909년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 신해혁명에 참가하였으며, 1912~1927년 산시군정장관[山西軍政長官]·산시성장[山西省長]을 역임하였다. 타이완안[太原]을 거점으로 산시 면로주의를 표방하고 독립왕국을 형성하였다. 반공내전에 패한 후 타이완 총통부 자정, 국민당 중앙평위원이 되어 반공저술에 전념하였다.



오쿠리비행학교 시절 안창남
(일본의 「역사사진」, 1923년 8월호)

업했고 12월에 『개벽』잡지에 ‘오쿠리 비행학교에 서리는 체험기를 게재하였다.

1921년 이듬해 5월에 처음 실시되는 일본의 민간 비행사 시험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시험에 합격, 면허증(면허번호 제2호)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가 되었다. 1921년 6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민간항공대회에서 2등으로 입상하기도 하였다. 1922년 11월에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 왕복 우편비행에 성공하여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1922년 12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서울 상공을 비행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당시 여의도 비행장에는 5만 여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회 15분간씩 30분간 비행하여 찬사를 받았다.

그가 탄 비행기 금강호(金剛號)는 단발쌍엽의 1인승으로 일본 오쿠리비행학교 소속의 영국제 뉴포트15 모델에 여러 부품을 조합해 만든 비행기였다. 그는 고국 방문 비행을 통해 식민지에 살며 고통 받는 동포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상징적으로



여의나루에 있는 안창남 여의도비행 안내의 글

보여준 젊은 영웅이었다. 고국에서는 그에게 전용기를 마련해주고자 박영효·권동진 등 47명의 유지들이 후원회를 조직하고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는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의 하늘을 날면서 내려다본 감정을 개벽지에 보여주었다.

경성의 하늘! 경성의 하늘!
내가 어떻게 몹시 그리워했는지 모르는 경성의 하늘!
이 하늘에 내 몸을 날릴 때 내 몸은 그저 심한 감격에 떨릴 뿐이었습니다.
경성이 아무리 작은 시가라 합시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도시라 합시다.
그러나 내 고국의 서울이 아닙니까. 우리의 도시가 아닙니까.
장차 크게 넓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도시,
또 그리할 사람이 움직이고 자라고 있는 이 경성
그 하늘에 비행기가 나르기는
결코 1·2차가 아니었을 것이나
그 비행은 우리에게 대한 어떤 의미로의 모욕, 아니면 어떤 자는
일종 위협의 의미까지를 띤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잘하나 못하나 우리끼리가 기뻐하고 우리끼리가
반가워하는 중에 우리끼리의 한 몸으로 내가 날을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더할 수 없이 유쾌히 생각하였습니다.

(안창남, 「空中에서 본 京城과 仁川」, 『개벽』 1923년 1월호)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오쿠리비행학교가 파괴되어 문을 닫고 국내 신문에 안창남의 사망설이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10월 4일에는 서울로 일시 귀국하였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안창남은 1924년 12월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망명을 하였다. 1925년 1월 상하이에서 비행사 양성을 위해 임시정부의 요인과 접촉하였으나 비행학교를 설립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중국혁명을 통

하여 민족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남방혁명군 귀쑹링[郭松齡] 휘하에서 우수한 조종기술을 인정받아 육군중장으로 봉직전쟁(奉直戰爭)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잠시 안창남이 참전하였던 봉직전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봉직전쟁은 봉천직예전쟁(奉天直隸戰爭)의 줄임말로 동베이[東北]지방(만주)에서 일본 세력을 배경으로 병권을 잡은 장쥘린(張作霖)은 안후이즈리[安徽直隸]전쟁 뒤 즈리를 지지하는 척하며 산하이관[山海關] 남부로 진입, 영국·미국 세력을 배경으로 가진 즈리파와 대립하였다. 1922년 4월 경한선(京漢線) 연선을 중심으로 양파가 전투를 벌였는데(제1차 평토티리전쟁), 평토티파(奉天派)는 패하여 동베이 지방으로 밀려갔다. 1924년 평토티파는 베이징 정권을 장악한 즈리파에게 대규모로 도전(제2차 평토티리전쟁), 이번에는 즈리파의 평위상[馮玉祥]이 배반하여 평토티파에 가담함으로써 평토티파는 베이징 진출에 성공하였다. 여기서 패한 우페이푸[吳佩孚]는 허난성(河南省)으로 도망쳐 물러나고, 대총통 차오쿤[曹錕]은 사임하였다.

이러한 전쟁 속에 평토티파의 군인이었던 귀쑹링은 남방혁명파에 접근한 평위상의 국민군과 결탁해 1925년 11월 장쥘린에게 하야를 요구, 동베이 국민총사령으로 동베이로 역진격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전쟁에 안창남은 귀쑹링부대의 휘하 장교로 참전하였던 것이다.

1926년, 안창남은 여운형의 소개로 연시산[閻錫山] 군벌의 항공 중장으로 초빙되어 그의 군대에서 복무하게 된다.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연시산은 안창남의 일본에서의 활동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일등비행사 안창남에 대하여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3. 대한독립공명단 창설

안창남은 연시산의 휘하에서 산시[山西]항공학교의 교장으로 연습생을 육성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항공중장이라는 높은 직급을 활용하여 그해 그는 한국인 동지들과 대한독립공명단 조직에 참여하였다.

당시 중국의 한인들은 1926년 베이징에서 ‘대독립당조직북경총속성회’를 조직한 후 1927년 9월까지 관내(關內)의 상하이[上海]·광둥(廣東)·우한(武漢)·난징[南京] 등지에서 유일독립당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만주(滿洲)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선생은 1928년 음력 6월에서 9월 사이 타이위안[太原]에서 신덕영, 안창남 등과 함께 ‘함께 소리내어 알린다’는 ‘공명(共鳴)’의 의미를 따서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을 조직하였다.

대한독립공명단은 단장, 부단장 외에 재정부, 정치부, 군사부를 두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모연(募捐)의 임무를 띤 재정부였다. 훗날 선생 일행이 재판을 받을 때 “선생 자신은 재정부 부원이었고 단장은 안혁명(安革命), 부단장은 신덕영이었으며, 재정부장은 이영(李英)이었다”고 하였지만 선생이 단장으로 피선된 것으로 보인다.¹⁸⁾ 이영이란 인물 역시 확실치 않으나 이영은 상하이 프

18) 단장에 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최양옥 선생이나 김정련, 이선구 모두가 안혁명이라 하지만 안혁명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독립운동사』7권 『의열투쟁사』 674쪽에는 “공명단은 중국 산서성 태원부를 근거로 최양옥이 동지 안창남·신덕영·김정련 등과 더불어 조직한 것으로 단장에는 최양옥이 피선되었다”고 하였고 선생 자신도 「수기원고」에서 “나는 단장이라고 징역 10년, 김정련은 8년, 이선구는 7년씩 받고 나는 마포형무소(필자주: 마포 경성형무소)를 가게 되고 김정련 이선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실제 단장은 최양옥 선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단장도 재판 중에는 신덕영이라 하였지만 훗날 「형무소에서의 도산 선생에게 타벽통보법을 가르쳐 준 김정련」(『새벽』 1957. 4)이란 글에서는 자신이 “조선독립군 공명단 부단장으로서 경춘가도에서 일본 총독부 우편차를 습격하였다가 붙잡혀 서대문 감옥에서 2081호의 패를 달고 9년 징역의 복역중에 있었다”고 하여 부단장이었음을 밝혔다.

랑스조계 삼마로 13호에 안혁명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한다. 김정련도 신문을 받으면서 이영이 재정부장으로 있었다고 말하였고 김정련 자신이 1928년 음력 10월 16일 그를 직접 만났다고 하였다. 독립운동선상에서 이영이란 이름을 사용한 사람으로는 신흥강습소 졸업생이 만든 신흥학우단의 3대 단장으로 활동한 이영이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대한독립공명단은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옌시산(閻錫山) 등에게 원조를 받고 일본의 가타야마 센(片山潛, 1859~1933)²⁰⁾ 등의 후원을 받으며, 국내 유지로부터 지원을 받아 약 15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의 난징(南京), 산시(陝西), 바오터우(包頭)의 세 곳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청년장교를 교육시켜 5개 사단 75,000여 명의 병사를 양성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리고 예상대로 군인이 양성되면 40,000명의 병력을 함경북도로 침입시키고, 35,000여 명의 병력을 평안북도 방향으로 침입시켜 일본과의 전면전을 일으키고 독립군이 중·소 지역으로 도피하여 일본군이 추격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소련과의 전쟁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침입에 호응하여 국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명단은 이 거대한 독립운동론을 실현하는 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릴지라도 계속 수행하기로 다짐하였다.²¹⁾

19) 조규태, 2004, 『대한독립공명단의 의열투쟁과 서대문감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 65쪽 참조.

20) 1859년 오카야마현(岡山縣)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일본의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의 개척자로 1921년 혁명 후 러시아로 망명하여 코민테른의 최고간부로서 일본공산당의 설립을 비롯하여 일본의 공산주의 운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1919년 뉴욕에서 일본공산주의자 그룹을 창설하고, 1921년 모스크바로 옮겨갔다. 1922년 제1회 극동제민족대회에 참석하였으며, 그 해 코민테른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주로 아시아 여러 민족의 공산주의 운동과 일본공산당의 결성을 지도하였다. 1927년에는 코민테른의 전위조직인 국제반제동맹(國際反帝同盟)을 조직하였고 국제혁명운동회생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일하였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10쪽).

2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10쪽.

선생은 공명단의 독립운동론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단원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선생은 1928년 음력 9월 대동단 조선지부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정련(金正連, 1894년생)을 스자좡[石家莊]에서 만나 공명단에 가입시켰다.

김정련(金正連)은 1895년 9월 27일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충렬동(忠烈洞) 갈산(葛山)에서 태어났다. 향리 오암서원(梧岩書院)에서 7년간 한학(漢學)을 수학한 후 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와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를 졸업하였다.

숭실전문학교 재학시 황해도 황주군(黃州郡) 청룡면(靑龍面) 금화촌(金花村)과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에게 항일 독립의 연설을 하다가 일경(日警)에게 체포되어 수차 평양 감옥에 구금되었고, 3학년 때에는 상해에 있는 김홍서(金弘叙)와 비밀 문서를 연락하던중 발각되어 다시 평양 감옥에 구금되었다.



김정련 모습
 (『동아일보』1929.4.22)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승덕소학교(崇德小學校)·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 교사로 봉직할 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김정련은 시위운동에 가담한 관계로 평양감옥에서 고형(苦刑) 90도를 맞았고 다시 동년 8월에는 전남 광주숭일중학교(崇一中學校)의 교사로 있다가 항일 연설을 한 관계로 8개월 징역에 2년 반의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기도 했다.²²⁾

22) 『독립운동사』7권 「의열투쟁사」678쪽.

이후 그는 신덕영계의 대동단 사건에 관련되었으나 다행히 무죄로 석방되어 평북 선천군의 신성(信聖)중학교, 평북 의주군의 양실(養實)고등보통학교, 강계의 영실(英實)중학교 등의 교원, 시대일보사 강계지국장 겸 기자, 동사 신의주지국장, 매일신보사 평북지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1928년 7월부터 1개월간 신의주부청에서 사자생(寫字生)으로 일하다가 1928년 음력 7월 하순 스자창으로 왔다.

선생은 1928년 음력 8월 하순 스자창 교서공흥존술군현리(橋西公興存術群賢里) 문패(門牌) 9호의 김정련을 만났다. 그때 선생은 공명단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음력 9월 하순 선생은 안창남과 함께 스자창의 김정련의 집에 가서 김정련에게 공명단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자 김정련이 공명단에 가입하였던 것이다.

이 때, 김정련은 자신의 공명단 가입 시 신의주부청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냈던 이선구(李善九)를 동지로 가입시킬 수 있는지 단장에게 먼저 말하여 응낙을 받았다. 그리고 1929년 3월 11일 12일 경부터 20여 일 동안 김정련은 신의주부청으로 이선구를 방문하여 그에게 공명단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이선구의 승낙을 받았다.

이선구는 본적이 평북 선천군 선천면 천남동(川南洞) 275번지이고 당시 신의주부 노송정(老松町)에 거주하는 29세의 청년으로 선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배재고등보통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다. 그는 20세까지 상점의 점원으로 있다가 1920년 7월 평북도청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시험에 합격한 후 평북 희천의 안비(安備)자동차공장, 강원도 철원 자동차



이선구 모습

부, 경성부 수표동의 송전(松田)자동차부(후에 내선자동차로 변경)에서 수년간 근무하였으며, 그 후 평남 중화에서 1년간 자동차영업을 하였고 1926년 신의주 다전(多田)자동차부에서 1년간 일하다가 신의주부청의 자동차운전수로 활동하였다. 이때 그는 신의주부청의 사자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정련의 감화를 받아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갖게 되어 공명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²³⁾

이외에 공명단의 단원으로는 베이징 순지문(順智門) 밖에 거주하는 이화(李華)를 들 수 있다. 또한 베이징 순지문 밖에 거주하며 선생과 김정련의 충을 맡아 주었던 김정환(金政煥)을 비롯하여 이일재(李一載), 정동석(鄭東錫), 이용화(李容華), 이의재(李義載), 노중현(盧仲鉉) 등도 공명단원이었다고 한다.²⁴⁾

4. 공명단의 독립자금 마련책과 입국

이러한 독립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명단은 먼저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는데 착수하였다. 먼저 외교적인 활동으로 안창남은 자신이 비행사로 있던 산시성 독군 연시산의 후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 약간의 후원을 얻은 듯하였다. 그리고 김정련은 베이징시장 허지공(何基鞏)을 만나 자금지원을 부탁하려 하였으나 그가 체포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70·157·188·189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976) 806·807쪽.

24) 조규태, 2004, 「대한독립공명단의 의열투쟁과 서대문감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 68쪽 참조.

이에 공명단이 연시산과 허지공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얻으려던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1928년 음력 9월 하순에 최양옥 선생은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등과 만났을 때 국내에 사람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 선생은 경춘가도의 우편차량을 탈취하여 한 번에 20~3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을 선생 자신과 김정련이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창남으로부터 콜트식 권총 1자루와 탄환 14발, 모젤 권총 1자루와 탄환 10발을 수령하였다. 이때 김정련도 로얄 자동권총 1자루와 탄환 12발을 수령하였다.²⁵⁾ 그리고 결행시기 등은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1928년 말 타이위안에 있던 선생은 다음해인 1929년 5월 서울에서 산업박람회 가 열리므로 서울에 들어가 일본의 고관과 관헌을 살해하고 아울러 송금차량을 탈취하여 공명단의 존재를 알리고 한꺼번에 다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작정하였다. 선생은 1928년 음력 10월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太原]에 있던 안창남으로부터 600원을 받은 후 1928년 음력 12월 15일 신덕영과 작별하고 김정련과 함께 입국하기 위해 스자좡에 갔다. 그러나 김정련은 그곳에 없었다. 김정련은 중국의 반일분위기가 심각해져 집을 전전하다가 중국 관헌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일본인임을 주장하여 베이징을 거쳐 텐진의 일본총영사관경찰서에 인계되어 1주일간 유치되어 있다가 일청조약(日淸條約) 위반으로 벌금 20원을 내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그는 안등(현 단둥)을 경유하여 도보로 신의주를 거쳐 1928년 12월 하순 평북 용천군 양광면 충렬동 906번지의 본적지로 돌아와 있었다.

스자좡에서 김정련이 체포되어 텐진으로 압송되었고 김정련의 총 한 자루는 베이징 순지문(順智門) 밖에 거주하던 김정환(金政煥)에게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된 선생은 김정환에게 자신의 총 두 자루도 맡기고 텐진으로 갔다.

25)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10·111·121쪽.

그런데 선생은 텐진에서 김정련이 일본총영사관에서 풀려나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선생은 안둥(현 단둥)에서 동지를 규합하려고(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탕고[塘沽, 텐진시에 있는 항구]를 거쳐 1929년 2월 18일(음력 1월 9일) 다롄[大連, 중국 동베이(東北)지방 랴오닝성(遼寧省) 랴오둥반도(遼東半島) 끝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였다가 갖고 있던 돈이 문제가 되었는지 수이상경찰서[水上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선생은 텐진(天津)의 일본총영사관에 압송되었으나 안창남에게 34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월 25일(음력 1월 16일) 석방되었다.

선생은 베이징으로 가서 김정환으로부터 권총 세 자루를 수취한 후 3월 6일(음력 1월 25일)경 베이징을 출발하였다. 선생은 평톈[奉天]으로 가면서 신의주 외곽 중지도(中之島)에 머무르던 김정련에게 입국계획을 알리고 평톈에서는 김정련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3월 7일 안둥역(현 단둥역)에 도착할 것이니 안둥역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선생은 3월 7일 밤 8시경 안둥역에서 김정련을 만나게 되었다.

선생은 김정련과 안둥역 근처의 송반여관[松坂旅館]에서 이틀간 묵고 동월 9일 하이둥여관[海東旅館]에 옮겨 투숙하면서 김정련으로 하여금 이선구의 공명단 가입을 추진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이선구를 방문하여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고 3월 11·2일 다시 신의주부청으로 이선구를 찾아가 공명단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3월 13·4일경 이선구의 공명단 가입승낙을 받았다. 선생은 해동여관에서 김정련과 이선구를 자주 만나 경춘가도의 송금차량 탈취의거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을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계획을 추진하기까지 안둥(현 단둥)에서 숙박업 또는 세탁업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의 부족과 설비의 부족으로 소기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다.²⁶⁾

2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77쪽.



신의주 전경(일제강점기)

선생은 국내에서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29년 4월 4일 김정련과 함께 평북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봉덕리(鳳德里) 43번지에 위치한 김정련의 17촌 조카인 김인옥(金仁玉)의 집에 찾아가 강도로 위장하고 160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4월 7일 하이둥여관에 모여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40원을 여비로 삼아 서울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선생은 4월 8일 오후 2시경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양복 안의 복부에 은닉하고 김정련은 한복을 입고 실탄 12발을 장전한 총 1정을 왼쪽 무릎 밑 안쪽에 봉대로 감아 숨기고 신의주로 들어왔다. 신의주에 들어온 이들은 이선구의 집으로 찾아가 출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5. 경성입성과 우편수송차 탈취

선생은 1929년 4월 9일 오전 1시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7시 5분에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김정련은 8일 오후 6시 조금 지나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1시 10분 경 황해도 사리원역에 도



1926년 경성역 모습(엽서,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착하여 숭실대학 동창생인 이남식(李南植)을 방문한 후 다시 사리원을 떠나 10일 오전 7시 5분에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선구는 10일 오후 10시 17분 신의주를 출발하여 11일 오전 9시 50분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선생은 10일 오전 7시 경에 서울에 도착한 김정련, 11일 오전 10시 경에 서울에 도착한 이선구와 사직공원 등에서 거사를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거사가 지체되었다. 그러다가 4월 16일 선생과 김정련이 이선구를 설득하여 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인 4월 17일 오전 11시경 선생 일행은 서울역 황금정(黃金町) 2정목(二丁目)에 위치한 이명구(李命九)²⁷⁾의 집을 출발하여 방산정(芳山町) 63번지 잡화상

27) 이명구는 1920년 평북 희천군(熙川郡) 희천면(熙川面) 읍내리(邑內里) 안비(安滿)자동차부(경영자 杉一郎平)의 운전사 감독으로서 재직하고 있을 때 이선구가 같은 자동차부의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당시부터 알게 되었고 선생과 김정련은 그 날 15일 집에 데려와서 소개하여 주었으므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진 경찰신문조서, 중인 이명구 신문조서).

유흥관(柳興寬)집에서 삼숫줄 등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차를 타고 양주군(楊州郡) 구리면(九里面) 교문리(橋門里)에서 내려 양주군 미금면(溟金面) 평내리(坪內里)의 안칠성(安七星)이 경영하는 여인숙에 도착하여 1박하였다. 이곳에서 선생은 이선구에게 모젤식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넘겨주고 사격술을 가르쳤다.²⁸⁾

다음날 18일 오전 7시경 아침을 먹고 선생 일행은 양주군 미금면(남양주시 호평동)과 화도면(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경계인 마석(麻石, 마치)고개에 도착하였다.



호평동에서 본 마치고개(좌)와 화도읍 묵현리에서 본 마치고개(우)

이들은 춘천방면으로부터 오는 차량을 감시하기에 용이한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후 다음과 같이 실행과 도주의 방법을 결정하고 우편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실행 방법

- ① 우편자동차가 오면 이선구는 자동차를 향해 우측에 정지하여 손을 들어 이를 세울 것.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총을 들이대고 협박

2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80쪽.

한 후 정차시키고 운전대에 올라 운전을 한다.

- ② 선생은 자동차를 향해 좌측에 있고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총으로 협박, 정차시키고 즉시 운전사를 소지한 삼숫줄로 포박한다.
- ③ 김정련은 자동차를 향해 좌측에 있고 선생 등보다 금곡(金谷)으로 향해 2·3정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여 경성(京城)방면에서 오는 자동차, 기타 통행인의 경계를 하고 만일 우편자동차가 정차하지 않을 때는 권총으로 협박하여 정지시킬 것.
- ⑤ 그리하여 우편물칸 안으로 들어가 빨간 행낭을 찢고 현금을 탈취할 것.

도주 방법

- ① 실행 후 제1안으로서는 범행 후 양주군 의정부를 거쳐 장단군 고랑포로 나와서 황해도로 들어가 점차로 국경으로 도주하여 안동현(현 단동시)에 도착하여 후사를 도모할 것.
- ② 제2안으로서는 즉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성에 잠입하여 기회를 보아 철도로 안동현으로 도주하고 후사를 도모할 것.

4월 18일 춘천을 출발한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의 제7호 차량이 오후 1시 40분경 고갯마루 아래의 계획된 지점에 이르자 계획에 따라 김정련은 망을 보고 이선구는 손을 들어 차를 정차시켰다. 우편차량이 정차하자 선생과 이선구는 즉시 차에 뛰어올라 선생은 운전사 김영배(金泳培)에게 총을 겨누고 삼숫줄로 그를 묶어 조수석에 앉힌 후 이선구가 운전을 하여 금곡(金谷, 현 남양주시 금곡동)방면으로 차를 몰았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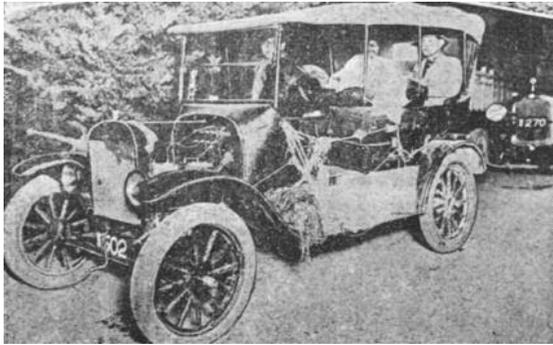
29) 『독립운동사자료집』11권, 806~7쪽.

이 때 마석고개 내리막 길에서 서울을 출발하여 춘천으로 향하던 오성(五星)자동차 소속의 447호 자동차와 만나자, 선생 일행은 차를 세우고 기관부의 발화장치를 파괴한 뒤 운전사와 승객을 그 차의 상자 안에 감금하였다.³⁰⁾



당시 경성우편국 제7호 피해차량(『동아일보』 1929.4.18)

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 4·5명도 체지하여 그 차의 상자에 감금하였다.



파손된 승합차량(『동아일보』 1929.4.18)

이 사이 선생은 김정련과 우편차량의 뒷 칸에 실은 우편행낭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선생은 김정련과 차량에 감금한 승객으로부터 33원을 획득한 후 오성자동차의 운전사 백남성(白南星), 승객인 이규면(李圭冕)에게 ‘대한독립공명단 만세’를 세 차례 소리 높여 외치게 하였다.³¹⁾

3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81~2쪽.

3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181~2쪽.

이때의 상황을 4월 19일 양주경찰서 소속의 도순사 어명례(魚命禮)와 김문학(金文學) 두 사람이 양주경찰서장에게 보낸 보고서에 의해서도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지난 18일 관내 미금면(湊金面) 마석우(磨石隅)고개에서 경성(京城), 춘천(春川)간 우편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2대를 습격한 위 제목의 범인수사 명령에 의해 범인 발자취를 수사 중인 바, 양주군(楊州郡) 미금면(湊金面) 평내리(坪內里) 119번지 숙박영업 김석흥(金錫興)의 말에 따르면 범행 전날 인상착의가 범인과 똑같은 자 3명이 양주군(楊州郡) 미금면(湊金面) 호평리(好坪里) 158번지 숙박영업 안칠성(安七星) 당 33세 집에 투숙한 것을 탐지하고 즉시 전기 안칠성 집에 대하여 상세히 수사를 하였더니 과연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 자칭한 좌기 3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경 경성 방면에서 와서 투숙하고 18일 오전 8시경 강원도 춘천으로 간다면서 마석우(磨石隅)고개를 향해 출발했다는 것으로 전기 3명은 본건의 범인과 틀림없음을 인정함. 또 좌기 김봉호(金鳳浩)는 다카마츠노미야[高松宮, 대정천황 황자] 전하(殿下)가 입국하는 즈음에 요시찰인으로 수배 중인 최양옥(崔養玉)의 주소, 연령과 같음으로 혹시 최양옥의 바꾼 이름이 아닌가 사료되며 그 방면에도 수배하여 주시길 위와 같이 보고함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시국표방 권총강도 범인수사에 관한 건」).

위와 같이 양주경찰서 소속 도순사들은 선생 일행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선생은 이미 다카마츠노미야[高松宮] 대정천황 황자가 입국하는 즈음에 요시찰인물로 수배 중에 있었고 이를 염두에 두었기에 숙박부에는 ‘김봉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선생 일행은 미금면 평내리 입구에서 도피하려던 때에 마침 춘천발 서울행 선일 자동차(鮮一自動車)가 오자 이를 세워 운전할 수 없게 만든 후 승객으로부터 현금 20여 원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선생 일행은 우편송금차량의 운전사 김영배와 선일자동차의 운전사 이기선(李起善)을 데리고 천마산으로 도피 중 평내리 뒷산에서 운전사들을 돌려보내고 오후 2시 30분경 천마산 산중으로 도피하였다.

6. 도피와 피체

선생 등은 천마산 정상에서 만일의사태를 대비해 자금을 분배하고 경계가 엄중하므로 배로 독섬(蘓島)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선생 등은 19일 새벽 양주군 화도면 녹촌리(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의 임희중(任熙宗)의 집에 도착한 후 인근의 암굴



최양욱 선생 일행을 체포하려 떠나기 직전의 경관결사대
(『동아일보』, 1929.4.22)

에 은거하면서 그로부터 식사와 의복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야음을 틈타 저녁밥을 먹고 한강을 통해 서울에 들어가려고 오후 8시경 임희중의 집에 이르렀을 때 경찰에게 발각되어 추적을 받게 되었다.

도피 중 일행에서 떨어진 김정련은 20일 오전 0시 20분 그곳 인근의 독립가옥에

서 체포되었지만, 선생은 이선구와 20일 오전 6시 양주군 외부면 덕소리(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동쪽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구리면 수석리(水石里, 현 남양주시 수석동)에 상륙하여 아차산에 숨었다. 이후 선생과 이선구는 20일 오전 9시 30분경 망우리 고개로 나와 남상진(南相鎭)이 모는 내선자동차(內鮮自動車) 경(京) 제408호를 정지시켜 빼앗은 후 이선구가 직접 운전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내선자동차 운전자 남상진에 대한 신문조서를 보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최양옥 외 2명에 대한 강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화 4년(1929) 5월 3일 경기도경찰부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남석우(南石祐)를 입회시켜 신문을 다음과 같이 하다.

문 : 주거, 직업, 성명, 연령은 어떠한가.

답 : 주거 경성부(京城府) 낙원동(樂園洞)42번지, 자동차 운전자, 남상진(南相鎭), 36세

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기재한 자인가 아닌가를 물어 그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증인으로서 신문할 것임을 고하였다.

문 : 증인은 어느 곳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답 : 경성부(京城府) 수표정(水標町) 50번지 내선(內鮮)자동차부에 근무하고 있다.

문 : 증인은 금년 4월 20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으로 가는 도중, 양주군 망우리고개에서 조선인 2인의 괴한이 나타나 승객을 내리게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성에 왔다는데 사실인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문 : 그렇다면 그 사실의 상세를 말하라.

답 : 나는 당일 내선자동차부의 제408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객 남 4인, 여 3인을 태우고 오전 9시 경성을 출발하여 춘천으로 향하였는바, 오전 9시 30분경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의 고개를 넘어 교문리(橋門里)부락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집이 있는데 그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그 집 방향에서 2인의 조선인 중 1인은 메리야스의 셔츠[襯衣]에 양복바지를 입고 모자는 쓰지 않았고 한 사람은 양복을 입고 모자는 쓰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자동차의 정지를 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경관이 단속을 위해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차하니까 메리야스의 셔츠를 입은 사람은 대형 피스톨을 나와 승객에게 들이대고 우리들은 지금 경관으로부터 쫓기어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이 자동차를 경성까지 운전할 터이니 잠시 하차하라고 말하므로 일동은 크게 놀라 즉시 하차하였으나 승객 중 1인의 조선인 늙은 여자가 내리지 못하여 그대로 타고 있었는데 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2인 중에 양복을 입은 쪽은 나의 운전용의 제모(制帽)을 쓰고 즉시 운전대에 앉고, 1인은 나의 다색 오바를 달라 하여 그것을 입고 또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므로 나의 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나의 신이 작았으므로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를 조수석에 앉히고 1인은 승객이 타는 좌석의 중앙부에 앉아서 급속력으로 경성으로 향해 운전을 시작하였다. 그 때 나에게서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아서는 안된다. 입 다물고 밑을 보고 있으라”고 말하므로 무서워서 다른 곳을 볼 수는 없었다. 차가 동대문 밖에 왔을 때에 조선인 잡화상으로부터 지카다비[地下足袋, 고무화] 한 켤레를 사서 메리야스를 입은 자가 신었다. 그리고 황금정(黃金町) 5정목(五丁目)의 승

마구락부 부근에 와서 자동차를 세워, 그들 2인은 하차하여 본정(本町) 방면으로 걸어갔다. 그 때 나에 대하여 “지금 곧 경찰에 신고해서 는 안된다”고 운전한 쪽이 말하였으나 나는 즉시 차를 운전하여 본 정(本町)경찰서에 가서 일의 상세를 신고하였다.

문: 운전한 쪽의 사람은 권총을 꺼내지 않았었는가.

답: 양복 주머니로부터 모양이 보일 정도로 내놓고 있었으므로 나는 볼 수는 있었으나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었다.

문: 증인은 레인코트는 받았는가.

답: 그대로 받지 못했다.

문: 시가는 어느 정도인가.

답: 시가 3원이다.

문: 피해의 장소로부터 경성까지의 1인당 자동차의 임금은 어느 정도인가.

답: 1인당 75전이니까 2인으로서 1원 50전이다.

문: 하차한 승객은 각각 목적지에 도착시켰는가.

답: 다른 차로 전부 목적지까지 운송하였다.

문: 승객의 주소, 성명은 모르는가.

답: 차표를 팔 때에 승객의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시의 승객에 대해서는 그 주소, 성명 등은 전혀 판명되지 않는다.

문: 경성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였는가.

답: 오전 10시 20분경이었다고 생각된다.

문: 그들 2인은 권총을 내밀고 죽인다고 협박은 하지 않았는가.

답: 그런 말은 듣지 않았으나 권총을 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하고 걱정하였다.

문: 그 밖에 할 말은 없는가.

답: 없다.

위를 일본어로 본인에게 읽어 들려주었더니 틀림없다고 말하고 서명 무인 하였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증인남상진 신문조서).

남상진의 증언에 의하면 선생과 이선구는 경성발 춘천행 승합차를 4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의 고개를 넘어 교문리(橋門里)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집이 있는데 그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그 집 방향에서 자동차를 정지시켰다. 당시 선생은 메리야스의 셔츠에 양복바지를 입고 모자는 쓰지 않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였으며 남상진의 코트를 빌려 입었다. 이선구는 양복을 입고 모자도 쓰고 있었다. 동대문 밖 창신동에 왔을 때는 조선인 잡화상 권오규(權五奎) 상점에게 고무화도 사 신고 10시 20분에 경성에 도착하였다.

당시 선생 일행이 도피하던 상황을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세 대가 운전수도 없이 놓여 있을 즈음에 내선자동차버스가 지나다가 발견하고 즉시 금곡주재소에 고발하여 이 급보를 들은 동주재소에서는 네 명을 즉시 추격하여 증거품을 수색하는 동시에 경찰부에서는 이(李)형사과장 이하 다수의 경관이 현장을 급거 출동하여 사건발생의 현장을 임검하며 즉시 아미구치(山口) 양주경찰서장 이하 십수 명의 경관이 현장에 달려가서 범인을 추격한 바 지세의 관계로 산중에 아직 있을 것을 추측하고 우선 산 아래에만 에워싸고 밤을 새워 100여 명으로 총공격을 하여 포위 습격하기로 하였던 바 19일 오후 6시 경에 양주군 화도면 녹촌리 암굴(巖窟)에 숨어있음을 판명하고 산상대(山上隊)와 산록대(山麓隊) 등 약 130명의 무장경관대는 암굴과 약 50여간 되는 거리에까지 이를 때에 범인들은

벌써 눈치 채고 전부 탈주하였다.

이렇게 엄중한 경계망을 돌파하고 탈주함을 그 뒤를 에워싼 제2선의 산하대가 발견하고 “정지하라 만일 움직이면 발사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으나 범인은 범갈이 나는 듯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둘째선도 넘어 천마산 속으로 또 다시 잠복하였는데 해는 이미 저물고 험준함으로 다시금 에워싸기만하고 있을 즈음에 범인들은 공복(空腹)이어서 견디지 못해 산 아래 외딴집을 찾아오다가 이 집을 미리부터 수배하고 있던 본정·양주·경기도 형사과 등 세 곳 경관에게 발각되어 21일 새벽 0시 30분에 세 명 중 김정련(金正連)은 먼저 체포되고 두 명은 탈주하였다.

이로부터 다른 두 명은 북한강 방향으로 탈주한 형적이 있다하여 총동원으로 천마산과 한강 연안을 사방 1백리 가량 에워싸고 대대적으로 수색된 바 범인 두 명은 이곳에서 뚝섬부근의 광주군 구천면(廣州郡 九川面) ‘가래울나루’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유동대(遊動隊)에 발각됨에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20일 새벽에 망우리(忘憂里)고개로 향하여 피신하여 가다가 경성을 떠난 춘천행 내선자동차(경 480호)가 21일 오전 9시 40분 경에 망우리를 지날 즈음에 이선구가 정차를 시켜 승객 6명 중 늙은 부인 한 명과 운전수만 태워 가지고 이선구 자신이 운전하여 경성으로 들어와 황금정 4정목 부근에서 내려 본정 4정목 방면으로 잠적하였다.

(『동아일보』 1929년 4월 22일 「권총단의 활동은 완전한 활동사진」.)

라고 하여 몇 겹으로 에워싸며 추격하던 경관들을 신출귀몰하게 따돌리고 도피하는 모습이 한 편의 활동사진이며 조선초유의 진기한 사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당시 양주경찰서에서 선생 일행의 발자취를 검증한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소화 4년(1929) 4월 20일 최양옥 외 1명에 대한 시국표방 권총강도 피의 사건에 관하여 좌기 검증의 현장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검증하다.

- 一, 입회인이 검증에는 도순사 히사타케 우이치로[久武宇一郎]가 입회함.
- 一, 검증의 장소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고개 및 그 부근
- 一, 검증현장의 모양 및 검증의 결과

(가) 본 검증의 장소는 구리면 교문리(橋門里)와 망우리의 경계를 짓는 경춘 2등도로로서 망우경찰관 주재소에서 약 1,100m, 교문리 본 부락에서 약 900m의 지점도로의 남쪽을 따라 건설한 조선식 목조 초가집 두 칸의 앞이다. 별지 도면에 보이는 바와 같다.

(나) 동소의 동면 아차산(峨嵯山) 북쪽 산 밑을 횡단하는 경춘도로로써 동남(東南)으로 면하면 동산이 솟아 있고 상당한 조림이 되어 있어 앞에 말한 두 칸 집에 접속하는 산골짜기는 약 20쌍의 소나무가 울창하여 동산의 정상으로 이르는 산길이다.

범인들은 그 산로에서 내려와 동 솔나무 숲에서 경성 춘천간 왕복 자동차를 기다렸다가 경성에서 춘천으로 향해 진행 중인 자동차를 정거시켜 이를 강탈 승차하여 경성 방면으로 도주하기에는 심히 어려운 장소이다.

(다) 앞에 나타난 장소에서 자동차를 강탈하여 범인 스스로 운전을 하여 경성부(京城府) 내에 도주한 점을 추찰하면 동 범인은 지난 18일 마석(磨石)고개에서 우편자동차를 습격한 시국표방 권총강도 최양옥(崔養玉) 및 이선구(李善九)의 행위임을 인정함에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동 범인 등의 침입경로의 발자취를 거꾸로 밟아 이를 검사하건대 별지 도면에 보인 것과 같이 한강연안인 양주군 미금면 수석리(水石里) 부락의 도선장에서 구리면 토평리(土坪里) 들관을 통과하여 아차산 봉우리를 따라 위 현장에 이른 발자취가 역력하다. 생각

컨대 범인들은 양주군 화도면(和道面) 녹촌리(鹿村里)에서 경찰관 수사대에 쫓겨 미금면 수석리 방면으로 도주하여 동소에 이른 것이 인정됨이 분명하다.

(라) 다시 나아가 범죄현장 부근 일대를 검안하여도 하등 얻는 바가 없으므로 도주한 방면을 추급하건대 별지 도면에 보인 것과 같이 도주 도중에 경성(京城) 창신동(昌信洞) 524번지 권오규(權五奎) 집 상점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승차한 채로 돈 1원을 내어 고무지하족대(地下足袋) 한 켤레를 산 것을 인정한다. 이 검중은 소화 4년 4월 20일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에 끝남.

작성일 소화 4년(1929) 4월 20일
발송자 검증장소 양주경찰서에서
사복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변재수(卞在洙)

이렇게 철통같은 경비를 뚫고 서울의 황금정(黃金町) 5정목(丁目)에 도착한 선생과 이선구는 본정통(本町通) 4정목 경성암(京城庵)에서 닭고기 계란덮밥과 맥주를 마신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무장경관대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인지경처럼 오전 10시 경 감옥에서 알게 된 정국민(鄭國敏)³²⁾이 있던 적선동 어구에서 내려 택시 요금으로 1원을 주고 두 사람은 작별을 하였다. 당시 상황을 모경관은 이렇게 말했다.

공명단원이 지난 20일에 내선자동차를 빼앗아 타고 경성시내로 들어와서 본정(本町) 4정목 경성암본점(京城庵本店)에서 일본밥과 맥주를 먹고 동일

32) 『동아일보』(1929. 4. 22)에는 정항(鄭恒)이라 되어 있다.

오전 11시에 말하되 “공명단이란 이름은 처음 들었으나 최양옥이가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 내지로 침입한다는 정보는 지난 2월 19일에 받았으므로 그 즉시로 관내를 수색하는 한편 엄중히 경계를 해 오다가 이번 일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경성 황금정(黃金町) 3정목 255번지 대정관(大正館) 앞에 있는 ‘황금택시’라는 자동차부에 이르러 경919호 자동차를 니시다 죠쇼[西田常勝, 운전수]와 가토 야스타로[加藤安太郎, 조수]의 운전으로 최양옥과 이선구가 타고 부청 앞을 돌아 이번 사건의 수색총본부인 경기도경찰부 앞에서 내리고 최양옥은 적선동 전차정류장 앞에서 내리었는데 그 눈치를 쬐 본 정서원이 전후 10여 차례 힐문하였으되 그 운전수들은 전연 그 사실을 부인한 까닭에 즉시 체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시내 본정서(本町署)에서는 23일에 두 명을 인치하고 29일 구류처분을 하여 그 즉시로 서울 형무소에 보내었더라(『동아일보』 1929년 4월 24일자 「상해에는 지부성립 공명단본부는 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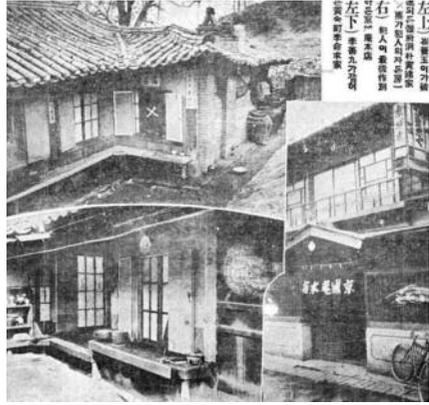


이선구가 은거하였던 북일여관(『동아일보』1929.4.22)

라고 하였다. 이미 선생이 무기를 휴대하고 국내로 잠입한다는 사실을 2월 19일부터 알았으므로 경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이선구는 북일여관(北一旅館)으로 들어가서 동래관에 유숙 중인 정국민의 조선 의복 환주의와 바지저고리를 가라

입고 권총과 탄환을 복일여관 4호실
 께 속에 넣어두고 저녁을 먹은 후 여관
 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년 전에
 충주 모자동차부에서 운전수로 있을
 때에 같은 자동차부에 수년을 같이 지
 냈던 이명구(李命九)의 집(황금정 1정
 목 48번지)을 찾아 갔다. 그런데 그때
 에는 이미 이선구가 그의 집으로 갈 것
 을 확실한 경기도경찰부 형사과 미야
 지[宮地]형사 외 1명이 그 집 대문 안



선생이 잠을 자던 집 및 방(좌상), 이선구가 체포된
 이명구 집(좌하)

좌우에 잠복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이선구는
 11시경 이명구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주인 여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이선구
 는 즉시 들어가서 건너 방으로 들어갔고 주인 여자와 이야기를 할 즈음에 잠복하
 였던 형사대가 돌연 습격하여 좌우에서 권총을 겨누고 “네가 이선구가 아니냐?”고
 한즉 “그러하다”고 대답함으로 그 뒤에서 양편 팔을 잡았으므로 특별한 항거할 사
 이도 없이 체포되고 말았다.³³⁾

당시 이미 경찰은 이선구가 이명구 집으로 올 것을 알고 잠복하고 있었던 사실은
 다음 문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문 : 4월 17일 아침 이선구 외 2명이 증인 집을 나설 때에 그들은 증인에 대
 하여 뭐라고 작별 인사를 말하고 떠났는가.

33) 『동아일보』(1929.4.22), 「여관이 위험하여 친구집 갔다가 잡혀」

답 : 나는 오전 8시 반경 테일러상회에 출근하기 위해 자택을 출발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선구 일행 3명이 나의 집을 철수할 당시에는 내가 상회에 나와 있었던 관계상 상호간에 작별 인사를 한 일은 없었다. 혹시 나의 아내에게는 무엇인가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지는 모르나 아내에게서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문 : 이선구 외 2명이 증인 집을 철수한 뒤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증인은 알고 있는가.

답 :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는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4월 20일 오후 3시경 귀부(貴部)의 미야지[宮地]부장과 남(南)형사가 테일러상회로 나를 찾아와 이선구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므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이선구 및 그 동반자인 최양옥, 김정련을 나의 집에 묵게 한 일이 있느냐고 또 물었으므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이선구 및 그 동반자인 최양옥, 김정련을 나의 집에 묵게 한 일이 있느냐고 또 물었으므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자택에 숙박하게 한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미야지[宮地]부장은 나에게 대하여 이선구, 최양옥 및 김정련 3인이 4월 18일 양주군에서 권총을 들이대고 우편자동차 외 2대의 자동차를 습격하여 금품을 강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다.

문 : 이선구가 증인 집에 잠복 중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고 하는데 그 전말을 자세히 말하라.

답 : 일(一), 4월 20일 나의 근무처인 테일러상회로 나를 내방한 미야지[宮地]부장, 남(南)형사가 말하기를 이선구가 나의 집에 들들지도 모르니 우리들 두 사람을 나의 집에 잠복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므로 나는 즉시 쾌락하고 미야지부장, 남형사를 나의 자택에 안내하여 동일 오후 4시부터 건넌방에 잠복하게 하였다.

이(二), 나는 아내 박성재(朴誠哉, 당 29세) 및 하녀(당 35세 정도, 성명 불

상)와 함께 동일 오후 9시경 안방 온돌에서 취침하였다. 동일 오후 11시 반 경이 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으므로 나는 하녀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 그랬더니 이선구가 안뜰로 들어와 마루에 오르고 이옥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아내가 이선구에게 말하였던 바, 동인은 나에게 대하여 어디가 아프냐고 문안의 말을 하면서 나에게 접근해 오는 찰나 이미 건넌방에서 잠복 중의 미야지부장, 남형사는 질풍진퇴와 같이 안방에 뛰어들어 손에 권총을 겨누고 두 형사는 이선구의 한쪽 팔을 움켜잡고서 나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침 자택 맞은편에 있는 라이온자동차부의 자동차 한 대를 빌려 이(李)를 태우고 두 형사는 귀부(貴部)로 압송하였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경찰신문조서, 증인 이명구 신문조서).

한편, 선생은 체부동(體府洞) 118번지(박인서의 집)에 머물고 있던 친척 최상하(崔相夏)의 방에 은거하였다. 최상하는 선생의 5촌 조카로 1911년 3월 선린상업학교 졸업과 함께 한호농공은행(漢湖農工銀行)에 들어가 5년 동안 재직, 그 후 원주금융조합에 3년, 대구은행에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그 후 2년 동안 대구인쇄업을 경영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머무른 집은 조선식기와집 건물로 약 30칸 정도의 집이었고 그 한 동(棟) 안에는 주인 박인서(朴寅緒)까지 8호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³⁴⁾

선생은 이선구가 4월 20일 오후 11시경(『동아일보』에는 11:30) 황금정 1정목의 친구 이명구(李命求) 집에서 체포되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탓에, 4월 21일 오전

3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경찰신문조서, 증인 최상하 신문조서.

5시 30분 최상하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종로서원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체포되던 상황을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자동차를 습격한 공명단(共明團)의 수령 최양옥(32)이 21일 미명에 시내 체부동(體府洞) 118번지 바침술집(술을 직접 담가서 술장수에게 넘기거나 명술로 파는 집) 박인서(朴寅緒)의 집에서 체포되던 광경은 범인이 그 안에 잠복하여 있는 것을 탐문한 소관 종로서에서는 100여 명 무장경관대로 그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21일 새벽 5시 날이 새기를 기다려 자동차로 몰려간 동서삼륜(三輪) 고등계 주임의 지휘하에 출동한 사복형사대가 그 밖에서 담을 넘어 매복한 후 동서고군(古郡) 경부보 이하 수십 명의 형사가 그가 자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범인의 가슴에 권총을 내대이자 그에 따라 들어갔던 이문경(李文卿) 형사가 자리 속에 간직한 범인의 ‘콜트’라는 실탄 8발이 채 어있는 대형 권총 한 자루를 현장에서 압수하였는데, 범인은 불의에 경찰의 습격으로 피착은 되었으나 그대로 태연자약하여 포승에 얼키어 문 밖을 나가서는 그는 둘러싼 신문기자들에게 향하여 “기자로서 해외에 공명단이라는 유력한 단체의 존재를 모르고 공명의 명자를 울명자로 잘못 게재하였다”는 것을 소리쳐 성명하고 경찰의 호위 속에 종로서로 향하였다.³⁵⁾

라고 하여 종로서 100여 명의 무장경관들이 집 주위를 겹겹이 포위하고 고등계 주임의 지휘하에 사복형사대가 담을 넘어 들어가 매복하고 경부보 이하 수십 명의 형사들이 선생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35) 『동아일보』(1929. 4. 22), 「백여경관포위하고 작일미명에 돌입포박」.

당시 체부동 118번지 집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20일 오후 2시 경에 일본의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작년부터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최상하씨를 찾아와서 그의 방에 들어가 벗어놓은 조선옷을 바꾸어 입고 다시 나간 것을 보았으나 그 후로는 다시 들어와 지는 것도 몰랐으며, 또 최상하씨는 20일에 집에서 나간 후로 그날 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가 21일 오전 11시경에 집에 돌아온 것을 바로 종로서 형사가 끌고 갔는데 최상하씨도 평소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며 전에는 원주은행 지배인이었으며 한 수일전에 한 번 최양옥씨가 찾아와 잤다는 것과 돌이는 서로 먼 일가관계가 된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동아일보』 1929년 4월 22일 「주인 없는 방에서 변복하고 외출

라고 하였다.

선생은 체포될 때, 일본 경관이 들이닥쳐 자신을 붙잡고 총을 찾으려고 허둥대자 “총은 이불 속에 들어있다”고 하며 총 있는 곳을 가리킬 정도로 태연하고도 위엄이 있었다. 과감한 행동으로 일제를 공포



검거된 후에도 늘름한 최양옥 지사 모습(좌측에서 두 번 째)

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체포될 때의 광경을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동의 거에 주도적 역할을 한 단장 최양옥선생의 체포에 대하여 “백여경관포위하고 작일 미명에 돌입포박 최후까지 대담한 최양옥”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반면, 당시 사건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다나카[田中]경찰부장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금번 사건에 대하여 다나카[田中] 경찰부장은 “이번 사건은 내가 약 10년 간 조선경찰계에 있는 동안 처음 보는 것이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적을 감춘 사실이며 사회에 대하여 큰 불안을 준 것도 처음이다. 내가 이 사실을 접하기는 지난 18일에 다카마스노미야[古松宮] 전하를 봉송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일부이라도 속히 범인을 체포하고자 고심한 것과 한 명은 곧 체포하였으나 두 명은 잡지 못하고 21일에 시내에 잠입토록 하였음은 실로 민망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은 나의 개인으로서도 참으로 중대한 책임이었다”고 말하더라(『동아일보』 1929년 4월 22일 「初見의 중대사건」).

바로 선생 일행이 행한 우편수송차 습격사건과 서울 시내를 횡행한 행위는 사회의 불안과 함께 다나카 경찰 부장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선생이 체포되었을 때 한 『중외일보』 기자가 선생의 동생 양길(養吉)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자.

최양욱이가 재작년 홀연히 떠난 후 그 고향 원주에 남은 세 어린 동생과 최양욱의 외할 딸순(伊順, 10세) 등을 거느리고 간신히 지내오던 그 아우 양길(養吉)은 작년부터 서울에 와서 경성부(京城府) 창신동(昌信洞) 693번지 그의 백부 최재길(崔在吉, 71세)씨의 집에 유(留)하면서 전매국(專賣局) 직공살이를 하고 있다. 그의 형이 21일 새벽에 체포되었다는 보도를 가지고 그 아우를 찾으니, “서울에 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수 일전 봉익동(鳳翼

洞) 사돈집에 잠깐 들렀을 때 제 누님이 만나 보았다고 하나 나는 못 보았고 어제 21일에 원주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던 길에 충도에서 형사대를 만나 어젯밤에 나도 경찰부에 갔다가 왔는데 혼자생활로 형의 일이 염려가 났습니다. 보통 때에도 술이나 담배는 안하고 별로 말도 없었는데 재작년에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나 그 간 몇 번 편지도 왔는데 작년 말에 ‘고향에 돌아가 세간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교수도 하겠다’고 편지가 한 번 있고 소식이었던 터입니다”고 하면서 놀란 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때 이 말들을 들은 매씨(妹氏, 선생 여동생)가 대성통곡을 하자 그 백부며 아이들까지 울고 있어 자못 쓸쓸하더라(『중외일보』 1929년 4월 22일 「목적의 군자모집 대거 재기를 계획」).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선생이 고향을 떠난 뒤 동생 양길이가 선생의 딸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백부의 집에서 기거하며 전매국에 근무하였으며, 선생의 피체 직후에는 원주에 있던 가족들을 백부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종로경찰서에서의 1차 신문

선생 일행은 피체된 4월 21일 그날에 종로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선생이 받은 1차신문조서는 다음과 같다.

위 강도 등 피의사건에 대한 소화 4년(1929) 4월 21일 경성 종로경찰서에
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지상우(池相雨)를 입회시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및 본적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최양옥, 연령 당 35세, 신분 양반, 직업 없음, 주소 부정, 본적 강
원도(江原道) 원주시(原州郡)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1019번지.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며 연금, 은금을 받고 또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사처분, 기소유에 또는 훈계방면을 받은 적이 없는가.

답 : 대정 11년(1922)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제령 위반 사건으로 인하
여 징역 7년에 처해져 대정 15년(1926) 11월 15일 형무소에서 방면
되었다.

문 : 교육의 정도 및 종교, 병역은 어떤가.

답 :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종교는 없다.

문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족 또는 고용·동거 등의 관계는 없는가.

답 : 없다.

문 : 가정 및 생활 상황을 말하라.

답 : 가족으로는 딸이 둘 있을 뿐인데 장녀는 광주군(廣州郡) 방면의 모
씨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은 원주(原州)의 언니한테 신세를 지고
있어서 나한테는 없다. 재산도 부모 및 아내도 없다. 형무소에서 나
와 불령단에 들어가서 생활하였다.

여기에서 피의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물었더니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다.

답 : 진술할 것이 있다.

문 : 그대들이 우편자동차나 기타 자동차를 습격하여 금품을 강탈한 것은 언제인가.

답 : 4월 18일 오후 1시 반경의 일이다.

문 : 장소는 어디인가.

답 : 경성에서 춘천으로 가는 도로인 양주군(楊州郡)의 마치령(馬岾嶺)이었다.

문 : 공범자는 누군가.

답 : 김정련 당 35세, 이선구 당 29세와 나 세 사람이다.

문 : 금품을 취하는 방법을 말하라.

답 : 우리들 생각으로는 조선에 들어와서는 부호나 자산가를 습격해서는 실패하니까 우편차 혹은 은행, 회사와 같은 곳을 습격하여 돈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우편자동차를 습격하여 많은 돈을 취할 생각으로 마치령(馬岾嶺)에서 춘천에서 오는 우편자동차를 기다려 이선구와 나 두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자동차를 세우려고 했으나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기에 이선구와 나는 자동차에 뛰어 올라 권총을 꺼내어 위협하여 정지시키고, 이선구는 자동차의 스위치를 빼고 운전할 수 없도록 해 놓고 나와 김정련이 상자 안에 들어가 행낭을 풀어 보니 적행낭이 있었으나 그 안에는 위채(환) 뿐이며 현금이 없으므로 실패로 끝났다.

우리들은 마치령(馬岾嶺)에 갈 때 이선구와 김정련의 금시계를 전당포에 잡힌 돈으로 여행비와 대절 자동차를 빌려서 갔으므로 여비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니 도망가려고 해도 여비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또 다시 여비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우편자동차를 세우고 행낭을 보고 있는데 경성에서 춘천 방면으로 가는 자동차에 손님 1명을 태우고 왔으므로 이것을 세워서 손님한테 16원 정도의 돈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그냥 그대로 보내서는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 손님도 자동차의 운전사도 우편차의 상자 가운데 태우고, 선구(善九)가 운전하여 평내리(坪內里)까지 갔는데, 춘천 방면에서 손님을 태운 자동차가 또 왔으므로 그것을 세워 일본인과 중국인, 조선인 손님에 대하여 돈이 있거든 내라고 말하여 일본인으로부터 10원을 취했다. 다른 자는 돈이 없다고 하였다. 그 때는 단지 여행비만 취할 생각이었으나 나쁜 행동을 했으니 도망가야 하지만 시계는 출발할 때 전당포에 잡히고 없어서 곤란하니 시계를 빌려 달라고 말하니, 중국인과 일본인이 시계를 내주겠다고 하여 그러면 빌린다고 말하고 수취하였다. 시계는 돌려준다고 하여 어디 있는 자인가 말하니 일본인은 춘천에 있다고 말하고, 중국인은 경성(京城) 남대문통(南大門通) 5정목(五丁目) 13번지라고 답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취하였다.

그리하여 도망하기로 했으나 운전사를 그냥 그대로 두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관에게 계출할 염려가 있고, 또 이선구가 알고 있는 운전사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도망가는 산 쪽으로 데리고 가자고 하여 끌고 갈 때 뒤를 돌아보니 또 한 사람의 운전사가 자동차 밖에 나와서 서 있었으므로 너도 오라고 하여 우리들이 도망가는 평내리(坪內里)의 북쪽 산까지 데리고 가서 선구(善九)는 알고 있는 운전사이니 죽이자고 말했으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것 없다고 말해 놓아 준 상황이었다.

문: 돈을 취한 것은 전부 얼마인가.

답: 일본인으로부터 10원, 경성에서 춘천을 향해 가는 여객으로부터 16원이며, 기타 손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취한 것과 합하여 35원이었다.

문: 시계는 몇 개 취했는가.

답: 1개이다.

문 : 우편자동차의 운전사에게 권총을 들이댄 것은 누구인가.

답 : 세 사람이다.

문 : 경성에서 춘천 방면을 향하여 가는 자동차 운전사나 손님에게도 권총을 들이댔는가.

답 : 그것도 같은 세 사람이 하였다.

문 :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취할 때에도 권총을 들이댔는가.

답 : 그렇다. 세 사람이 들이댔다.

문 : 발사한 일도 있지 않았는가.

답 : 있었다. 우편자동차와 춘천행의 자동차 운전사 및 손님을 위협하기 위해 고개에서 3발 발사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갈 때 추격을 당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1발을 쏘았다. 그것은 모두를 위협하기 위해서 하였다.

문 : 권총을 발사한 것은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위를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립없다는 뜻을 말하고 서명 무인하다.

공술자 최양옥

작성일 소화 4년(1929) 4월 21일

경성중로경찰서

신문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요코다 신타로[橫田信太郎]

입회인 사법경찰리 조선총독부 도순사 지상우(池相雨)(『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최양옥 신문조서 제1회)

한편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얼마 전 평북 용천의 부호 김신길(金信吉)의 집에 권총을 든 청년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나 권총으로 협박하고 현금 120여 원을 강탈한 사람들이 선생과 김정련의 소행임을 알게 되어 삼륜(三輪) 경부보 이하 두 명의 형사

대를 용천으로 파견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³⁶⁾

공명단 사건에 대한 취조가 일단락되어 가던 4월 30일에 선생의 동생인 최양길(崔養吉)과 원주에서 걸어올라 온 모친 등 가족 5명이 경기도경찰부로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헛되게 돌아갈 수 없다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검사국으로 넘어가자나 않을까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한다.³⁷⁾

8. 경기도경찰부에서의 2차 신문

1929년 5월 2일 선생의 2회 신문이 있었다. 그 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강도 등 피의사건에 대한 소화 4년(1929) 5월 2일 경기도경찰부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김덕현(金德鉉)을 입회시켜 전회에 이어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경기도경찰부 형사과2에서 찍은 선생의
당당한 모습(1929.5.2)

36) 『동아일보』(1929.4.27), 「공명단사건으로 경찰부원출장」.

37) 『동아일보』(1929.5.1), 「공명단 사건 급명간송국」.

문 : 그대는 최양옥(崔養玉)인가.

답 : 그렇다.

문 : 그대가 4월 21일 경성중로경찰서에서 말한 사실은 전부 틀림없는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문 : 그대의 처는 어떻게 했는가.

답 : 4년 전 합의이혼을 하였다.

문 : 부모는 사망했는가.

답 : 그렇다.

문 : 장녀는 광주군(廣州郡)으로 시집갔다고 하는데 있는 곳을 모르는가.

답 : 모른다.

문 : 그대 경력의 개요를 말하라.

답 : 18세 때 본적지의 보통학교를 졸업 후, 23세 때 강원도 원주, 횡성, 홍천 등에서 측량업을 경영하고 그 뒤에는 잡화 및 신탄 등의 장사를 경영 및 그 근교에서 경영하고 있었다. 대정 8년(1919) 3월 1일 만세사건은 내가 마침 26세 때이었는데, 당시 나는 아버지 재건(在建)의 친구인 신병선(申炳善)이란 사람이 경성부(京城府) 입정정(笠井町, 번지 미상)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동인의 집에 기숙하고 있었던 바, 동인의 장남인 신덕영(申德永, 당 41세 정도)이 마침 만주(滿洲) 방면에서 돌아왔다. 동인은 조선독립을 위해 다년간 중국 방면으로 가서 주의를 위해 운동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동인의 말에 크게 찬성하고 드디어 동지가 되어 경성에 체재 중 뒤에 신덕영이 조선독립대동단장(朝鮮獨立大同團長) 김가진(金嘉鎭)이 통제하는 조선 지부의 중심인물이 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나도 또한 동인과 행동을 같이 하던 중, 대정 9년(1920) 11월 전남(全南) 담양(潭陽)경찰서에 체포당하여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7년에 처해져(제령 위반) 대정 15(1926)

년 11월 15일 대구형무소를 출감하였다. 그 후 약 1년간 본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작년 음력 4월(날짜 불상)에 경성부(京城府) 팔판동(八判洞, 빈지 미상)에 거주하는 신덕영의 부인 집에 갔더니 신덕영이 중국 직예성(直隸省, 현재는 河北省으로 개명) 석가장(石家莊)에 거주하며 상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동가에 잠시 체재 중 그 부인이 신덕영에게 내가 일이 없어서 내정한 것을 통보한 결과, 신덕영으로부터 중국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왔으므로 동월 중 신덕영이 주거하는 석가장(石家莊) 후가(後街)에 갔다. 신덕영은 금년 41세 정도 같은데 그 지방에서 고물상을 표면으로 경영하고 실체는 아편장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동인과 함께 그 장사에 종사하던 중, 작년 음력 6월중에 산서성(山西省) 태원부(太原府) 해자패(海子牌) 3호로 옮겼다. 동년 음력 9월중(날짜 불상)에 신덕영 및 나는 공명단장(共鳴團長) 안혁명(安革命)과 석가장(石家莊)에서 만나서 안혁명이 조직한 조선독립공명단의 주지에 찬성하고 동단에 입단하여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문 : 신덕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답 : 작년 음력 12월 1일 동인과 산서성(山西省)에서 헤어졌는데, 지금 이야기에 의하면 흑룡강성(黑龍江省)의 어느 지방에 있는 모양이다.

문 : 공명단의 본부는 어디에 있는가.

답 : 상해(上海), 프랑스로계 3마로(三馬路) 13호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

문 : 부단장은 없는가.

답 : 부단장이 있다는 것은 못 들었다.

문 : 단장의 본적지는.

답 : 황해도(이하 불상)이다.

문 : 연령은.

답: 금년 50세 정도라고 생각한다.

문: 단원 수는.

답: 몇 사람인지 모른다.

문: 공명단이 독립을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답: 그것은 듣지 못했다.

문: 이번 목적을 달성한 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답: 안동현(安東縣)에 일단 모여서 그 뒤의 행동을 협의할 생각이었다.

문: 공명단원으로 아는 자는 누구누구인가.

답: 김정련, 이선구, 신덕영 등 이외는 모른다.

문: 이번에 자동차 습격을 한 목적을 말하라.

답: 공명단의 군사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문: 자동차 습격에 대하여는 어디에서 처음으로 계획하였는가.

답: 작년 음력 9월중(날짜 미상) 석가장에서 안(安)단장 및 김정련과 회합하였을 때, 단장은 종래의 독립단은 돈 100원이나 200원을 취하고 사람을 살상하고 있는데 우리 단은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적어도 만 원 이상의 돈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군자금을 취할 때는 현행 회사로부터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편자동차를 습격하여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편자동차는 경춘가도를 통행하는 것을 습격하면 적어도 2·30만원의 돈은 될 것이라고 말하니, 단장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조선에서 제1회의 군자금 모연(募捐)을 위해 대원으로서가 달라고 말하고 권총 두 자루를 나에게, 한 자루를 김정련에게 주었다. 나는 콜트식 권총 한 자루, 탄환 14발 이외에 모젤 권총 한 자루, 탄환 10발을 받은 것이다. 두 자루를 취한 것은 조선에서 동지 한 사람을 가입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최초 우편자동차 습격의 계획은 석가장에서 대체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언제 조선에 가서 실행하는가를 말한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 : 입국하여 이번의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말하라.

답 :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조선에서 군자금 모집의 결의는 되어 있었지만 그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던 바, 작년 12월 1일 산서성의 신(申)과 작별하고 석가장에 갔더니 김정련은 이미 조선으로 출발했는지 부재였으므로 알아보니 천진(天津)에 갔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동인의 뒤를 따라 천진에 갔던 바, 이미 1개월 전에 조선에 출발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조선으로 입국하도록 동지에서 김정련 앞으로 귀국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또 봉천(奉天)에서 동인에게 안동역까지 출영할 것을 동인에게 전보를 치고 금년 3월 7일 아침의 1번 열차로 봉천에서 안동에 와서 역전 부근의 송판옥(松坂屋)여관에 투숙하여 2일간 체재한 다음 3월 9일부터 해동(海東)여관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두 자루의 권총과 탄환은 해동여관의 천정에 숨겨두었다. 김정련은 3월 19일부터 해동여관에 지숙하였다. 그 사이 김정련은 신의주에 가서 동지 이선구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교섭하였다. 그래서 동인을 드디어 동지로 가입시켰는데 우리들의 해동여관에도 재삼 내방하여 여러 가지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것이다. 그런데 해동여관에 머물던 중, 안동시내 3번통 6정목 3번지 원(元) 한성(漢城)여관 자리를 안동시 칠성(七星)여관 주인 모 일본인으로부터 월 25원의 집세로서 빌려서 세탁소 및 하숙집을 영업할 생각으로 이선구의 집을 400원으로 저당에 넣어 돈을 빌려서 그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이선구의 부인이 이에 반대했으며, 또 안동경찰서에서도 가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문 : 숙박업소의 영업 목적은 그곳을 근거지로 할 생각이 아니던가.

답 : 그렇다. 그런 목적이었다.

문 : 입국한 경로를 말하라.

답 : 4월 7일에 김정련 및 이선구와 해동여관에서 회합하여 경춘자동차를 습격하러 간다는 것을 협의하고, 다음 8일에 경성으로 출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튿날 8일 오후 3시가 지나서 해동여관을 출발하고, 그 때 나는 중국 고물상에서 오래된 버들고리[柳行李](버들로 동글 납작하게 만든 작은 고리짜)의 적은 것을 매수하여 여기에 「오바」와 양복을 넣고 권총은 나의 복부에 두 자루를 같이 감추어 두 사람 모두 인력거를 타고 신의주에 들어갔다. 그 이후 나는 자주 안동, 신의주 사이를 왕복하면서 미리 순사, 헌병, 세관리에게 얼굴을 알게 해 두었으므로 입국 하는 데는 엄중한 취조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동일 신의주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이선구를 방문하여 경성행을 결행하도록 보고하고 우선 나와 김정련은 동일 오후 6시 몇 분인가 신의주에서 경성으로 출발하기로 하고 이선구는 10일 저녁에 열차로 출발하기로 약속을 했다. 우리들은 예정대로 경성으로 출발했는데 김정련은 9일 오전 시 10분경 황해도 사리원(沙里院)역에 하차하여 아는 사람을 방문하여 이튿날 10일 오전 7시 5분 경성에 도착하였고, 나는 전날 9일 오전 7시 5분에 경성에 도착한 것이다.

문 : 열차 안에서 경관으로부터 취조를 받은 일이 없는가.

답 : 도중 평안(平安) 석하(石下)역 부근에서 경관에게 불심검문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경성에서 신의주로 장사하기 위해 오가는 사람인데, 자금이 모자라서 귀경 도중에 있다고 말해서 용하게도 피할 수 있었다. 그밖에 취조를 받은 일이 없었다.

문 : 입경 후의 행동은 어떠한가.

답 : 입경 후 나는 즉시 부내(府內) 팔판동(八判洞) 48번지 신덕영이 있던

집을 방문하여 입국한 것을 그 처에게 말하고, 아침 대접을 잘 받았지만 그 처는 요사이 왠지 종로서의 형사가 귀하들을 찾아오는데 위험하다는 것을 말했으므로 무엇보다도 권총 두 자루를 복부에 감추고 있는 관계상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재빨리 나가려고 구두를 신고 있을 때 앞의 문에서 집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잠깐 내다보니 양복을 입은 사람이 혼자 서 있으므로 나는 평상시와 같이 나갔더니 동인은 나에게 주소, 성명을 물었다. 그래서 김동일(金同日)이라고 아무렇게나 답하니 잠깐 신체를 검사하였으나 복부에는 손이 닿지는 않았다. 그 때 나는 이래서는 위험하다. 만일 발견당하면 지금까지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 이럴 때는 부득이 동 형사를 사살하고 달아나야겠다고 각오하고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오른손을 복부에 넣고 있었다. 그 때 형사는 일단 나의 성명을 확인하기 위해 그 처(신덕영의 처)에게 걸어갔으므로 나는 이때다 싶어 도주하여 체부동(體府洞) 118번지의 조카가 되는 최상하(崔尙夏) 집에 도주하여 소지한 버들고리[柳行李]는 종제에 해당하는 부내(府內) 동대문 밖 창진동(昌進洞) 693번지 최선준(崔善俊) 집에 그 날 맡기고, 밤에는 체부동의 최상하 집에서 숙박하였다.

9일, 10일의 양일도 체부동에 있었지만 이튿날 11일은 이선구가 오는 날이므로 나는 오전 6시경 경성역에 나갔던 바, 김정련과 만났으므로 동인과 이선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침 7시 5분 열차에도 오지 않으므로 일단 정련과 두 사람은 체부동으로 철수하고 정련은 창진동의 아는 집에 돌아가 있었는데, 동일 오후 1시경 정련과 이선구가 함께 왔다. 그래서 사직동(社稷洞)공원에 가서 자동차 습격의 상담을 하였으나 아무런 여비도 없는 상태로서 나는 일단 강원도 원주에 가서 친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실행하겠으니 같이 가자고 이선

구 등에게 교섭하였으나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 날은 그렇게 작별하고 김정련과 이선구는 적선동(積善洞)의 사도(四道)여관에서 나는 같은 동의 북일(北一)여관에 숙박하였다.

이튿날 12일은 또 사직공원에서 계획 방법 등을 협의했으나 결국 결정하지는 못했다. 당시부터 이선구는 4월 15일까지는 기필코 신의주에 돌아가야만 하므로 일단 귀가했다가 뒤에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면 언제 오느냐고 물었더니 4월 21일은 봉급일인데 그 날이 일요일이니까 돈은 수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22일이 되므로 그 다음 23·4일경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으므로 나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12·13·14일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날을 보내고, 나는 그런 날은 체부동의 조카 집에 숙박하였다. 15일·16일에는 황금동(黃金洞) 1정목(一丁目)의 이선구의 친구인 이명구(李命求) 집에 세 사람이 같이 숙박하였다.

다음 16일은 세 사람이 같이 남대문시장에 가서 선구는 송 열매(갓), 호두[胡桃], 비누 등을 구입하여 대금인환으로 자기 집에 보내도록 하였다. 그 때 선구는 귀가할 것을 말하였지만 우리들은 반대하고 중지시켰더니 동인은 이윽고 결심하여 즉시 실행(즉 범행을 할 것을)하도록 독촉하였으므로 이튿날 17일 현장에 가기로 하고, 그날 밤은 이명구(李命求) 집에서 1박하고 다음 17일은 그 집을 출발하여 황금정(黃金町) 5정목(五丁目) 부근에서 이선구와 나 두 사람이 점포에 가서 삼새끼[麻繩] 세 묶음을 매수해 선구가 대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는 동대문 밖 모 음식점에 가서 선구는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서 세 사람이 타고 망우리(忘憂里) 앞까지 가서 하차하여 도보로 양주군(楊州郡) 미금면(湊金面) 평내리(坪內里)까지 가서 그곳의 안칠성(安七星) 집에서 1박하였다. 자동차 대금은 6원인가 7원을 선구가 지불하

였다.

문 : 이선구에게 권총을 준 것은 언제인가.

답 : 망우리 앞에서 자동차를 하차할 때에 주었다.

문 : 선구는 안철성 집에 숙박할 때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가.

답 :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틀림없다.

문 : 그대가 우편자동차를 습격할 때는 선구와 함께 권총을 운전사에게
들어줬는가.

답 : 그 때 선구는 손을 들어 정차할 것을 명령하고 즉시 운전대에 뛰어올
랐다.

문 : 우편자동차의 행낭을 찢은 것은 그대 혼자였는가.

답 : 나와 정련 두 사람이 찢었다.

문 : 정련은 그대 혼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정련도 칼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찢은 것이다.

문 : 행낭은 몇 개 이었는가.

답 : 그 수량 등은 서둘러 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문 : 행낭은 전부 찢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행낭 위에 덮은 삼새끼 및 비뚫개 등도 찢었는가.

답 : 그것은 기억에 없지만 우리들이 찢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 행낭 중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답 : 보통우편물과 위채권(환) 등이 들어 있었으며 현금은 없었으므로 취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시 우편자동차에서 절단하고 파손했다는 우편행낭 대소
6개 및 붉은 행낭 5개 및 천개망(天蓋網) 1개, 비뚫개 1장, 기타 행낭
을 묶은 삼 새끼 등을 보이다.

문 : 그대들이 절단 파손한 행낭, 기타는 이것이 틀림없는가.

답 : 그렇다 이것이 틀림없다.

여기에서 본건 증거품으로서 별지 차압목록 기재대로 차압을 하다.

문 : 당시 행낭, 기타의 물건을 절단한 모양 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기억이 없는가.

답 : 전혀 기억을 못한다.

문 : 우편자동차의 안전스위치 및 스피드메타 부침 총 7개 및 스피드메타, 와이어 케이스를 파손했다고 하는데 그대가 파손했는가.

답 : 나는 기억을 못하겠으나 누가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 : 경성에서 온 자동차를 세우고 기관부의 철사를 뺀 것은 그대인가.

답 : 그렇다. 내가 했다.

문 : 그 운전자 및 손님 한 사람을 우편자동차 상자에 넣은 것은 누구인가.

답 : 나와 정련이 했다.

문 : 승객 및 그 운전사의 돈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인가.

답 : 손님으로부터 내가 25원 정도 취하였지만 운전자한테는 취하지 않았다.

문 : 운전자로부터 8원 정도 취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우편자동차의 운전사를 묶은 사람은 그대인가.

답 : 그렇다.

문 : 그 때 사용한 새끼는 이것인가.

이 때 양주서(楊州署) 차압에 관한 증 제2호를 보이다.

답 : 그렇다. 이것이 틀림없다.

문 : 마석(磨石)고개에서 통행인을 향해 발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 그렇다. 그 때 경성 및 춘천 방면에서의 통행인이 4·5명 있었는데 이

들의 통행을 일시 저지시켰으나 그 가운데 25·6세 정도의 조선복을 입은 남자가 아래쪽으로 도망하므로 위협적으로 2발을 공중을 향해 쏜 것이다.

문 : 공중을 향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노리고 쏜 것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전혀 살상의 뜻은 없었다.

문 : 우편자동차 운전사의 포박을 풀은 것은 그대인가.

답 : 그렇다.

문 : 춘천에서 온 자동차를 세우고 기관부의 철사를 뺀 것은 그대인가.

답 : 그렇다.

문 : 그대는 자동차의 기관에 대한 지식을 가졌는가.

답 : 지식은 갖지 않았지만 이선구가 이렇게 하면 운전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문 : 그대가 우편행낭을 찢을 때에 쓴 칼은 이것인가.

이 때 종로서 차압에 관한 증 제8호 물품을 보이다.

답 : 이것이 틀림없다.

문 : 그대가 사용한 권총과 탄환은 이것인가.

이 때 종로서 차압에 관한 증 제6·7호를 보이다.

답 : 그렇다. 이것이 틀림없다.

문 : 그대가 마석고개에서 자동차를 습격할 때 춘천에서 온 선일(鮮一)자동차를 습격할 때 일본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품을 취하였는가.

답 : 현금 10원 권 1매에 금시계 1개와 메달 및 줄 붙임을, 또 중국인으로부터 금시계 1개를 취하였다.

문 : 일본인에게는 10원 권 2장을 취했다는데 어떤가.

답 : 나는 확실히 1장을 취했다. 그것은 나중에 산중에서 취한 돈을 합계하면 전부 35원인 것으로 보더라도 명확하다.

문 : 우편자동차의 운전자 및 선일자동차의 운전사가 도주할 때, 산중에 데리고 가서 돌려보낼 당시 그대는 죽이자고 말한 일이 있는가.

답 : 그런 일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문 : 그대는 종로서에서의 진술에서 이선구는 아는 운전사가 있으니 재미 없다고 하여 선구에게 처치해 버리자고 말한 것을 말렸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답 : 그 점에 있어서 전에 말한 것을 취소하며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그런 일은 진술하지 않았다. 당시에 죽인다고 말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문 : 그대들은 절대로 사람을 살상하지 않는다는 상담을 하였는가.

답 : 처음 상담할 때는 죽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이전에 7년 징역에 처해졌으므로 이번에 체포당하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니 체포당할 때는 경관쯤은 죽이고서 자살할 생각이었다.

문 : 양주군(楊州郡) 화도면(和道面) 녹촌리(鹿村里)의 외딴집에서 조밥을 지어 얻어먹을 때에 그대는 권총을 보였는가.

답 : 나는 항상 권총은 손에서 놓친 일이 없었으므로 물론 그 가족에게도 보였다.

문 : 당시 독립단에서 왔다고는 누가 말했는가.

답 : 내가 말했다.

문 : 밥값으로 1원을 주인에게 준 것은 누군가.

답 : 내가 주었다.

문 : 바위구멍으로 갈 때 이 일을 경찰이나 구장에게 밀고하면 집을 불태우고 가족을 몰살시킨다고 말한 것은 사실인가.

답 :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지금 오늘 하루만 비밀을 지켜주면 밤이 되어 우리들은 도망갈 테니 그 때까지 만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을 뿐

이다.

문 : 그 집의 주부가 점심밥을 바위구멍에 운반한 것은 사실인가.

답 : 그렇다. 저녁밥은 우리들이 해가 저물면 먹으러 간다고 그 집 사람에게 말했다.

문 : 그 집에 그대는 검은 구두 한 켤레를 맡기고 또한 짙신 한 켤레를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 그렇다.

이 때 양주서(楊州署)의 차압에 관한 증 제7·8호를 보이다.

문 : 그 품목은 이것이 틀림없는가.

답 : 틀림없다.

문 : 바위구멍에서 도주한 후, 한강 부근의 부락에 나온 것은 언제 몇 시경인가.

답 : 4월 20일 오전 8시경이다.

문 : 어디에서 배를 탔는가.

답 : 부락 이름은 모르겠으나 높은 강기슭이 있는 곳이었다.

문 : 배에는 어떻게 하여 탔는가.

답 : 그 부락에 가서 고깃배 비슷한 것이 있었으므로 그 작은 배를 빌려서 경성 방면으로 향하는 큰 배까지 저어가서 편승하였다. 작은 배의 주인에게는 돈 10전을 주고 큰 배 주인에게는 돈 50전을 주었다.

문 : 그 배로 망우리 방면으로 도주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 : 배로 강을 내려올 때 광주(廣州)에서 순사가 4·5명 있어서 배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듯이 보였으므로 기슭에 배를 대어 상륙하여 도주한 것이다.

문 : 그대는 도주할 때 망우리 산중에서 착용한 양복상의 한 벌, 중절모자 한 개, 고무신 한 켤레, 안경집 한 개를 버린 일이 있는가.

답: 있다.

여기에서 양주서(楊州署)에서 차압한 증 제3·4·5·6호 품목을 보
이다.

문: 그대가 버린 것은 이것인가.

답: 틀림없다.

문: 고무신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답: 그 물건은 한강에서 배를 타기 전에 통행인으로부터 1원을 주고 산
것이다.

문: 팔은 자는 통행인이며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답: 엿장수라고 생각한다.

문: 망우리고개에서 20일에 경성에서 온 내선자동차를 습격할 때는 시간
은 몇 시경이었는가. 또 그 장소는 어디 부근이던가.

답: 그 시간은 몇 시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오전 10시 전이었다고 생각
한다.

문: 그 자동차에는 승객이 몇 명 정도 있었는가.

답: 6·7인 정도 있었다.

문: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성에 가기까지는 어떠한 언동을 했는가.

답: 우선 나는 권총을 운전사 및 승객에게 들이대고 우리는 지금 경관에게 추적을 받는 사람이므로 자동차로 경성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승객은 하차하라고 명령하고 전부를 하차시켰으며 단지 노파 1명만은 태우고 이선구가 운전하여 경성까지 갔다.

문: 이선구는 그 때 권총을 보이지 않았는가.

답: 이선구도 보였다.

문: 운전사를 태우고 운전하기 전 선구는 운전사의 모자를 쓰고, 그대는 운전사의 오바를 착용했다는데 사실인가.

답 : 그렇다. 사실이다.

문 : 그 오바는 어떻게 했는가.

답 : 체부동의 조카 최상하 집의 책상 밑에 넣어두었다.

문 : 경성에 도망해 올 때 동대문 밖 점포에서 지하족대(地下足袋)를 산 것, 본정(本町) 4정목(四丁目) 경성암(京城庵)에서親子丼(오야꼬 돔부리, 닭고기 계란덮밥) 및 맥주를 먹은 일, 황금정(黃金町)의 황금(黃金)택시를 타고 적선동까지 온 일, 체부동의 조카 집에 가서 조선 복을 갈아입고 북일여관에 이선구를 방문한 것이 사실인가.

답 : 틀림없다.

문 : 경성암(京城庵)에서 1원 60전을 지불한 자는 누구인가.

답 : 내가 지불하였다.

문 : 그 돈은 강탈한 돈인가.

답 : 그렇다.

문 : 황금택시에는 얼마나 지불했는가.

답 : 돈 1원을 지불했다.

문 : 그 돈도 강탈한 돈인가.

답 : 그렇다.

문 : 강탈금은 공범자에게 분배했는가.

답 : 이선구에게 12원, 김정련에게 12원을 분배하였다.

문 : 정련은 1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12원이 사실이다.

문 : 그 돈은 어디서 분배했는가.

답 : 양주군(楊州郡)의 팔현동(八賢洞)의 산중에서였다.

문 : 이선구는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문 : 그대는 권총 탄환은 14발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2발을 사용했다면 아직 12발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닌가.

답 : 5발은 나의 조끼의 왼편 주머니에 넣었는데 바위구멍에서 도망갈 때 산중에서 분실하였다.

문 : 이선구에게 건네 준 권총의 명칭 및 탄환의 수는 얼마인가.

답 : 명칭은 브로닝식, 탄환은 8발이었다.

문 : 체부동의 최상하 집에 잠복했을 때는 사건의 내용을 말하고 잠복했는가.

답 : 아무 것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문 : 그대가 체포당할 때는 최상하는 같은 방에 있었는가.

답 : 그날 밤은 외출하고 없을 때였다.

문 : 그대는 중국에서 권총 3정은 모두 김정련이 소지하고 온 것이라고 종로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잘못이며 내가 2정, 김이 1정을 가지고 왔다.

문 : 범행 후 도주하는데 대한 방침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답 : 제1안은 양주(楊州)의 의정부(議政府)에서 황해도를 거쳐 국경에 다다른다. 제2안은 경성에 잠입하여 기회를 보아 철도로 국외로 도망할 것을 계획하였다.

문 : 이번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가.

답 : 김정련 등과 상해에 가서 단장에게 돈을 건넬 생각이었는데, 안동현에 가서부터 여러 동지와 상담할 작정으로 있었다.

문 : 돈을 탈취했다면 그대들은 세 사람이 만주(滿洲) 방면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은 없었는가.

답 : 그렇지 않다. 우리들에게는 단장이 있으니까 단장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생각이었다.

문 : 단원을 알고 있는 자는 신덕영 이외는 없는가.

답 : 그 외는 모른다.

문 : 이화(李華)라는 사람은 모르는가.

답 : 동인은 작년 음력 9월경 석가장(石家莊)에서 1회 면회할 때 단원이란 것을 들었으나 진부(眞否)는 불명이다.

문 : 그 사람의 본적지 및 주소는 어디인가.

답 : 말은 경기도 사투리인 듯하나 본적은 불명, 주소는 원래 북경 순지문(北京 順智門) 밖이었다.

문 : 무슨 장사를 하는가.

답 : 아편 장사를 하고 있다.

문 : 나이는 몇 살 정도인가.

답 : 40세 이상으로 보였다.

문 : 조선에 오기로 된 것은 그대와 김정련의 두 사람이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안창남(安昌男)은 단원인가.

답 : 단원이 아니다.

문 : 중국 산서성(山西省)을 출발한 날짜 및 출발 후 안동에 도착하기까지의 경과를 말하라.

답 : 작년 음력 12월 15일에 산서성을 출발하여 석가장에 가니까 이미 김정련은 그곳의 중국 관헌에게 붙잡혀서 천진(天津)으로 호송되었다고 듣고 북경을 거쳐 천진으로 갔다. 그 때 권총 두 자루는 이는 사람인 북경 순지문(北京 順智門) 밖 김정환(金政煥) 집에 맡겨 두었다.

천진(天津)에 가보니 정련은 조선에 갔다고 들었으며, 나는 당고(塘沽)에서 배로 대련(大連)에 건너가서 안동(安東)에 가서 숙박업이나

세탁소라도 해서 그곳에서 동지를 규합하려고 생각하여 권총은 그대로 두고 대련(大連)으로 향하였다.

그래서 금년 음력 1월 9일에 대련(大連)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수상(水上)경찰서원에 포박 당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산서성(山西省)에 있을 무렵, 작년 음력 10월경에 안창남(安昌男)으로부터 장사에 사용하려고 돈 600원을 차용하였다. 그 돈을 가지고 대련(大連)에 왔는데, 그 돈은 산서성(山西省)을 출발할 당시 단장 안혁명(安革命)에 대하여 조선에 목적을 위해 가니까 여비를 보내 달라고 의뢰하였던 바, 안창남에게 차용한 것을 가지고 가라. 자기는 동인을 면회하여 양해를 얻어 놓겠으며 돈은 되거든 지불해 두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출발한 것이다. 대련(大連)에서 붙잡혀서 다시 천진(天津)의 총영사 경찰서에 압송되어 취조를 받아서 그 때 돈 340원을 안창남한테 지불하고, 돈 40원은 내가 여비로 받고 동월 16일에 석방되었다(10일간 유치). 그 때 경찰에서 당고(塘沽)에서 배로 대련(大連)을 경유하여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당고까지의 차표를 사 주었으므로 당고까지 왔는데 그곳에 가서부터 문득 권총 문제가 생각나서 같이 조선에 돌아가면 권총을 가지고 갈 마음으로 그곳에서 북경으로 가서 전술한 김정환(金政煥)으로부터 권총을 수취하여 동월 25·6일경 북경을 출발하여 안동현(安東縣)을 기차로 갔다. 그 때 당시 신의주(新義州) 부외(府外) 중야(中野)섬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련에게 동일부터 3일 뒤에는 안동에 도착할 것이니 안동역에 나오라는 편지를 보내 둔 것이다.

문: 출발과 동시에 편지를 보내도 김정련에게는 빨리 도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출발하기 2·3일 전에 보냈다.

문: 권총은 어떻게 해서 운반하였는가.

답 : 양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복부에 집어넣어 두었다(총구는 아래를 향하고).

문 : 안동에는 언제 도착한 것인가.

답 : 양력으로는 3월 7일경이라고 생각한다.

문 : 안동현에 도착한 시간은.

답 : 밤 8시 반경의 기차이었다.

문 : 아침이 아니던가.

답 : 아침은 아니다.

문 : 안창남(安昌男)은 공명단원(共鳴團員)이 아닌가.

답 : 단원은 아니다.

문 : 안혁명(安革命)은 독립하는 방법으로 그대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답 : 나에게는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으나 다만 조선에 가서 독립사상의 선전과 군자금모집을 하여 본부에 송금하라는 말 뿐이며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었다.

문 : 공명단(共鳴團)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 : 내가 들은 바로는 정치부와 실행부가 있다고 들었다.

문 : 정치부와 실행부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답 : 나는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단장이 말하지 않으므로.

문 : 그대들은 실행부원인가.

답 : 실행부원이다. 실행부에서는 선전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니까.

문 : 무엇인가 위원의 표식이라도 있는가.

답 : 입단 당시 단장에게 그런 말을 하니깐 단장은 우리 단은 표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만 단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하면서 그런 물건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표식도 주지 않았다.

문: 이선구를 특별히 동지로 맞이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 그것은 정련이 한 일이며 나는 모른다.

문: 4월 4일 오후 9시 반경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봉덕리(鳳德里) 김인옥(金仁玉) 집에 그대 및 정련의 두 사람이 강도를 한 것은 사실인가.

답: 그렇다. 틀림없다.

문: 그 강도를 하겠다는 상담은 언제인가.

답: 4월 3일에 안동의 해동여관에서였다.

문: 이선구도 상담을 같이 했는가.

답: 동인은 거절하였다.

문: 안동에서 삼새끼[麻繩]을 매수한 것은 사실인가.

답: 그렇다. 사실이다.

문: 그 새끼는 언제 누가 어디에서 매입했는가.

답: 4월 3일에 안동부(安東府)내의 모 일본인 상점에서 매입하였다.

문: 몇 개 샀는가.

답: 두 개 샀다.

문: 김인옥(金仁玉) 집에서 강도를 한 상황을 말하라.

답: 4월 4일 오후 9시 반경 도착하여 내가 새끼와 권총을 휴대하고 실내에 들어가 마침 있던 사람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새끼로 포박하였다. 그 때는 권총을 가지고 협박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련은 외부의 감시를 하고 있었다.

문: 협박할 때 말의 내용은.

답: 나는 말하기를 “나는 독립공명단(獨立共鳴團)에서 온 자인데 너희들 집에 돈 1만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1만원을 내라”고 말했더니, “돈 1만원은 없다. 이 저금통장을 가지고 가라”고 했으나, “그

런 물건은 필요없다. 돈을 내라”고 말하니 그 집의 주인과 장남 등 2
· 3인이 돈을 냈다. 그 돈을 모아서 가지고 돌아왔다.

문 : 포박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었는가.

답 : 4· 5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문 : 묶은 방법은.

답 : 뒤로 혹은 앞으로 손을 묶었다.

문 : 묶인 자는 누구였는지 아는가.

답 : 당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등은 전혀 모른다.

문 : 묶은 새끼는 어떻게 하였는가.

답 : 그냥 두고 왔다.

문 : 돈을 그 집의 여자로부터도 취한 것이 아닌가.

답 : 여자로부터는 취하지 않았다.

문 : 강탈한 돈은 전부 얼마인가.

답 : 나는 150원 정도라고 생각한다.

문 : 정련은 160원이라고 말했는데 어떤가.

답 :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정련이 계산했으니 동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문 : 중국의 5원 지폐 한 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것도 모른다.

문 : 강탈한 돈의 종류는 어떠한가.

답 : 100원 지폐 한 장이 있던 것 밖에는 지폐의 종류는 모른다.

문 : 범행 후의 행동은.

답 : 범행 후 피해자 김인옥(金仁玉)을 약 10리 정도 동행하였다. 그 때 가
족들은 이 자가 귀가할 때까지는 주재소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신
의주(新義州)에 도착한 것은 다음 5일 오전 7시경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선구를 만나서 이번에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김정련과 두 사람은 도보로 철교를 건너서 안동으로 가서 안동여관에 도착하였다. 그 때는 오전 9시경이었다.

문 : 강탈한 돈의 처분은.

답 : 숙박비 30원을 지불하고, 김정련은 얼마나 소비했는지 모르며 하여 간 신의주를 4월 8일에 출발하여 경성에 왔을 때는 30원의 돈이 남아 있었다.

문 : 이선구에게는 얼마나 분배했는가.

답 : 나는 분배한 일이 없다.

문 : 그 때 강도한 목적은.

답 : 군자금 모집에 활동한 여비 및 숙박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였다.

문 : 강도하러 가자고 말한 것은 누구인가.

답 : 김정련이 주장하였다.

문 : 김정련의 친족이란 말은 하지 않았던가.

답 : 그 말은 못 들었다.

문 : 그 사건은 이제 그만두고 앞으로 돌아가서 양주군(楊州郡)에서 강도할 때 시계는 어떻게 했는가.

답 : 그것은 이선구에게 두 개 모두 주었다.

문 : 어디서 주었는가.

답 : 경성에 잠입 후 북일여관에서 주었다.

문 : 그 시계는 이것이 틀림없는가.

이 때 종로서에서 차압한 증 제5호 및 경찰부에서 차압한 증 제3호 물품을 보이다.

답 : 그렇다. 이것이 틀림없다.

문 : 그대가 소지한 권총의 위력은 어떤가.

답 : 착탄거리는 1,600m, 7연발이다.

문 : 그것은 실험하였는가.

답 : 단장인 안(安)이 그렇게 말했으며 실험은 하지 않았다.

문 : 그대가 강탈한 시계 2개를 이선구에게 준 것은 어디인가. 먼저 말한 것은 틀렸다고 보는데 어떤가.

답 : 중국인에게 취한 시계는 범죄 현장에서 최초로 도망한 산중에서 주고, 줄이 붙어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시계는 체부동의 최상하 집에서 주었다.

문 : 체부동의 최상하 집에서 돈 2원을 이선구에게 준 것은 사실인가.

답 : 그렇다. 사실이다.

문 : 그 돈은 강탈한 돈인가.

답 : 나의 돈인지, 강탈한 돈인지 판명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선구가 소지하고 있는 잔금 1원 45전은 뇌물로 인정하고 별지 차압목록 대로 차압을 하다.

문 : 체부동에서 체포당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는가.

답 : 나는 당일 오전 1시경까지는 눈을 뜨고 권총은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으므로 피로가 겹쳐 깊은 잠을 자고 새벽녘에 권총은 안전장치를 풀은 채 이불 속에 숨겨 놓고 있었는데, 돌연 밖에서 양옥씨, 양옥씨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그 소리가 정국민(鄭國敏)의 소리인 것을 알고 무슨 일로 왔는가 하고 권총은 그냥 둔 채 일어서서 문을 열었더니, 종로서의 경관이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포박당한 것인데, 사실 나는 전에 징역에 처해진 일도 있고 이번에는 무기나 20년 정도의 징역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경관이 체포하러 올 때 탄환이 7발 있었으므로 6발까지는 발포하여 전투하고, 마지막 1발로 자살할 생

각이었다.

문 : 그대에게는 별명이 있는가.

답 : 최추강(崔秋崗)이라는 별명이 있다.

여기에서 차압한 우편자동차의 피해품인 우편행낭 대소 6개 및 적행낭 5개, 그것을 매는 끈 및 비덮개 1개, 천개망(天蓋網) 1개에 대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더니 ① 천개망(天蓋網)은 그 중앙부에서 그물목[綱目]의 절단개소 3개를 확인함. ② 비덮개[雨覆]는 그 중앙부에서 끝이 1척(尺) 4촌(寸), 폭 7촌(寸)의 절창(切創)을 확인함. ③ 우편행낭 대(大) 3개에는 절창이 없지만 걸친 새끼는 모두 절단되어 있다. ④ 동행낭 소(小) 3개도 위와 같음. ⑤ 적행낭(赤行囊) 소 4개 중 1개는 낭(囊)의 일편은 거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절단되었고, 3개는 그 상부에서 적은 파괴를 확인함. 동행낭 대(大) 1개는 상부에서 소파(小破)를 확인함. ⑥ 우편행낭은 묶은 새끼를 보니 거의 절단되어 쓸 수 없다.

문 : 이선구는 범의가 없는 자로서 그대와 정련의 두 사람이 공범으로 끌어넣은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물론 권유는 했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이다.

문 : 안(安)단장으로부터 탄환은 몇 발 받았는가.

답 : 나의 권총에서 14발, 이선구의 것에서 8발이었다.

문 : 그대는 강탈금을 분배한 자금 12·3원은 어떻게 했는가.

답 : 그 돈은 양주군에서의 밥값 1원, 같은 군(郡)에서 고무신 값 1원, 이 선구에게 체부동에서 2원, 동대문 밖에서 지하족대(地下足袋) 1원, 자동차임금 1원, 靚子 并(오야꼬돔부리), 맥주대금 1원 60전, 북일여관에서 1원, 모자값 4원을 지불하였다.

문 : 합계 13원 60전이 아닌가.

답 : 그렇다.

문 : 35원을 강탈했다면 이(李)에게 12원, 김(金)에게 12원을 분배했다고 하여도 계산이 합치되지 않지 않는가.

답 : 그것까지는 아무래도 확실히 모르겠다.

문 : 이익이 될 만한 사실이 있으면 말하라. 또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

답 : 아무 것도 없다.

위를 일본어로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립었다고 말하여 서명 무인하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최양옥 신문조서 제2회).

9.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의 신문

체포된 선생 일행은 종로경찰서와 경기도경찰부로 넘겨져 조사받은 뒤 1929년 5월 10일 경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졌다.³⁸⁾

당시 상황을 보면 선생을 비롯한 일행이 얼마나 당당하고 태연했는지를 보여준다.

38) 『동아일보』(1929.5.10), 「공명단 사건 급일에 송국」 기사.

경기도경찰부 형사과에서 검거하여 취조 중이던 공명단 사건의 최양옥, 김정련, 이선구 등 세 명은 취조를 마치고 10일에 송국한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예정대로 어제 10일 오후 2시 경에 702호 자동차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는데 제1차로 김정련과 이선구를 호송할 때에 씩씩한 태도로 신문기자와 각 신문사 사진반을 향하여 “여러분들 수고하엿소이다. 일들 많이 하시오”라는 부탁을 두세 번 한 후 끄덕끄덕하며 인사를 하고 자동차에 올라 수갑 찬 두 손을 들어 최후의 인사를 다시 하면서 자동차는 떠나버리었고 제2차로 최양옥을 호송할 때에는 웃는 얼굴로 “만세는 부르지 말라는 부탁이 있어 부르지 않소,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일들 많이 하시오, 한 20년 후에 또 다시 만납시다”하며 사진반 앞에서 머물렀다가 자동차에 올라 역시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최후의 고별적 태도를 보이였다(『동아일보』 1929년 5월 11일 「태연한 태도로 답소자약코 수차에」).

1929년 5월 18일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세 번째 신문이 있었다. 그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사람에게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화 4년 5월 18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나가노 슌스케[中野俊助],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요코타[横田數喜]열석 하에 검사는 전회에 이어 피의자에게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그대는 최양옥인가.

답 : 그렇다.

문 : 전회의 진술은 틀림이 없는가.

답 : 틀림없다.

문 : 그녀는 공명단의 조직과 목적을 모르는가.

답 : 전번에 진술한 대로 안혁명의 단의 사정은 극비라며 가르쳐주지 않았다. 김정련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 공명단은 대정 원년(1911)에 안 혁명 외 몇몇 사람이 미국 하와이에서 결사 조직한 것이며 그곳에 약 3,000의 단원이 있지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목적 수행 상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소화 3년(1928) 중국의 상해(上海) 프랑스조계삼마로(租界三馬路)에 그 지부를 설치하고 단장과 간부도 그곳으로 이동하여 본부와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다. 상해지부에서도 이미 6·70명의 단원이 있고 그 단체의 목적은 조선독립을 꾀하는데 있다. 단장은 황해도 출신인 안혁명이며 그 나이는 52·3세가량이다. 그 조직은 정치부와 재정부 및 군사부로 나뉘어 있는데 대체적인 각부의 사업 내용으로는 정치부는 조선독립이 민족을 위해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선전하고 또한 독립 달성을 위한 수단 방법을 연구하고, 군사부는 현재 중국 고관인 장개석(蔣介石), 염석산(閔錫山), 풍옥상(馮玉祥)의 양해를 얻어 남경(南京)과 서안(西安)에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조선청년에게 군사훈련을 실시, 군인을 양성하여 사단을 편성한 후, 중국에서 동란이 있을 경우 그 병력으로 지원해주고 공명단에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중국의 원조를 받게끔 상호연락을 유지하는 한편, 조선에서 활동 중인 각 독립단과도 연락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반정부 인사들과도 연락을 유지하여 독립할 경우에 대비토록 하고, 재정부는 단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재원을 발굴하며 그 자금조달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 : 그대들이 이선구를 공명단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인가.

답: 김정련이 그에게 공명단의 내용과 우편차를 습격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그 습격에 가담시키기는 했지만 특별히 공명단에 가입시킨 일은 없다.

문: 우편자동차를 습격했을 때 그대가 권총으로 운전사를 협박하고 결박하여 짐칸으로 태운 다음 그대는 칼로 행낭을 동여맨 노끈을 잘라 행낭 안을 뒤졌는가.

답: 그렇다.

문: 그 때 김정련과 이선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답: 이선구는 운전대에 올라 운전하도록 했고 김정련은 그 부근에서 서서 통행인을 경계하고 있었다.

문: 경성으로부터 온 오성(五星)자동차의 운전사와 그 승객한테서 돈을 강탈한 것은 누구인가.

답: 나였다. 내가 권총을 들이대어 그들을 내리게 하고 우편차의 짐칸에 옮겨 태운 후 내가 협박해서 강탈했다.

문: 그 때 김정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답: 그 때도 그는 밖에서 통행인을 경계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한테서 돈을 빼앗은 후에 그가 차에 올라탔다.

문: 춘천에서 온 선일(鮮一)자동차를 덮쳐서 금품을 강탈했을 때는 그대와 김정련 둘이서 했는가.

답: 그렇다. 그 때 우리는 도망갈 참이었지만 나와 김정련은 그 자리에 되돌아가서 그 차의 운전사와 승객을 권총으로 협박한 다음 금품을 강탈했다. 그 때 이선구는 되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범행을 보고만 있었다.

문: 그대가 권총과 실탄을 이선구에게 교부한데는 관청의 허가가 있었는가.

답 : 허기는 없었다.

문 : 그대들이 천마산(天磨山)으로 도주할 때 운전사 2명을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

답 :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이 곧바로 주재소에 신고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데리고 간 것이다.

문 : 그 운전사들을 살해할 생각에서 산중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문 : 그대들이 데리고 간 운전사들의 진술로는 그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애당초 우리는 단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받은 일이 있기에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진술자 최양옥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자서하여 무인을 하였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최양옥 신문조서 제3회).

그리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10여 일간 조사받고 5월 20일경 기소되었다. 이들은 범죄사실, 즉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협박, 총포화약취체령위반, 불법체포감금, 우편법위반, 살인미수, 기물훼손죄 등을 인정하였으므로 예심에 부칠 필요 없이 즉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런 와중에 권총과 폭탄을 휴대하고 공명단원이 서울로 잠입하였다는 설이 있어 경찰들을 긴장시켰다. 당시 경찰 정보에 의하면, “경성시가를 진동시킨 공명단

사건의 상해본부에서는 최양옥 선생 등 세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수령 안혁명이 하 단원들이 회의를 열고 결의한 결과 동단의 사명을 도달하려다가 잡힌 세 단원을 구해내는 동시에 보복행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우선 담력있는 부원 6명으로 하여금 00대를 조직하여 단총과 폭탄을 휴대케하고 벌써 출발시켰다는데 그들은 우선 최양옥 이하가 수금되어 있는 서대문형무소를 00하여 동지를 구해내는 동시에 경찰부와 종로서를 00하리라는 무서운 목적을 가졌다는 바 이런 정보를 접한 경무당국에서는 방금 엄중한 수사망을 펼쳐 놓은 중이라더라”³⁹⁾고 하였다.

제1회 공판이 6월 21일에 개정(開延)될 예정이었으나 6월 18일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허헌(許憲), 김병로(金炳魯), 이인(李仁) 등이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사건 기록 등사, 기타 열람참고 등으로 공판연기를 신청하여 연기가 되었다.⁴⁰⁾

한편 선생의 여동생 최양희(崔養姬, 32세)가 경기도경찰부에 피검되었고 다른 여동생 최성녀(崔姓女)도 경기도경찰부 고등과원에게 피검되어 조사를 받았다.⁴¹⁾

최양희는 1929년 7월 2일 동대문 밖 창신동 693번지에서 경기도경찰부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유는 금주에 개최될 조선박람회를 기회로 중대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운반하는데 조력하여 자기 손으로 권총 몇 자루를 맡아다가 또 다시 시내 모씨 집에 맡겨두었다는 사실을 어떤 자가 경찰부에 투서했기 때문이었다. 7월 22일 오후 7시 경에는 또 다시 무슨 단서를 얻었는지 경기도경찰부 고등과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 수은동(授恩洞) 금옥(金玉)여관 주인 한장현(韓章鉉)을 검거하여 밤이 늦도록 취조하는 한편, 그 외에 조황(趙晃), 이항호(李恒鎬), 조숙인(趙淑仁) 등 10여 명을 검거하여 취조하였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조사를 해

39) 『동아일보』(1929. 6. 1), 「권총과 폭탄휴대하고 공명단원잡입설」.

40) 『동아일보』(1929. 6. 19), 「공명단 사건 공판은 연기」.

41) 『중외일보』(1929. 7. 3), 「공명단 최양옥 동생 친매 최양희, 도경찰부 고등과원에게 피검」.

보았지만 무기수입 사건 등의 단서를 찾지 못하자 7월 30일 아침에 모두 석방하였다.⁴²⁾

한편, 1929년 12월 6일 선생 일행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 6월부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오다가 9월 6일에야 비로소 사건이 검사국에서 직접공판으로 회복되지만 6개월 만에 제1회 공판이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선생 일행의 입정(入廷) 모습 『동아일보』 1929.12.7

놓고 엄중한 취조를 맡았던 경관들도 늘어났자 있었다. 그 위습격을 당하고 총부리 앞에 살려달라던 자동차운전수들도 공명단원들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인근 각지에서 방청을 하

방청석이 정돈된 이후 선생을 비롯한 세 명의 피고는 두 손에 무거운 철갑을 끼고 용수를 쓴 채 입장하였다. 그들은 검거된 이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모여졌다. 피고들의 등 뒤에는 피고들의 대담한 활동에 가슴을 놀래고 이리저리 잡으려고 달려든 경관들과 마침내 피고들을 철쇄(鐵鎖)에 얽어



쇄도한 방청객 『동아일보』 1929.12.7

42) 『동아일보』(1929.7.6·7.24·8.1자) 참조.

기위하여 몰려온 방청인들은 이른 새벽 3시부터 재판소 정문으로 몰려들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으나 불과 80장으로 제한한 방청권은 동트는 6시가 채 되지 않아 모두 분배되고 말았다. 그 후 뒤를 이어 몰려든 시내 협성여신학교(協成女神學校)의 견습학생들을 비롯하여 4·50명의 방청인들은 오전 10:30에 방청권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락하였으므로 섭섭해 하며 밖에서 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치열한 방청권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이날 방청석에는 선생의 가족이 제일 많았다. 선생의 가족으로는 늙은 큰아버지[伯父] 최재필(崔在弼, 70세)을 비롯하여 아우 최양길(崔養吉, 21), 사촌 형 최양준(崔養俊, 34), 여동생 최양희(崔養姬, 29), 큰어머니[백모] 이씨(45세), 제수 김씨(22) 등이었다. 이선구의 가족으로는 여동생 이선윤(李善允, 23), 매부 박수길(朴壽吉)이 있었다.



선생의 가족들 모습
(우로부터 사촌 최양준, 동생 최양길, 백부 최재필,
여동생 최양희, 백모 이씨, 제부 김씨)

재판은 피고들이 출정한 지 1시간이 지나 11시 30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 니시오 스에히로(西尾 末廣)는 먼저 선생을 비롯하여 김정련, 이선구 등의 피고 세 명을 순서로 불러 세우고 본적, 주소, 직업, 성명을 묻고 공판심리를 선고하자, 이선구는 재판장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사생을 같이 하던 동지로 공판심리 전에 악수로 인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공판은 그동안 세 번이 연기가 되었다가 오늘에

야 개정이 되었으므로 우리들을 위하여 수 차 방청을 하기 위하여 온 여러 방청인들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한즉 뒤에(방청석을 가리키며) 방청석이 비었으니 들어앉을 수 있는 대로 밖에서 떨고 있는 방청인들을 모두 들여달라.

라고 하였는데, 방청은 더 들일 수 없으나 인사는 하라고 하여 세 사람은 굳게 손을 잡고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 날의 공판은 “본 사건의 공개는 일반의 공안(公安)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판공개를 금지한다”고 선언하여 모처럼 방청권을 얻어 법정에 들어왔던 방청인들은 그만 밀려나오고 말았다.⁴³⁾

이날 군자금 모집사건에 대한 공판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양옥 외 2명에 대한 강도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화 4년(1929) 12월 6일 오전 10시 경성지방법원의 공개법정에서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스에히로 세이키치[未廣清吉]

조선총독부 판사 오노 가즈타로[小野勝太郎]

조선총독부 판사 와타나베 류우지[渡邊隆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와츠자와 쇼조[松澤尙三]가 열석하고 조선총독부 검사 나카노 토시스케[中野俊助]가 입회했다.

피고인들은 신체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출정했다. 변호인 허헌(許憲), 이인(李仁), 이창휘(李昌輝)는 모두 출두했다. 그 밖의 변호인은 출두하지 않았다.

43) 『동아일보』 1929년 12월 7일 「일세를 진동한 공명단 최양옥 등 공판개정」.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문했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을 말하라.

답 : 본적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1019번지, 주거 부정, 무직, 최양옥, 당 35세. 본적 평안북도 용천군 양광면 충훈동 906번지, 주거 부정, 무직, 김정련, 당 35세. 본적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면 천남동 275번지, 주거 평안북도 신의주부 노송정(老松町) 6번지의 2, 자동차 운전사, 이선구, 당 29세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갖고 연금, 은급을 받고 있거나 공직에 있는 자가 아닌가.

피고들

답 : 아무 것도 없다.

재판장은 최양옥 외 2명에게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령 위반, 우편법 위반, 강도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리한다고 선언했다.

검사는 공판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재판장은 합의한 다음 본건 심리는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를 정지한다고 선언한 다음 일반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재판장은 본건 피고사건을 고지하고,

문 :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해 진술할 것이 없는가.

피고인들

답 : 묻는 대로 대답하겠다.

재판장은 피고인 최양옥에게

문 : 진과를 말하라.

답 : 대정 10년(1921)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 8년(1919) 제령 제5호 위반, 강도미수 피고사건으로 징역 7년 미결구류일수 120일 통산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 대정 13년(1924)의 은사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형의 집행을 마쳤다.

문 : 피고는 부모가 있는가.

답 : 부모는 내가 20세 되는 무렵에 돌아가셨다.

문 : 처지는 어떤가.

답 : 딸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중국에 가 있을 때 출가했고 하나는 동생 집에서 기식하고 있다.

문 : 피고의 형제자매는 몇인가.

답 : 남자 4명과 여자 4명으로 8남매인데 내가 그 장남이다.

문 : 피고 이외의 그 형제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답 : 둘은 나이가 어리지만 한 동생은 날품팔이로 생활하고 있다.

문 : 피고는 소화 3년(1928) 음력 4월에 중국 하북성 석가장에 갔다고 하는데.

답 : 그렇다.

문 : 무슨 목적으로 갔는가.

답 : 내 친한 친구한테서 오라는 편지를 받고 가게 되었다.

문 : 그 친구란 신덕영을 말하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 후 피고는 석가장에서 산서성 태원부로 이사 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는 그 태원부에서 장사를 했다는데.

답: 그렇다. 고물상을 하고 있었다.

문: 피고는 석가장에 갔고 또 태원부에 갔다는데 혼자 간 것인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는 태원부에 가서 장사를 하던 중, 소화 3년(1928) 음력 9월에 무슨 약품을 사러 천진(天津)에 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그렇다.

문: 그 때 도중에 석가장에 들렀던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는 그곳에서 신덕영을 만났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는 신덕영의 소개로 안혁명을 만났다는데 어떠한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는 그 때 그의 권유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공명단이란 비밀결사에 가입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답: 사실이다.

문: 피고가 공명단에 가입했던 장소와 안혁명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았던 장소가 석가장의 선우양행(善友洋行)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사실이다.

문: 그 선우양행이란 것은 무엇인가.

답: 고물상 가게이다.

문: 그러면 피고가 태원부와 석가장에서 살며 고물상을 경영하고 있었을 때, 선우양행이 그 거래처였던가.

답 : 그렇다.

문 : 피고가 단원으로 가입한 그 공명단은 누가 주동이 되어 조직한 것인가.

답 : 그것은 모른다. 다만 신덕영의 소개로 안혁명을 만나 그의 권유로 가입했을 뿐이다.

문 : 그 안혁명이란 자는 어디 사람인가.

답 :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그 본적을 속이고 있으므로 나도 본적은 함경도라고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나에게서는 황해도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진위는 모른다.

문 : 피고가 안혁명을 알게 된 것은 그 신덕영의 소개로 만났을 때부터인가.

답 : 그렇다.

문 : 안혁명은 그 당시 몇 살이나 되었는가.

답 : 40은 지나 50쯤 되어 보였다.

문 : 그 공명단은 원래 대정 원년(1911)에 안혁명 외 몇몇 사람이 미국 하와이에서 조직한 비밀결사이며 그 후 하와이는 너무 멀다고 해서 소화 3년(1928)에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3마로[佛蘭西租界三馬路]에 그 지부를 설치했다고 피고가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답 : 그렇다고 하였다.

문 : 그리고 피고가 그 공명단에 가입했을 당시 단원 수는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

답 : 그 당시 내가 그것을 단장 안혁명에게 물었더니 단원은 각자 단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됐지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오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

문 : 피고는 이제까지 공명단이 조직부, 재정부, 군사부로 나누어져 있다

고 진술했는데 그것이 틀림없는가.

답: 그런 조직이라고 하더라.

문: 그 외에 집행부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답: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같은 부내에서 인선하여 집행부를 조직해서 행동한다고 하더라.

문: 그리고 군사부에서는 중국의 남경(南京), 섬서(陝西), 서안(西安) 등지에 무관학교를 설치해서 조선청년에게 군사훈련을 시킬 계획이었던 데 사실인가.

답: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했지만 조선의 독립운동단체는 가능한 한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더라.

문: 그러면 피고가 이제까지 진술한 공명단의 조직 등은 안혁명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그 간부회의 등에 참석해서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니란 말인가.

답: 그렇다. 공명단은 비밀결사이므로 천진(天津), 상해(上海) 등지에 있다 하더라도 단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문: 피고가 그 선우양행에서 안혁명의 권유로 공명단에 가입했을 당시, 상 피고 김정련도 그 자리에 있어서 안혁명의 권유로 피고와 마찬가지로 공명단에 가입했더라란 말인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와 상 피고 김정련은 공명단의 어느 부에 소속되었는가.

답: 나에게서는 나와 김정련 둘은 군사부에 소속해 있으라고 말하더라.

문: 피고와 김정련에게 가입을 권유할 당시 안혁명은 공명단의 단장이라고 말하더라.

답: 그렇다.

문: 안혁명에는 딱 이름이 없는가.

답 : 들어보지 못했다.

문 : 공명단을 달리 부르는 명칭은 없는가.

답 : 그것도 들어본 일이 없다.

문 : 당시 안혁명은 공명단의 목적인 조선독립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시킨다고 하던가.

답 : 그것은 정치부에서 결정하는 일이며 들어본 일이 없다.

문 : 그 때 안혁명은 피고와 김정련에게 그러한 조선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자금에 필요하므로 피고들이 조선에 가서 그 돈을 조달해 와 달라,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보통 개인 집을 강탈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얻기가 불가능하므로 될 수 있으면 은행이나 회사 등을 털어서 돈을 빼앗던가 아니면 우편자동차를 습격하는 편이 목적 달성에 용이하다”고 말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또한 안혁명은 피고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군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조선에서 공명단의 뜻을 일반 민중에게 선전해 달라고 명령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랬었다.

문 : 그래서 피고도 피고 김정련도 안혁명의 그 권유와 부탁을 승낙했는가.

답 : 그렇다. 그것은 단장의 명령이므로 승낙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지키려고 한 것이다.

문 : 당시 김정련은 석가장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답 : 그 때가 음력 9·10월경이며 김정련은 다른 곳에서 왔다고는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석가장에서 70리나 떨어진 태원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은 잘 모른다.

문 : 당시 김정련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가.

답 : 그것은 모른다.

문 : 그 때 피고는 안혁명으로부터 은행, 회사, 우편자동차의 습격용으로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받았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안혁명은 조선에 가서 독립사상을 선전하고 군자금을 모을 때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 권총 3정과 실탄 30여 발을 건네주었다.

문 : 그러나 그 때 피고가 받은 것은 콜트식 권총 1정, 그 실탄 14발, 모젤식 권총 1정과 그 실탄 8발이었고, 피고 김정련이 받은 것은 보로닝 권총 1정과 그 실탄 14발이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나와 김정련이 동석한 자리에서 안단장이 각자 앞에 권총과 실탄을 내놓았기 때문에 누가 받았던 간에 마찬가지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문 : 그 후 피고는 그 권총을 김정련에게 맡겨두고 일단 태원부로 돌아갔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그리고 피고는 소화 4년(1929) 1월 10일경까지 태원부에 있다가 북경에 가서는 2개월쯤 머문 다음 다시 북경을 출발 봉천을 경유해서 3월 3일경 안동현에 왔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그리고 피고는 안동현의 송관옥(松坂屋)여관에 2일 동안 묵은 다음 해동(海東)여관으로 옮겨서 2일쯤 더 있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피고가 당초 피고 김정련과 헤어졌을 때 자기는 안동현의 해동여관에 묵고 있겠다고 약속해둔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문 : 그래서 피고가 그 해동여관으로 옮기고 나서 김정련이 찾아와서 동숙 했다는데 어떤가.

답 : 아니다. 그는 내가 송판옥여관에 있을 때 왔으며 함께 해동여관으로 옮겼다.

문 : 피고들이 해동여관에 옮겨서 묵고 있을 동안에 상 피고 이선구가 자주 피고들한테 찾아 왔다는데 어떤한가.

답 : 그렇다. 가끔 와서 이야기했다.

문 : 피고가 이선구를 알게 된 것은 그가 해동여관에 찾아왔을 때인가.

답 : 그렇다.

문 : 이선구는 김정련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가.

답 : 그런 것 같았다. 이선구는 처음에 김정련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알게 된 것이다.

문 : 그리고 피고들은 해동여관에 묵고 있을 동안에 이선구와 셋이서 의논한 끝에 이선구도 공명단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데 어떤가.

답 : 우리들이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했으므로 이선구도 공명단에 가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입을 권유한 일은 없었다. 또 김정련이 이선구와는 친한 사이로서 왕래하고 있던 중에 김정련이 사정을 털어놓게 되어서 함께 일했을 뿐 가입을 권유하고 안하고 한 것은 아니다.

문 : 그리고 피고들 셋이서 해동여관에서 조선에 잠입하여 우편자동차 등을 습격해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아오자고 결정했는가.

답 : 그런 일은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왔다고 이선구에게 이야기했다. 원래 그것이 단장의 명령이었으므로 해동여관에서 새삼스럽게 의논한 일은 없다.

문 : 그렇다면 이선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도 그 말에 찬동해서 함

께 자동차를 습격하기 했다는 말인가.

답: 그런 일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이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다. 우리들과 사귀는 동안 우리가 그런 사명을 띠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선구는 암암리에 이 사건을 함께 감행하게 된 것이다.

문: 그리고 4월 8일 오후 4시경 피고와 김정련은 안동현을 떠나서 신의주로 왔을 때 피고가 안혁명으로부터 받은 권총 3정을 상 피고 김정련이 그 실탄을 각각 휴대하고 왔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 대로 각자가 그 때 받은 권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왔다.

문: 그리고 피고들은 신의주에 와서 이선구를 만난 자리에서 경성에 가서 군자금을 모아오자고 이야기하고 피고와 김정련은 함께 먼저 출발하고 이선구는 뒤에 오기로 결정하고는 피고와 김정련은 그 날 오후 6시경 기차로 신의주를 출발했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는 직행해서 다음날 9일 아침에 경성에 도착했고 김정련은 친구 집에 들러서 온다며 사리원에서 하차해서 피고보다 하루 늦게 10일에 경성에 도착했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이선구는 그 다음날 11일에 경성에 왔었던가.

답: 그렇다.

문: 피고는 경성에 와서 친척 집에서 묵었는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김정련은 그의 친구 황금정(黃金町) 1정목(一丁目) 이명구(李命求) 집에서 묵었다는데 어떤가.

답: 그랬다는 말을 뒤에 들었다.

문 : 이선구는 어디서 묵었는가.

답 : 그는 김정련과 함께 묵고 있었다.

문 : 그리고 4월 16일 피고들 셋은 김정련 숙소인 이명구(李命求) 집에 모여서 드디어 우편자동차를 습격하자고 의논하고 그러는 데는 경춘가도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실행에 착수하기로 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당시 이선구는 경성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한 번 신의주에 갔다오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었는가.

답 : 그것은 내가 갔다 오는 것이 어떠냐고 권한 것이다.

문 : 그러나 그는 피고가 지금 가지 말고 한 번 경춘가도에서 자동차를 습격한 후에 보내주겠다고 말했었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처음에 우리가 그에게 당신은 부청의 자동차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니 한 번 집에 돌아가서 직장을 그만둔 다음 함께 일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더니, 그도 그럴 생각으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물건을 구입하여 처 앞으로 붙이기는 했지만 이왕에 온 것이므로 한 번 자동차를 습격한 후에 함께 돌아가자면서 이번 사건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문 : 그런 의논 끝에 피고들 셋은 다음날 17일 전세자동차를 빌려 타고 미금면(溍金面) 평내리(坪內里) 안칠성(安七星)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묵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그리고 피고들은 다음날 18일 각자 권총을 휴대하고 양주군 미금면과 화도면의 경계에 있는 마석고개에 가서 우편자동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 날 오전 10시 춘천을 떠나 경성으로 향해 오던 경성우편국

제7호 우편자동차가 오후 1시 40분경 그 마석고개를 다가오자 이를 습격했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 때 김정련은 도로에서 망을 보았고 이선구는 손을 들어 차를 세운 다음 피고와 이선구가 곧바로 그 차에 뛰어올라서 운전자 김영배(金永培)에게 총을 들이대며 노끈으로 그를 묶어 조수대에 태우고는 상 피고 이선구가 직접 그 차를 몰고 금곡(金谷) 방면으로 왔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러나 오는 도중 경성에서 춘천으로 향해 그 고개를 올라오던 오성(五星)자동차부 제447호차를 만났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 때 피고는 곧바로 권총을 들이대어 그 차를 세우고는 그 차의 운전자 백남성(白南星)과 승객인 양주군 화도면 가곡리(嘉谷里) 258번지 이규면(李圭冕)을 그 우편차의 짐칸에 밀어 넣었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피고가 그 우편차 짐칸에서 보통우편행낭과 적(赤)행낭을 찢어서 뒤졌으나 현금이 없었으므로 그 운전자 백남성과 승객 이규면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규면으로부터 일금 24원을, 백남성으로부터 일금 8원을 강탈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나는 권총으로 협박한 일이 없다. 우편차를 습격했으나 현금이 없어 여비도 궁하게 되었으므로 동정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자의로 돈을 내주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다르다.

문: 피고가 그렇게 해서 돈을 강탈하고 있는 동안에 미금면 평내리 앞 도로를 춘천에서 경성으로 향해 진행해 오던 선일(鮮一)자동차부의 제

502호차를 만났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그래서 피고와 상 피고 김정련은 그 자동차의 좌우에서 그 운전자 이기선(李起善)에게 권총을 들이대어 정차시키고 승객에게 권총으로 협박,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승객인 강원도 춘천군 춘천면 요선리(要仙里) 66번지 성항일부(成恒一夫)로부터 현금 20원과 금 케이스 회중시계 1개(금 사슬이 달렸음)를 그리고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3번지 중국인 곡낙지(曲樂之)로부터 금 케이스 회중시계 1개를 탈취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그러나 현금은 20원이 아니고 10원짜리 지폐 1매였었다.

문 : 그렇지 않고 10원짜리 지폐 2매가 아니었던가.

답 : 그렇지 않다.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상 10원 정도의 일로 이러니 저러니 다투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문 : 그리고 피고들은 부근의 산에 숨어 있다가 20일에 망우고개에 나타나 그곳으로 달려오던 경성발 춘천행의 내선자동차부의 차를 정차시켜 그 차에 올라타고 그 차를 이선구가 운전해서 경성으로 잠입하여 사범학교 앞에서 하차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그 때 그 차로 경성에 온 것은 피고와 이선구 뿐이었던가.

답 : 그렇다. 김정련은 20일 밤 산에서 헤어진 후는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다.

문 : 피고가 상 피고 김정련과 함께 소화 4년(1929) 4월 8일 이전에 안혁명으로부터 얻은 권총과 실탄은 안동현에서 신의주로 갖고 들어올 때는 물론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겠지.

답: 그렇다.

문: 그 이전에 피고는 상 피고 김정련과 함께 소화 4년(1929) 4월 4일 오후 9시경 평안북도 양광면(楊光面) 풍덕리(風德里) 13번지 김인옥(金仁玉) 집에 강도질하러 들어갔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리고 상 피고 김정련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 그대는 방안에 들어가서 김인옥 외 수명을 노끈으로 결박한 다음 김인옥에게 권총을 들이대고는 우리들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명단에서 독립운동군 자금 조달 차 온 사람들이므로 현금 1만원을 내놓아라, 만약 불응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그로부터 현금 160원을 강탈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문: 그 때 강탈한 돈 160원을 김인옥 한 사람만의 돈인가 아니면 그 밖의 사람들의 돈도 끌어 모은 것인가.

답: 김인옥과 그 부친의 돈을 합한 것이다.

문: 그러면 김인옥 처의 돈도 그 돈에 들어 있지 않았는가.

답: 그런 일은 없다.

문: 피고는 지금도 공명단의 목적과 취지대로 조선독립을 바라고 있는가.

답: 단장의 명령을 듣고 경거망동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착각으로 한 것이며 형무소에 들어와서 잘 생각해보니 부끄럽다.

문: 피고는 재산이 없는가.

답: 없다.

문: 피고가 중국에 있을 동안에 동생들과는 서로 통신이 있었는가.

답 : 있었다.

문 : 동생과 출가한 여동생들은 이력저력 지내고 있었는가.

답 : 동생은 날품으로 생활하고 있고 여동생 하나는 농가에 출가해서 살고 있으며 또 하나는 과부가 되어 동생 집에서 살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 최양옥에게

문 : 이것이 피고가 휴대했던 권총인가.

이 때 증 제19호를 보여준다.

답 : 그렇다.

문 : 이것은 상 피고 김정련이 안혁명으로부터 받아서 그가 휴대했던 권총인가.

이 때 증 제4호를 보여준다.

답 : 그렇다.

문 : 이것은 피고가 경춘가도를 전세차로 갈 때 상 피고 이선구에게 준 권총인가.

이 때 증 제10호를 보여준다.

답 : 그렇다.

문 : 이것은 안혁명으로부터 받아서 휴대했던 실탄인가.

이 때 증 제11·12·14호를 보여준다.

답 : 그렇다.

문 : 이 나이프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때 증 제21호를 보여준다.

답 : 그렇다.

문 : 그 나이프를 이 강도사건 때 사용했는가.

답: 우편행낭을 찢을 때 사용했다.

문: 피고가 찢은 우편행낭은 이것인가.

이 때 증 제22호에서 29호까지 보여주다.

답: 그렇다.

문: 이것은 그 행낭을 묶어둔 노끈인가.

이 때 증 제30호를 보여주다.

답: 그렇다.

문: 이것은 우편차의 운전사 김영배를 결박했던 노끈인가.

이 때 증 제2호를 보여주다.

답: 그렇다.

-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한다고 통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기록 중,
- , 사법경찰관 및 동 사무 취급의 피의자 및 증인 신문조서 검증조서, 경찰관의 보고서
 - , 검사의 피의자, 증인 신문조서
 - , 전과조서, 경성우체국장의 피해조서 및 동 검증조서를 첨부한 도면 및 압수품 등

을 전부 보여주고 그 때마다 의견, 변명, 반증의 유무를 물었더니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다 같이 전술한 것 외에 의견, 변명, 반증은 없다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사실 및 증거조사가 끝났다고 통고했다.

검사는 이 사건의 범죄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최양옥과 김정련에게는 치안유지법 제1조, 총포화약류단속령 제3조·제15조, 형법 제236조·제243조·제55조, 우편법 제54조, 형법 제45조·제47조·제54조 더욱이 피고인 최양

옥에게는 또한 형법 제56조·제57조를 그리고 이선구에게는 형법 제236조·제243조, 우편법 제54조, 형법 제54조를 각각 적용하여 피고인 최양옥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김정련을 징역 8년, 동 이선구를 징역 5년에 처할만하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 이창휘(李昌輝), 허헌(許憲), 이인(李仁)은 다 같이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변론을 했다.

피고인들은 마지막으로 진술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관계자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본건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심재곤(沈載坤)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작성일 소화 4년(1929) 12월 6일

경성지방법원 서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마츠자와 쇼조(松澤尚三) (『한민족독립운동 사자료집』41권 「독립군자금모집」10, 공명단 군자금 모집 사건 공판조서)

선생은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경성지방법원에서 1약 8개월간의 예심을 거쳐 1929년 12월 13일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우편법 위반, 강도의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⁴⁴⁾

이때 김정련은 9년, 이선구는 6년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함께 복역했다. 그러나 선생의 말에 의하면 “이선구는 일제가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며 고문

44) 선생은 「자필수기」에서 “나는 마포형무소로 가게 되고 김정련과 이선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생은 마포에 있는 경성형무소에서 10년 동안 복역하였다.



마포 경성형무소 앞 마을 풍경과 경성형무소 전경

후유증이 겹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⁴⁵⁾고 회고했다.

여기에 딸의 죽음에 얽힌 슬픈 일화가 있다. 일경은 선생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중 양동에 갓 시집간 선생의 딸집에 잠복하였다. 딸은 집안에 들어오려는 일경을 제지하다 높은 뜰이래로 밀쳐져 척추가 부러졌고 그로 인해 1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 숨을 거두었다. 옥중에서 딸의 비보를 접한 선생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술회하였다. 독립운동의 길은 이처럼 험난하였으나 선생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⁴⁶⁾

선생의 독립을 위한 정신과 몸부림을 다음과 같은 언론 내용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백주에 권총을 들고 전후 사오차나 자동차습격이라는 조선미증유 대담한 범행을 한 삼인단 권총대의 수범인 최양옥의 내력을 들으면 그는 원래 춘

45) 박순업, 『강원일보』(2003. 7. 1) 「황성독립운동가 최양옥지사」(강원의 인물 · 7월).

46) 박순업, 『강원일보』(2003. 7. 1), 「황성독립운동가 최양옥지사」(강원의 인물 · 7월).

천군 가천면 화산리(春川郡加川面花山里) 출생으로 어릴 때 한문사숙에 다니면서부터 항상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바 지난 대명 8년(1919) 즉 기미년 삼일운동이 일어나자 홍성(洪城, 황성군을 잘못 표기함)군에서 여러 사람을 선동하여 00운동을 일으킨 후 즉시 몸을 피하여 중국 북경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있는 여러 동지들과 결탁을 한 후 권총과 폭탄을 들고 비밀리에 조선에 들어와서 전남 광주, 경북 대구 등지로 돌아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경찰에게 잡히어 칠년 징역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장구한 세월을 철창에서 보내다가 다시 만기로 출옥하게 됨에 작년 1월 중에 북경에 또 들어가서 의렬단(義烈團)에 가담하는 동시에 직접 행동을 목격하고 남북 만주로 돌아다니다가 지난 4월 7일 절강성(浙江省)에서 신의주로 잠입하여 동지를 만나 전기와 같은 대담한 범행을 하여 근기지방(近畿地方)은 물론 전조선 경관의 간담을 서늘케 한 것이라 한다(『동아일보』 1929년 4월 22일, 「본시 민족주의자로 폭탄 권총으로 직접 행동」).

라고 한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한문사숙에서 공부를 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3·1만세운동 이후 중국을 오가며 감옥도 출입하며 오로지 독립운동에 전념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청년』 제3기(1940.6.10) 「대한민족정신의 일면」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바쿠닌은 “암살은 약자의 가장 좋은 무기이다. 강권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다”라고 약자의 암살행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엄청난 기백과 용맹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암살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한

국민족은 선천적으로 암살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왕성한 희생정신과 굳센 의지를 지니고 있다. 박랑사(博浪沙)에서 진시황(秦始皇)의 예미 수레가 장량(張良)이 보낸 자객의 습격을 받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海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객은 한국인이었다 한다. 이후 한국인에 의해 경천동지할 암살사건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저격한 안중근(安重根), 상하이[上海]에서 적장 하쿠가와[白川]를 폭살시킨 윤봉길(尹奉吉)의 의거 등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경천동지할 사적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강우규(姜宇奎)의 사이트 마코토[齊藤實] 암살 기도, 안명근(安明根)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암살 기도, 이봉창(李奉昌)과 김지섭(金址燮)의 일황(日皇) 암살 기도 등등은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거두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로 마감되기는 하였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국지사들의 사적은 천지를 놀라게 하고 귀신을 울게 할 정도였다. 또한 김상옥(金相玉)의 '비밀사(秘密社)', 김좌진(金佐鎭)·박상진(朴尙鎭)의 '광복단(光復團)', 최양옥(崔養玉)의 '공명사(共鳴社)', 기산도(奇山濤)의 '암살단(暗殺團)' 등 드높은 기백을 갖춘 한국지사들의 암살기관도 수없이 많았다. 이들의 간단 없는 활동이야말로 한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철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민족정신의 표현이고, 대한민국민의 진정한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선생의 공명사 즉 공명단이 김상옥의 '비밀사', 김좌진·박상진의 '광복단', 기산도의 '암살단' 등과 더불어 인물들은 드높은 기백을 갖춘 한국지사들임과 동시에 이들의 정신은 한국민족정신의 표현이라고 높게 평가되었다.

선생은 1939년 12월 13일에 경성형무소에서 만기출옥하였다. 선생은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1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時日) 그 고통이라는 말은 입으로 다 할 수 없고 지필로도 다 쓸 수 없다”⁴⁷⁾고 그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선생은 서울의 사촌(최양준의) 집에서 요양을 하며 지냈다.

10. 형무소에서의 도산선생에게 타벽통보법을 가르쳐 준 김정런

4264년(1931) 4월 29일, 윤봉길 의사(尹奉吉 義士)가 상하이 홍규공원[上海虹口公園]에서 일본군 최고지휘관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 등을 폭살시키려던 사건이 생겨 한국인이 대수색을 당하던 때의 일이다.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선생은 마침 친구의 아들 생일에 선물을 주려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줄도 모르시고 나섰다가, 그 집에서 일본 관헌에게 검거되어 5월 하순에 서울 서대문 왜[日]감옥으로 압송되어 오셨다.

나는 그 때 평양에서 세 번, 광주에서 두 번 감옥살이를 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나, 다시 천진 일본 외무성(外務省)감옥을 거쳐, 조선독립군 공명단(共鳴團) 부단장(副團長)으로서 경춘가도(京春街道)에서 일본 총독부 우편차(郵便車)를 습격하였다가 붙잡혀 서대문 감옥에서 2081호의 패를 달고 9년 징역의 복역 중에 있었다.

당시 서대문감옥 안에서도 교수대 북쪽에 있는 신감 4동(新監四棟)의 72개 감방들은 전부 왜적의 눈에 개전의 빛이 전혀 없다고 단정된 중대 정치범들만 가두어

47) 「수기원고」.

두는 특수 감방이었는데 도산선생은 마침 내가 들어 있는 6호실과 벽 하나 사이인 7호실에 입감(入監)되시었다. 5호실엔 도산선생보다 먼저 투옥되신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 씨가 계셨고 8호실엔 오동진(吳東振) 씨가 계셨으며, 그 상하좌우로 김준연, 최양옥(오류 : 선생은 경성형무소 수감), 신덕영, 이선구, 김약수, 권오설 씨 등 그 밖에도 많은 동지들이 각각 숨막힐 듯한 좁은 독방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독방은 대개가 다다미 한 두장 깔릴 만한, 채광이 잘 안 되는 비좁은 방이었는데 그 속엔 조그만 동통이 하나 놓였을 뿐이다. 겨울엔 얼음 창고 같은 감방 안에서 손발이 전부 동상(凍傷)을 입어 칼로 썩은 살을 베어 내어야 했고, 여름엔 한증막 같은 속에서 땀을 줄줄 쏟으며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

봉투를 붙이든가 그물을 뜨는 사업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 홍의(紅衣)동지들은 비록 생지옥에서 묵묵히 버림받은 생활은 하고 있을망정 말없는 투쟁을 언제나 계속하고 있었다.

두께가 2척이 넘는 시멘트 감방 벽을 딱딱 두드리는 소위(打壁通報法)을 극비 밀로 사용하여 울분을 푸는 것이었는데 이를테면, 3·1절이나 국치일(國恥日)엔 작업을 하지 말자든가, 내일은 안중근 의사께서 원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쏘아 죽인 날이니 우리는 작업을 일체 중지하자든가 하는 것을 서로 전파식으로 연락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동맹파업으로 왜적에게 대항 투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본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동지들은 타벽통보법에 능숙하여 암호연락이 잘 되었지만, 해외에서 검거 투옥된 동지들은 대개 그 암호법을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간에서 암호연락이 두절되어 곤란받지 않도록 그 옆방 동지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유난히 감시가 심한 특수감방에서 암호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서운 모험이었다. 그러나 어떤 중대한 사건을 일으키려하든가, 또는 어느 방에 누가 새로 입감되었다든가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중간에서 두절되

면 모르는 동지에게 어서 암호를 가르쳐 드리라는 독촉이 사방에서 빗발치는 것이었다.

그때 일본인 간수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인 간수 중에도 일본인 간수 이상으로 정치범에게 무지하고 악독하게 대하는 자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평북 삭주인(朔州人) 차억부(車億富), 평북 창성인 강연명(姜淵明)의 두 교무계 통역간수와 간수장으로 있던 평북 용천인 문치연(文致然)만은 간간이 극비리에 국내외 정세를 알려주었고, 특히 동지들의 어느 누구가 어느 방에 새로 입감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 눈같이 매섭게 번득이는 순찰간수들의 눈초리를 피해가면서 두 주일 동안에 여운형 씨에게는 타벽통보법을 가르쳐 드리기에 성공했으나, 도산 선생이 계시는 7호 감방만은 전후좌우에 너무도 감시가 심하여 도무지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 달에 두 번 작업을 쉬는 어느 일요일, 드디어 나는 결심을 하고 칼 위에 올라서는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도산 선생에게 암호법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김정련 선생이 안창호 선생과 타벽통보하는 밀랍인형(서대문형무소역사관)

그 중에도 조금 마음이 좋은 편이라고 평이 있는 간수가 교대해 들어온 틈을 타서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의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냈다 집어넣다 하게 되어 있는 뚫통을 꺼내어 도산선생이 계시는 7호 감방벽 쪽에 바싹 대어 놓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똥통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니 6호실과 7호실 사이 가장 높은 곳에 5축 전등알을 끼워 놓고 유리로 짝 밀폐한 곳에 내 손이 닿았다. 내가 손가락으로 유리를 툭툭 두드리니까 도산 선생은 방안에 일어서서 발뺌축을 고이시고 응응 무엇 무엇 하신다. 순간 나는 숨가쁘게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타벽통보법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나는 가슴 속을 고동이 딱 멎는 것을 느꼈다. 온 몸이 후들 후들 떨려서 얼굴에 뛰어내리다가 똥통을 걷어차서 뒤집어엎고 말았다.

복도에서 지키는 간수에겐 발각이 되지 않았는데 바깥으로 순찰 중이던 간수에게 그만 들키고 만 것이었다. 당황한 중에도 우선 변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잊지 않았다. 만약 벽으로 통보한 것이 발각되면 두 사람은 용서 없이 계호계(戒護係)로 끌려가서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눈알이 빠지도록 매를 맞고, 두 손을 뒤로 묶여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무게가 다섯 관이나 되는 소위 철제 땅방울을 달고 3분지 1의 감식(減食)벌을 받는 동시에, 총독부에 보고하여 2·3년의 가형(加刑)까지 받게 될 것이다.

달려와서 감시구(監視口)로 들여다보는 간수에게 나는 눈 딱 감고 두 손으로 똥을 퍼서 확 뿌렸다. 미친 척 하자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친놈이 되어 도산 선생에게 화가 미치지 않고 그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 것이다. 난마구 고향을 치며 추태를 부렸다.

왜간수들은 들어오려다 똥 벼락을 맞고 놀라 물리서면서 “아 니생하찌쥬이찌고(2081號)미친다나”하고 조선말 일본말 섞어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더욱 광태를 부리며 사방으로 똥을 뿌리고 문밖으로 뛰어나가려니까 간수가 발길로 차서 방 안으로 집어넣고 열쇠를 채우면서 “에 쿠사이 쿠사이”하고 도망가 버렸다.

한 15분 후에 간수장은 간수들과 전중이[홍의(紅衣)]를 입은 기결수(既決囚)의

별칭들에게 포승을 둘러서 데리고 왔다. 지랄발광하는 나를 마치 도살장에 끌고 가는 돼지모양으로 결박을 하고 계호계(戒護係)로 끌어가는데 그곳에서 정말 미쳤나 안 미쳤나 엄중하게 심사를 하는데, 취조관이나 의사를 막론하고 막침을 뺀고 물어뜯고 고향을 치던 나는 마치 미친개 치듯 뼈가 으스러지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놈들의 “아 미친다나, 미친다나”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산 선생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결국 완전히 미친놈이 된 나는 쇠뿔방울을 달고 수갑을 뒤로 차고 갖은 악형 속에서 3주일을 비참히 지낼 때, 도산 선생께서는 나의 고통을 보다 못해 눈물로 위로해 주시며 “김군, 참으로 미안하다. 너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독립을 달성하자.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차역부 간수가 올 때마다 “저 가엾은 정련이의 뒷 수갑과 발에 채운 땀방울을 끌러 줄 수 없는가?”하고 간청하시어 3주일 후에 나는 제정신이 든 것으로 인정받고 악형에서 놓여나게 된 것이었다(김정련, 「형무소의 도산선생」, 『새벽』 1957.4).

위와 같은 사건에 앞서 김정련은 벽서로 감옥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중외일보』 1929년 5월 23일 「김정련 벽서로 감옥소동」이라는 기사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세상을 경동케하던 공명단(共鳴團)사건의 최양옥 김정련 이선구의 삼명은 얼마전에 경찰의 취조를 마치고 검사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서대문형무소 독방에 각각 수용되었는데 그 중 김정련은 동형무소 제8호 독방에 수용되었는 바 독방에 있던 김정련은 감방 벽에다가 결합(結合) 단결(團結) 공명단(共鳴團) 암살대(暗殺隊) 등의 문구를 쓴 것을 간수가 발견하고 즉

시 전옥에게 보고를 하여 일대 소동을 일으켰는데 전기 김정련이가 암살대
운운의 쓴 것으로 보아 혹시 전남(全南) 기타부호에게 협박문을 보낸 암살
대와도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나 하여 크게 주목하는 중이라더라.

이렇듯 김정련도 최양옥 선생처럼 민족의식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서대문형
무소 독방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한 몸부림은 선생 못지 않을 정도의 위
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장

공명단의 우편수송차 습격사건 취재기

1. 공명단사건활동이면기
(共鳴團事件活動裏面記)
2. 공명단(共鳴團)과 신문호외전
(新聞號外戰)
3. X月 XX日





제4장 공명단의 우편수송차 습격사건 취재기

1. 공명단사건활동이면기(共鳴團事件活動裏面記)

『별건곤』 제73호(1934.6.1) 중앙일보 최문우(崔文愚)

교-스톱- 번잡한 인파를 헤치고 자전거, 자동차, 인력거, 우마차 등의 동분서주 달니는 혼돈된 음향에 신경이 첨예화 했다가 보다 오히려 둔해졌다고 말할수 있는 도회인에게는 「호외! 호외」란 소란한 소리가 때로는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권총 든 청년이 시내에 돌입 잠적했다고 거리는 물론이요, 골목마다 총검을 번득이는 무장경관들의 삼엄한 경계 경관은 극도로 흥분되어 무서운 눈알을 휘두루대고 오고가는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며 혹은 (5字 略-원문) 혹은 끌고 가기도 한다. 때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귀마순사들의 말굽소리, 칼자루소리 이동경찰대를 태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질주 이만했스면 일성수불루(日盛水不漏)의 철통가튼 비상선을 느리었다고 할 수 있다.

- (2행 부득이 略-원문)-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문기자들은 흥분, 불안, 감격, 초조 가운데 비상선을 돌파해가며 사건의 정체를 탐색기 위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기자란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철통가치 느린 비상선 틈을 돌파 활동하기가 항 다반으로 용이하다구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에 잇서서는 실로 눈물겨운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아니될 때도 있고 때로는 경관대와 충돌도 하고 비방과 조소를 바들때도 만다. 심하면 어더 맞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감검까지 당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신문기자란 직업을 가진 이상 어던 사건을 목표로 제1선에 만히 활동하는 이상 생명을 아까워하거나 체면과 인격을 생각할 수 업는 것이다. 독자에게 각각으로 새로운 뉴-쓰를 보도하려면 일전(一戰)을 교(交)하는 비탄진중(飛彈陣中)도 불사해야 하며 물속과 불속도 두려워해서는 목적을 달할 수 업는 것이다.

새록새록이 뉴-쓰를 보도하려면 그만큼 활동이 필요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이와 가치 수화를 불구하고 활동을 하자니 각금 경찰의 눈에 어그러지는 탈선적 행동을 할때도 있다. 이러한 때 비로소 그들과 충돌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비상시에 봉착할사록 기자는 사물에 냉정 신속해야 한다. 설혹 뺨깨나 맞고 욕마되나 먹었다고 시비를 판단하려고 했다가는 기자로서는 아모러한 소득은 업고 도리어 시비를 가리는 동안에 남에게 뒤질 것 밧게는 업다. 피차 직업적 책임감에서 이러나는 충돌인 만큼 그저 엄병맹으로 상대자의 노염을 푸러 주는 것이 상책이다.

아래 기록하려하는 한개의 사실은 내가 직접 체험한 일로 말한마대 잘못하고 한시간 20분간 시간적 감검을 당한 일이 있다. 이제는 기억조차 히미한 5년 전 4월경인가 한다. 경춘가두에서 백주에 권총 청년 3명이 출현하여 우편 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을 습격한 공명단사건(共鳴團事件)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범

행 2·3일후에 2명은 또다시 백주에 양주(楊州) 망우리(忘憂里)에 출현하여 통행의 자동차를 습격한 후 자신이 운전을 하여 경성시내에 몰입 잠적 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이만큼 진전이 되매 장안은 발각 뒤집히어 극도 긴장리에 살기 충만한 분각(分刻)이 흐르고 잇섰다. 당시 수사본부는 경찰부이었으나 범인이 경성(京城)으로 드러와 황금정(黃金町) 5정목(丁目)부근에서 잠적했다고 해서 수사본부보다 본 정서(町署)가 더 소란했었다.

당시 나는 본정서(本町署)에 출입했든 관계로 아침부터 동서(同署)를 지키고 잇게 되었다. 당일에는 폭우까지 쏟아져 음산한 중에 소란튼 그날도 거의 귀우러서 때때로 사진반들의 막대 스퍼치는 소리에 가슴만 놀내었슬 뿐이다. 초조와 불안 중에 밤도 기퍼 동 10시경 황금정(黃金町) 모처에서 한 명은 체포되었다는 정보를 밧었다. 그러면 또 한명이 었지나 되었을까? 한시 두시 불안과 초조의 시간은 지나갔다. 익일 오전 3시 신문사로부터 드러오라는 명령을 밧고 피로와 공포에 싸인 무거운 다리를 움겨 신문사에도 도착하였슬때 종로로부터 불도 켜지 안은 자동차 한대가 안국동(安國洞) 방면을 향하야 질주하고 잇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직각적으로 예측되는 바 잇서 다시금 불안과 호기심 가운데 그를 추격하였다. 아니나 다를가 간동(諫洞) 입구에 자동차는 정차되어 잇섰다. 운전수도 업고 주위에는 아모도 업섰다. 나는 꼭 한 명을 체포하러 온 줄만 알고 속으로 은근이 겁버했었다. 닷자 곳자로 간동(諫洞) 편으로 올라섰다. 얼마되지 안어 돌연 권총을 가슴에다 대고 나의 량편 팔을 붓자 부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는 두명의 괴한이 잇섰다. 그러지 안어도 공포를 늦기여 무시무시하야 머리 꺾이 올라가는데 어둔 밤중에 흥두께도 분수가 잇지 이런 경우를 당하고 보니 그만 전신에 괴관은 전부 정지된 사람모양으로 아모 말 못하고 멍멍이 서 잇섰다. 사실 나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시펫스나 입이 떠러지지 안었다. 그들은 먼저 양복 속을 낫낫이 수색한 후 무엇하는 사

람이나고 채차 못는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직업을 말했다. 전보(電報)파쓰, 전차(電車파쓰), 명자(名刺) 등을 전부 보이며 신문기자란 증명을 했스나 그들은 곳곳내 내 말을 신용치 안었다. 아모리 기자라도 이 새벽에 이런 곳에 무엇 하라 왔는가. 이것은 반듯이 범인과 무슨 연락이 있다. 이렇케 저의 끼리 찢고 까블드니 결국 본서(本署)까지 동행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자 마춤 아는 형사를 만나 무사 해결이 되고 보니 아까 놀넨 것이 분하기는 했스나 이런 곳에서 여러 말하는 이보다 속히 신문사로 가는 것이 이상 책이라는 생각으로 도라오다가 사람을 그러케 놀내는 법이 있느냐고 작난 삼아 한마대 헛드니 두 순사(巡査)는 노기대말하야 건방지다고 욕설를 하며 도다시 나의 량편 팔을 붓잡고 본서로 인치한다고 한다. 나는 오직 묵묵한 태도로 본서로만 가자하고 그들에 하는 대로 가만 두었다.

그들은 급기야 파출소로 다러다 노코 그들은 나가 버리었다. 나는 하도 어이가업서 당직 순사더러 파출소까지 온 경로를 말한 후 보내 주기를 말하였스나 자기들은 모른다고 웃고만 있다. 그러면 전화난 좀 빌려 달라고 헛드니 이것도 안된다고 딱 거절을 한다. 나는 너무나 분했다. 그리하야 무리한 감검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탄하지 안코 싱글싱글 우스며 우리는 모른다고 한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도라오지 안었다. 나는 분함보다도 신문사 일이 궁금했섯다. 그러나 빼쳐 나가기보다 신문사에 알닐 도리조차 업섯다. 그리하자 마춤 간동(諫洞)에서 맞났든 형사가 드러왔다. 1시 20분간 무리한 감검을 당했다가 방면된 셈이다. 처음으로 혼도 몹시 낮거니와 말한마디 시럽시하고 1시 20분간 감검을 당한 일이 잇섯다.

- (3행 부득이 略-원문)

이것은 이 사건이 잇슬때 나 개인으로 당한 억울한 삽화의 하나이다. 곳곳로 수범이 잡힐 때까지의 경로나 그리고 붓을 늦켰다.

초조! 피로! 불안 중에 그 이튿날 밤도 고요히 새웠다. 오전 6시에는 공명단 사건의 수범인 최(崔)가 잠복해 잇는 XX동을 총 습격한다는 것을 벌써 몇 시간전부터 알고 잇섯든 까닭에 오전 5시가 채 못되어서 C서에는 벌써 일시 사(社)에 도라갓던 각 신문사 기자들이 다시 모혀 들기 시작하였다.

비상소집을 바든 순사들은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다시 각 반을 고쳐치고 장총을 가진 사람은 장총에, 단총을 가진 사람은 단총에다 각기 탄환을 재우며 지휘관들은 서로 건배를 하고 새삼스러히 악수를 하는 것이 흡사히 무슨 전장에 출전하는 병사들과도 가뵈다.

이리하여 오전 6시가 되자 100여 명 무장경관은 혹은 자동차로 혹은 「오-트빠이」 혹은 자전거로 장사진을 느리어 려명을 뚫코 XX동으로 대거하여 질주하는데 그 뒤에는 각 신문사의 기자와 사진반을 실은 십수대의 자동차가 일제히 뒤를 달었다.

큰 길거리에서 차에서 내려 몇 번이나 좁은 골목을 쫓으러져서 XX동 XX번지 압까지에 이른 수색대는 여기저기 몸을 감추고 몇 사람의 형사가 작대기로 문을 두드리며 “문열우! 여보! 여보!” 하고 소를 연해 질느것만은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업는데 바로 문엽해 부-터서 잇든 사진기계를 가진 사진반과 신문기자들은 다만 부질업시 가슴만 조리고 잇섯다.

살기가 등등한 공기를 「문열우! 여보! 여보!」 소리가 몇 번이나 흔들어 놓차 비로소 안에서는 “누구왔소?” 하고 녀자의 간열푼 음성이 들리였다. 맞게 잇는 사람들은 일제히 침을 삼키였다.

문은 쉬웁게 아조 쉬웁게 열리였다. 형사와 그 집주인인 듯한 녀자 사이에 몇마디의 문답이 오고 가는 동안에 저의 뒷문에서 갑작이 와- 소리가 나드니 무장한 수색대가 “잡었다! 잡었다!” 하고 함성을 질으면서 이 편으로 왔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의 괴골이 장대한 장한이 무장경관대에게 체포되어 이 편으

로 향해 오는 것이었다.

C서의 M경부는 「희생자 한 사람도 내이지 안코 쉽게 잡은 것은 큰 성공이다. 성공이야」 하고 소리를 질으며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쏘살가치 다러났다.

여기저기서 각 신문사 사진반의 「푸렛슈」 태우는 소리가 요란히 나고 단단히 포승으로 결박을 당하고 수색대에게 끌리어 오든 공명단 수범 최(崔)는 벌써 우리가 신문기자들인 줄 눈치채엿습인지. 우리를 향하야.

“신문기자제군! 공명단(共明團)도 모르나? 밝을명-자를 몰나서 울명(鳴)자를 쓰다니” 하고 빈정거리고는 전편으로 끌리어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최초에 경춘가도에 돌발한 자동차 습격사건은 상해 공명단의 소위라는 정보를 맞고 ‘한가지공’, ‘밝을명’ 자의 공명단(共明團)이리라 하여 공명단(共明團)이라고 기사를 썼었다. 그러나 그 후에 경찰당국의 말이 밝을 명자가 아니라 울명자의 공명단(共鳴團)이라고 말하는 까닭에 우리는 다시 공명단(共鳴團)이라고 고쳐 썼다. 그러나 공명단의 두목이라고 할만한 최(崔)가 그와 가치 말하는 것을 보면 최초의 밝을 명자라고 생각한 것이 옳은 것 가태서 수범(首犯)마저 체포되엿다는 호외부터는 다시 공명단(共明團)이라고 고치엿었다. 그러나 그 후에 경찰당국의 범죄보고서나 재산소 당국의 공판청구서의 공문서를 볼 것 가트면 역시 공명단(共鳴團)이라고 써여 잇는 까닭에 사실 우리는 엿던 것이 옳은지를 몰라서 한참 동안 망살거리엿스나 결국은 당국의 주장하는 대로 다시 공명단(共鳴團)이라고 고쳐쓰게 되엿다.

2. 공명단(共鳴團)과 신문호외전(新聞號外戰)

삼천리 제7호(1930.7.1) 동아일보(東亞日報) 김두백(金斗白)

① 추적(追跡) 철야(徹夜) 초조(焦燥)의 삼주야(三晝夜)

백주대도(白晝大道)에 권총든 OO단이 출현하야 자동차 3대를 습격 잠적한 사건이라면 조선신문계에 드물게 보는 호외재료이다. 작년 4월 18일 오후 2시 30분 양주군(楊州郡) 마치령(摩峙嶺)에서 연출된 공명단(共鳴團)사건이 이것이니 그날 『본지』에 이 중대한 ‘뉴-쓰’ 들 빠트린 각 신문사에서는 우선 시내(市內) 독자에게 『호외(號外)』로 이 돌발사(突發事)를 알리는 한편으로 사회부 기자들의 철야활동이 개시(開始)되었든 것은 물론이다. 혹은 현장에 가서 사건발생 당시의 사정을 조사하고 혹은 경찰부로 가서 경계방침과 활동의 방향을 알아오고 혹은 피해자를 차져 다니며 권총대(拳銃隊)의 인상언동(人相言動) 등을 들어왔다. 사회부 소속으로 내근(內勤)을 하는 나는 마침 사회부장이 출타(出他)한 때이라 전화통에 메어달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며 맞게서 활동(活動)하는 여러 동무 사이에 연락을 취하여 주는 한편으로 이 중대한 사건의 경과를 보도하여야 할 사회면(社會面)의 편집을 맞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비상시(非常時)에야말로 각 사의 경쟁은 격렬한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신속하게 사건의 정체를 발표하야 다른 신문보담 특색있는 지면을 만들자는 것이 당면한 기자들의 공통한 고심이다. 그럼으로 익

(翌)19일석간(廿日附)에는 각 신문이 다토아 이 사건의 보도에 전력을 다하였다. 내용은 대개 작일호외(昨日號外)의 상보(詳報)이었고 신통한 소식이 별로 업섯다. 잠적한 권총대가 어느 때 어느 곳에 나타나 엇더한 사변을 또 일으킬는지 수백명(數百名) 무장경관대가 출동하얏스니 살상의 충돌이나 생기지 아니하는지? 무슨 소식을 다른 신문사에서 먼저 알고 지금쯤 호외(號外) 만들기에 착수나 아니하는지? 가진 각색의 의념(疑念)이 다 생겨난다. 강원도(江原道) 경기도(京畿道) 방면에 잇는 요로(要路)의 통신기관에 최선의 활동을 하라는 주의를 식혀두고 전화통 압홀 직혔스나 이 날은 무사히 넘어 갔다.

20日이 왔다. 양주(楊州) 백국산(栢局山)에서 권총대중 1명(名)이 잡히었다는 소식을 10시 반경에 듯게 되었다. 자동차(自動車)를 몰아 기자 한 사람이 현장으로 달려가든 한편으로 호외! 호외! 하고서 들르는 판에 동인(同人) J군이 얼굴이 셋파랏케 질리어 드러온다. 권총대! 권총대! 소리를 치며 원고지에 연필을 달린 동(叞)군의 기사는 양주(楊州) 구리면(九里面) 망우리(忘憂里)에서 남어지 2명이 출현하야 통행중의 자동차를 또 다시 강탈하야 가지고 그들 자신이 운전하야 경성 시내(京城市內)로 돌입(突入) 잠적하얏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사절(四折) 대호외(大號外)로 되어 가지고 배달부의 허리에 매어달려 방울소리와가티 이곳 저곳에 날르게 되었다. 다른 곳 호외보담 다 소간 빨랐다는 전화를 바들 때에 수일내(數日來) 피로는 씨슨 듯이 업서졌스나 호외전(號外戰)은 지금으로부터 백렬화(白熱化)한다. 경기도(京畿道) 경찰부(警察部) 중심으로 6대(六隊)로 편성된 120명의 결사경관대(決死警官隊)가 소방자동차로 각 처에 운반되고 담총(擔銃)한 기마경관대가 남북(南北)으로 종횡하며 요소요소마다 총일의 파수가 서서 행인의 신체를 수색(搜索)하는 등 완전히 XX상태화(狀態化)한 경성 시내(京城市內)에는 찌저질 듯한 긴장 속에 살기충만한 일분일각이 흘르고 잇섯다.

편집 마감 시간(時間)을 30분이나 늘이어 2시 반까지 기다리었으나 권총대와 경관대가 충돌되었다는 소식이 업섯다. 우선 석간본지(夕刊本紙)를 내어 보냈다. 압수(押收)를 당코 삭제(削除)를 당하야 거의 백지가 된 신문(新聞)을 독자에게 보낼 때의 우리들의 심정을 엿더타 하라? 필사(畢死)의 노력(노력)으로 연판(鉛版)에 까지 올른 이행이행(一行二行)의 기사가 (중략-원문) 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고 잇슬 때는 아니다. 활동(活動)은 계속(계속)하야 한다. 물꼴(物科) 뜻하는 30만부민(府民)에게 사건의 추이(趨移)는 아르켜야 한다. 남산송림(南山松林)으로 여의도(汝矣島) 비행장(飛行場)으로 북악산(北岳山) 등지로 쉼새 업시 이동(이동)되는 경계(境界)의 중심(中心)을 따라 전신(電線)의 신경(神經)이 칼날(칼)가티 날카롭게 된 기자(記者)들의 활동(活動)이 계속(계속)된다.

무기(武器)든 직접(直接) 행동(行動)과 2명(2名)이 대경성(大京城) 한복판(한)에 잠복(潛伏) 한대로 20 일(日)의 날은 저물(저)었다. 상설(霜雪)가튼 충검(忠愍)이 안온(安穩)한 시민(市民)의 가슴(胸)을 울렁(울)거리게 할 뿐(뿐)이요. 경관대(警)의 무서(무)운 눈방울(눈)이 이 골목(街) 저 목(路)을 직(直)히고 잇슬 때(때)에 폭우(雨)가 쏘(射)다진다. 말(話)할 수 업(不)시 처참(慘)하고 속살(肅)스런 밤(夜)이다. 황토현(黃土峴) 네거리(街)에 자리(坐)를 잡(占)는 우리(我) 신문사(報)의 편집국(局)에는 당시(時)의 국장(長)이든 C 씨(氏)와 나와 단 두(二) 사람이 이제(今)나 저(昨)제(日)나 하고 가슴(胸)을 조(絞)리며 마(麼)조(麼) 안(安)젓고 박(拍)게 나간 동인(人)들의 활동(活動)으로 압(壓)뒤(後)에 잇는 전화(電)통(通)에 불(不)이 난다.

이리(似)하야 이 날(日)도 거의(幾) 다 가(去)라는 오후(午) 11시(時) 경(頃)에 경찰부(警察部)를 직(直)켜든 P군(君)에게서 커-다란(大) 정보(報)가 왔다. 황금정(黃金町) 모처(某處)에서 한 명(名)이 잡혔(捕)다고 확실(確)실(實)여부(否)를 알아(查)보(考)노(勞)라고 10분(分)을 허(許)비(比)하고 40분(分) 후에 호외(號)가 나(出)갔다. 잡힌(捕) 그가 신의주(新義州) 이선구(李善九)란(蘭) 말(話)을 들(聽)고 신의주(新義州) 지국장(支局長)을 지급전화(至急電話)로 이(引)르(力)키어 그의 신분(身分) 경력(經歷) 소성(素性) 등을 알아(查)가지고 제2호외(號外)를 준(准)비(備)하는 중에 미리(先)부터 연락(連)하야 두(二)엇든 모(某) 일문신문(日新聞)기자(記者)로부터 남(南)어(移)지 1명(名)의 소재(所在)도 확(確)정(定)적(的)으로 판(判)명(明)되어 종로(鍾路)서원(署員)이 포(抱)위(負)하고 밝(白)기를 기(企)다

린다는 정보를 바닷다. 쏘다지는 폭우와 경관들의 간섭과 싸와가며 H군이 찌 거운 사진과 얼러 반혈(半頁) 대호외(大號外)를 내어 보낸 것은 송두리째 압수(押收)!

이제 호외(號外)는 한 번이 남었다. 잡히지 않은 한명이 무사히 잡히든지 경관대와 교화(交火)를 하다가 마저 죽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사변이 생길 것은 정(定)한 일이다. 이 최후의 호외(號外)만은 기어히 다른 신문보담 일즉이 내어 보내려고 우리들은 두 가지 호외를 꾸미어 지형(紙型)까지 떠두었었다.

“경관대와 교화(交火)끄테 1명은 필경 피살!” 이란 것과 “수범(首犯)마저 피착(被捉)!” 이란 두 가지 호외를 만들어 두고 사건에 따라 어느 한 가지를 내어 보낼 작정이었다. 우리들의 이 예상이 드러 마저 후자의 호외를 21일 오전 5시 10분에 내어 보냈다. 최후의 최양옥(崔養玉)이가 잡힌 것은 오전 정(正)5시(時)이엇스니 10분만에 호외가 나간 세음일 뿐 아니라 C씨의 주장으로 권총대 3인(三人)이 공명단(共鳴團) 최양옥(崔養玉), 김정연(金正連), 이선구(李善九)이라고 성명까지 발표하야 특색을 내엇든 것은 지금 생각하야도 유쾌하다.

② 호외전선(號外戰線)에 서서

중외일보사(中外日報社) 홍종인(洪鍾仁)

「으럿쉬 아위」의 잡답(雜沓)한 인파, 전차, 자동차, 우마차(牛馬車)의 달리는 음향의 혼돈. 이 속을 계뜰으고 과민한 도회인(都會人)의 신경을 일층(一層) 첨예화식히는 요란한 호외의 방울소래! 「호외!」 「호외!」 이 호외의 방

울소래야말로 밤거리를 달리는 소방자동차의 비명(悲鳴)과 한가지로 근대도시의 「짜즈」 적(的) 환소(喧騷)를 압두적(壓頭的)으로 「리-드」 하는 특이(特異)한 음향일 것이다. 분망(奔忙)과 긴장 가운데 그날 그날을 보내는 도회인(都會人)은 이 방울소래를 들을 때마다 흥분과 감격, 불안, 초조 또는 흥미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복잡한 심리로 다음 호외, 다음 석간, 조간을 기다린다. 어떤 때로는 사건의 낙착(落着)보다 진전을 밋다면 밋다고 할만치 사건의 폭발, 돌발을 궁급히 생각하는 사람의 잔인성의 일면(一面)은 옛날부터 가진 것이거니와 도회인(都會人)에 잇서서 「조금」 더 심하다.

여기에 잇서서 호외-보도의 제일선(第一線)에 선 기자의 심리. 그것은 수천만(數千萬) 독자의 호외에 걸어노은 도박적 심리의 대신이 되었다고 보아도 조타. 그러나 사건을 눈을 뿌리지게 보고 손을 만지고 달아단니는 가운데는 단순한 도박적 경기적(競技的) 심리만이 안이다. 붓대가 놀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설어운 때가 업지 안음을 엇저라.

전사원총동원(全社員總動員)으로 전능술(全能率)을 발휘하지 안으면 안되는 호외전(號外戰). 여기에는 또 적이 만다. 첫째 동업자간의 경쟁과 경계, 경찰활동의 극비 경무국의 압수, 내지 게재금지명령(掲載禁止命令) 등등 이러한 적과 지장(支障)이 잇슴으로써 호외의 전(戰)의 「과인·플레이」가 잇게 될런지는 물론다. 그러면 주문(注文)대로 호외전(號外戰)의 이면(裡面) 이야기를 가지하여 보기로 하자.

근래의 격렬한 흥미잇는 호외전(號外戰)은 공명(共鳴) 생각이 번갯불가치 머리에 들어왔다.

별실서 나오는 삼륜경부(三輪警部)의 얼굴에는 생기잇는 표정을 볼 수 잇섯다. 뒤딸아 물으나 「아니요! 아직! 머! 아무 것도 안이요!」 하면서 모자도 안쓰고 슬거면히 아랫 층을 내려가는 것이 수상하여 우리도 물론 체하고 뒤딸아

내려왔다. 아랫 층 녀방에는 10여 명이 신문기자가 있었다. 현관(玄關)밖에 나선 그는 맞부게 자동차에 올라안졌다. 우리도 비치하였든 자동차에 올라 안졌다. 그 뒤로는 경찰서문전(警察署門前)에 노였든 각 사(社)의 자동차가 모다 뒤니어 달리었다. 적선동(積善洞) 00여관으로 갔다. 가보니 근방에는 10여 명 형사가 매복하고 있었다. 다시 간동(諫洞) 0번지로 들어갔든 삼륜(三輪)경부는 보(襟)에 무엇인가 싸가지고 나왔다. 「무엇이요」 「거-머- 범인의 것인데!...」. 범인의 행방은 거이 들어나게 된 것이 명확하였다. 그리고 그 보에 들고 나오든 것이 이선구(李善九)의 권총이었던 것이다. 밤이 어두워 가면서 종로서문전(鍾路署門前)에는 형사대(刑事隊)의 자동차가 빈번하였다.

경찰들은 「이제는 밤이 새어야지!」 하고 이었다. 그때 나는 잇슴즉한 후보(後報)가 궁금하여 다시 간동(諫洞) 이선구(李善九)의 권총을 가져오든 집을 갔다. 문전(門前)에 오니 돌연 문(門)넙해서 「누구요!」 하고 소래가 들렸다. 보니 3·4명의 사복순사가 직히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던지 들어오면 내보낼 수 업소. 신문기자라도 사건수사상(事件搜查上)할 수 업소...」 하여 붓들고 노아주지 안는다. 나가지 못하면 활동이 끈어진다는 책임도 잇스려니와 그 밤에 공명단(共鳴團)이 그 집에 다시 온다면 어찌나 필경은 쌍방이 권총을 늦는다면 경관과 한 자리에 안졌다가... 공상보다도 잇슴즉한 공포의 염(念)이 머리에 들어왔다. 약(約) 한 시간반이나 지나서 겨우 빠져나올 때에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다. 이것은 내 개인의 한 삽화(挿話).

밤 10시경 황금정(黃金町)에서 공명단원(共鳴團員) 1명 이선구(李善九)가 경찰부의 손에 잡히었다. 그때 벌서 경찰로부터 호외에 「범인의 행방을 쓰지 못한다」 는 주의가 있었다. 호외는 다시 돌아왔다. 이선구(李善九)와 혼자 남은 것은 최양옥(崔養玉)의 행방이다.

종로서(鍾路署)에서는 경찰부의 활동과 거이 평행하여 가다가 이때 다소 낭

패한 감이 업지 안엇을 것이다. 이선구(李善九)의 취조(取調)로 최양옥(崔養玉)의 거처도 확실하여졌다. 체부동(體府洞) 0번지 밤새로 2시경에는 신문기자들도 그 소재를 다 알엇다. 경찰에서도 날이 밝으면 잡을 터이니 기다려 구경하라고까지 장담하고 잇섯다.

각각(刻刻)을 전화를 받고 잇든 사(社)에서는 잠간 들어 쉬엇다 나가라는 명(命)이 잇섯다. 모다 들어가니 당시 주간하몽(主幹何夢) 이하(以下) 간부(幹部)가 모다 들어 안저 만단(萬端)의 용의(用意)를 하고 잇섯다. 명일(明日)의 활동을 위하여 잠간 자고 나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몇 친구는 다른 기자들과 가치 경찰사에서 의자에 안저 자고 잇섯다. 날이 밝으면서 다시 출동하였을 때 문 제업시 최(崔)는 종로서(鍾路署)에 잡히엇다. 날도 말 것이다.

團事件이라 하갸다. 기괴한 사건의 전개-수백천(數百千)의 경관의 철벽가튼 경계와 수사망을 유유히(悠悠)히 깨뚫으고 경성 시내(京城市內)로 들어오는 대담한 행동! 그때의 경찰의 낭패와 불안은 더 말할 것 업섯다.

작년 4월 18일 오후 망우리(忘憂里) 고개에서 紅자동차를 습격한 근대식 「홀드업」이 잇섯다고 창경원(昌慶苑)의 야앵(夜櫻)을 구경하러 단니든 일대(一隊)의 신문기자(거이 각社의 사회부)들은 저마다 모른직이 사건을 경미하게 보는 듯이 이야기하고 잇섯다. 사실 그때까지 몰은 기자가 만엇다. 돌연 그 일대(一隊)의 면면에는 긴장한 빛이 안이 흘을 수 업다. 교교한 월하(月下)의 만개된 꽃 그늘로 모였든 일대(一隊)는 시침이를 딱떼이고 각산(各散)하엿다.

첫 보도는 그날 조선신문의 석간이 우연한 기회로 성공하였스나 느즌대로 그밤과 새벽까지에 호외를 발행하엿다. 그리고 다음날 19일 석간에는 전면 공명단(共鳴團) 기사로 각 사(社)가 메워 노앗다. 모 사가 「공명단(共鳴團)은 천마산(天摩山)으로 잠적 무장경관선(武裝警官線)은 포위추적....」 이러한 기

사이였다. 그러나 20일 조(朝)에 다시 경춘가도(京春街道)에서 승합자동차를 멈추고 자신이 운전하여 가지고 시내로 들어왔다고는 누구나 꿈에도 상상치 못하였다. 필경 어느 산중에서 경관대와 충돌하든가 월경(越境)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평범한 추측을 하고 있던 터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일(前日)의 피로를 다소 늦겼다고는 하나 비교적 일찍히 사(社)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와 가튼 급보(急報)이다. 곧 사(社)에 들어오라는 명(命)이다. 여기에서부터 호외전(號外戰)이 시작되었다. 그때 우리 사(社)서는 발송부원(發送部員)이 수표정(水標町)으로 지나다가 바로 공명단원(共鳴團員)이 타고 온 차가 00자동차부(自動車部)에 와서 사건의 전말(顛末)을 이야기하느라고 뒤떠드는 것을 듣고 사(社)에 통기(通奇)하여 호외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명령일하(命令一下)에 전선배치는 다 되었다. 사회부원은 전부 각 서(署)에 당직하게 되었다. 외근은 전부 전화로 기사를 보내기로 하고 부장이 편집 학예부(學藝部)의 김(金)군이 전화연락과 기사를 쓰기로 하였다. 남엇든 는 유격(遊擊)으로 시중(市中) 경계상황(警戒狀況)과 이동되는 수사본부의 기사를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그때에 각 경찰은 위생보안(衛生保安) 사법(司法)할 것 업시 총동원 강습소순사(講習所巡查)까지 담총(擔銃)하고 대오들이 우중(雨中) 노(路)를 중횡하는 그마치 시가전(市街戰)이나 하는 듯 하였다. 석간도 나오게 되었다. 오후에는 비 푸실푸실 내리고 공명단원(共鳴團員)의 행적(行跡)은 아직 묘연한 듯 하였다. 경찰은 엿썰던 밤들기 전(前)에 행방을 차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하여 비까지 와서는 수사에 더 힘들게 되고 또 밤이면 권총을 가진 그들이라 또 엿썰 위험이 생길런지 몰은다는 큰 불안이 있다. 초조한 가운데 잇는 경찰을 볼 때 속보(續報)를 못잡은 기자들에게는 다소 피로한 기색이 띄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4시 반경 거이 비인 종로서(鍾路署) 고등계(高等係) 삼륜(三輪曙部) 압해는 형사 한 명이 창황(蒼黃)히 나타나더니 두 사람이

별실로 들어갔다. 동서(同署)에 응원 갔다가 담당기자 임(林)군과 우연히 2층에 올라왔든 우리에게는 직각적으로 새 단서다! 하는 각 사(社)에 남은 문제는 그날 20일 석간이라 전후 3일간의 사건을 엿떠케 상세히 특이하게 보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경찰부에서는 11시에 발표한다고 한다. 그때 우리는 발표하는 그 시간까지에 편집을 마치어 남보다 먼저 신문을 내보내고 결정이 되었다. 그러타. 사건의 경과와 맥락은 구구히 발표를 안 보아도 대체 아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피곤한 터이라 발표도 오후 시경(時頃)까지 느꼈다. 우리 편집도 약 1시경까지 느꼈었다. 그러나 발표재료를 기다려든 타사(他社)에 비하여 1시간 내지 2시간 빨르게 석간이 나갔다.

더구나 최(崔)의 가족을 방문한 기사는 우리 신문에 맞게 업섰다.

그날도 일요일. 진달레가 큰 일을 치른 뒤에 만발하야 창경원(昌慶苑)의 밤꽃을 마음노코 구경하는 만족! 그 밤의 꿈에는 공명단(共鳴團)의 출몰 수십차례나 나타났든 것도 기억에 깊히 남는다.

③ 경찰이상(警察以上), 전보이상(電報以上) 활동(活動)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유광렬(柳光烈)

벼락가치 갑작스럽게 이러나는 중대사건을 만날 때마다 신문사에서는 호위를 발행하여 왔는데 그것이 벌써 여러 번이다. 최근 4·5년래(年來)로 발행된 호외만 볼지라도 시내(市內) 전당포를 습격한 이수흥(李壽興) 사건이라든지 김약수(金若水) 등(等)의 조선 공산당사건이라든지 순숭효황제(純崇孝皇帝)께서 도라가실 때라든지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의 천차전복사건이라든지

또는 작동(昨冬)의 광주(光州)사변으로 서울시내에서 놀라운 움지김이 잇슬 때라든지...

이와 가치 놀라운 사변이 이러날 때마다 신문사는 실로 1분 1초라도 신속하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저 신문사의 전기능(全機能)을 가장 민활(敏活)하게 움직이어 호외를 만드려 박히어 오고가는 장안대로(長安大路)의 군중에게 백설(白雪)날니듯 뿌린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러나는 모든 사실을 가장 신속하게 보도할 책임을 마튼 신문사의 의무이었다. 그래서 이 호외가 한번 서울시내를 비롯하여 특급열차 편으로 평양(平壤), 대구(大邱), 인천(仁川)가튼 큼직 큼직한 도회(都會)에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와 가치 퍼질 때 인심(人心)을 엿더케나 흥분시키고 또 초조케 하는지 다시 말 할 것도 업스리라.

이제 과거의 이 모든 사건 중 가장 센세나리틱한 놀라운 일로 아직도 세인(世人)의 기억에 남아있는 평양숭대출신(平壤崇大出身)의 김정련(金正連)과 최양옥(崔養玉) 등의 공명단(共鳴團) 사건 때에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가 활약하던 광경을 여기에 보도하기로 하노라.

이처지지도 아니한다. 작년 4월 18일 그날 서울시내와 조선(朝鮮) 각처(各處)에는 그러케 세상을 진동식힐 만한 일도 업서서 예일(例日)과 가치 사회면(社會面)을 편집하여 신문을 발행하여 노코 숙사로 도라와 마구 배(配)된 며일문지(某日文紙)를 본 즉 천만의외(千萬意外)에 놀라운 사변이 서울을 거(距)하기 멀지 안는 경춘가도(京春街道) 망우리(忘憂里) 고개에서 이러났었다. 사건의 정체는 항상 거액의 현금을 운송(輪送)하는 경성(京城) 경춘간(春川間)의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 운송(輪送)자동차가 그날 오후 2시경 망우리(忘憂里)라는 그리 길지 안은 고개를 넘으려 할 때에 풀밭으로 6혈포(穴砲)를 가진 장한(壯漢) 수명(數名)이 나타나서 권총을 하늘로 향하여 탕탕 쏘면서 위협한 뒤 현금든 행낭(行囊)을 빼앗고 그리고 운전수를 산중(山中)에 대

려가 결부(結縛)지우고 계속하여 오는 여객자동차를 또 「스텝」 식힌 뒤 여객으로부터 금품(金品)의 제공을 받고 그러고는 자기네는 상해(上海)00단(團)에서 군자금(軍資金) 모집차(募集次)로 드러온 사람들이라 하여 00에 대한 연설까지 하고 갖다 함이 그 사건의 개략이었다. 그리하여 이 급보를 드린 부근 경찰서와 경기도(京畿道)경찰부로부터 수백명(數百名)의 무장경관이 현장에 급행(急行)하였다 함이니 백주(白晝)에 경춘가도(京春街道)가튼 크나큰 대도(大道)에서 자동차 2대나 습격한 사실. 그것이 더구나 상해(上海)로부터 드러온 00군(軍)이었다 하는 점에 이르러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사실이 기발(奇拔)하고 대담한 「아메리카」 사람들이나 할 듯하게 너무도 크고 너무도 웅장하였다. 나는 그 길로 다시 신문사에 뛰에 들어가 한편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 외근하는 민완(敏腕)의 기사를 보내서 사실정부(事實正否)를 알아 오게 하고 또 춘천(春川)과 그 부근 지국에 전보를 노아 사실정체(正體)을 알아 회전(回電)하도록 식혔다. 그때 내 머리에는 일종예감(一種豫感)이라 할가. 이 사건이 결코 이에 끝치지 안코 더욱 「센세나리틱」 하게 발전될 것까지 생각되었다.

조금 잇다가 인력거를 황황히 타고 가든 외근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동차 습격은 사실로 조금 전에 무시무시하게 무장한 경관 다수가 자동차 여러 대로 망우리(忘憂里)를 향하여 출동하였고 경찰부내(警察部內)는 경찰부장 이하 각 서장이 들낙날낙하며 경무국(警務局)으로부터도 런해 후보(後報)를 재촉하는 전화가 오지만은 아직은 범인이 잡혔다는 말도 업고 범인이 계통(系統)도 전혀 모른다고. 요컨대 일언(一言)으로 하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 함이다. 그 이상 더 알 길이 업서 그날 밤 초조한 가슴을 안고 위선(爲先) 그 사실을 호외로 내버내고 그냥 자버리었다.

이튿날 아침 전(全) 사원(社員)이 극도로 긴장하여 놀나운 「뉴-스」 의 도

착(到着)을 기다렸으나 작일(昨日)의 상보(詳報) 이외에 더 기재(記載)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지금쯤은 수백명(數百名) 무장경관대와 교화(交火)하고 잇지나 안는가 하는 생각으로 조금도 가슴이 노이지 않았다. 의문 중에 또 일야(一夜)는 지낸 제삼일(第三日) 채 아침 10시 경에 전(全) 신문사(新聞社)의 신경을 바늘끝갓치 뽀족하게 하는 대사변이 나타났스니 그것은 권총대 두 명이 수천명 경관대의 경계망을 뚫고 다시 경춘가도(京春街頭)에 나타나 지나가는 자동차를 빼(第24頁에) - 중략 -

3. X月 XX日

별건곤 제22호(1929.8.1) 조선일보(朝鮮日報) 김을한(金乙漢)

이 날의 경성에는 몇칠 전에 경춘가도에서 우편자동차를 습격한 공명단원 세 사람이 대담이도 백주에 자동차로 경성에 돌입하였다하여 경성 시내는 물 끌트시 발끈 뒤집피였다.

다 각기 단총 장총을 휴대한 무장경관대가 나간다. 기마순사대가 출동한다 하여 한간(間)통 만큼씩 늘어선 천여 경관들의 살기를 먹음은 날카로운 시선은 마티 이 날의 비상함을 말하는 듯 긴장될 대로 극도로 긴장되었었다.

처음에는 범인들이 반드시 N산 속으로 탈주한 줄로만 알고, 천여 명 무장경관이 최후의 별주(別酒)를 난호고 N산을 철통가티 포위하였서다. 따라서 경춘가도 부근에 잇는 천마산에 근거를 두었던 수사본부는 자연이 N산이 갖가운 B경

찰서로 옮기게 되었다.

B경찰서 문전에는 각 신문사 기자가 타고 달려온 십수 대의 자동차가 일자열을 지어 명령 일하(一下)를 기다리고 잇섯스며 B서의 전속 ‘오-트빠이’는 잇다금식 수사본부의 전령을 탑승하고 B서와 N산 사이를 왕래해야 남촌 일대에는 까닭없는 사람들까지 가슴이 떨릴만큼 극도로 공기가 소란하였었다.

범인(犯人)이 시내에 돌입하기는 이 날의 오전 십 시경이었는데 수사본부의 D경부가 느껴도 오후 두 시까지는 체포할 자신이 있다는 눈치를 보내었슴으로 각 신문사 사진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안코 범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B서 입구에서 사진기의 ‘핀트’ 까지 마추워 가지고 기다리고서 잇섯스나 금방에 잡혀올 듯 잡혀올 듯한 범인들은 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오후 다섯 시경이 되어도 도모지 잡혀오지를 안엇었다.

그러자 N산을 첩첩히 포위하고 잇던 경관대가 하나씩 둘씩 풀려오기 시작하고 범인 체포는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큰소래만 탕탕하고 잇던 수사본부의 공기가 점점 우울해져 가는 빛이 차차 농후해야지는 듯하더니 어디서 인지 “범인은 최초에 N산으로 잠입한 것이 안이라 C서 관내로 탈주한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엿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이 때인가 이때인가하고 B서안에 모혀 잇던 신문기자들은 무슨 의론이나 한드시 일제히 밧그로 다름박질해 나와서 문전에 나열해 잇는 자동차를 다 각기 모라서 C서로 향하엿다.

범인들이 N산으로 드러가지 안코 C서 관내로 잠입하엿다는 추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적확(的確)하게 되엿다. 따라서 수사본부는 다시 B서에서 C서로 옮기게 되고 남촌 일대를 포위하고 잇던 무장경관대는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북촌 일대를 다시 포위 수색케 되엿다.

범인들이 최초에 경춘가도에 돌현(突現)하엿슬 적에 우선 호위를 발행하고 그들이 시내에 돌입하엿슬제 계속 호위를 발행한 각 신문사 기자들은 이번에

는 그들이 잡히면은 누구보다도 또 먼저 호위를 발행하려고 다 각기 흥중에 비책을 생각하면서 B서에 모혀 잇섯다.

어느 때이나 그러치만 흥분될대로 흥분이 되어 눈에 피사대를 세우고 정신 조차 못 차리는 수색대들에서는 일언반구의 소식조차 들을 수도 업고 하도 각 갑해야 혹시 수사본부의 지휘관에게 경과를 무르면 아즉 알 수 잇느냐고 뒤다 짜증을 내이는 까닭에 신문기자들이 무슨 새 ‘뉴-쓰’ 를 알려면은 엇제든 수색대의 뒤를 미행하는 수밧게는 달리 아무 도리가 업섯다.

밧게서는 비가 주-ㄱ주-ㄱ 내려 퍼붓는데 아홉 시 열 시가 되어도 도모지 소식이 업다. 우리는 C서에서 밤을 새울 작덩으로 수색대의 출입이 가장 잘 보히는 입구(入口)엿혜 방에 의자를 사오각(四五脚)이나 죽 대여놋코 종일토록 피로한 몸을 그 우에 가로 누키엇다.

조금 잇더니 이층에서 우당탕통탕하고 층계를 내려오더니 밧그로 나가는 사람이 잇섯다. 무엇인가? 하고 벌덕 이러나 보니 C서에서도 가장 민완가로 저명한 Y경부보와 두 사람의 수색대원이 이층에서 내려 오더니 밧게 잇던 자동차를 쏜살가티 몰아서 XX통(通)으로 향하야 다름질 치는 것이엇다.

“이크 큰일났다.”

라고 나도 얼른 이러나서 밧그로 나가서 미리 매복해 노왔던 자동차를 잡어 타고

“압혜가는 자동차를 추적합시다.”

라고 소리를 질러 즉시 그 뒤를 따렸스나 XXX통 네 거리에서 고만 다른 자동차에 헛갈리어서 압혜 가는 자동차를 놓치고 마렸다.

“에잇 비리먹을 것!”

하고 다시 자동차를 돌리키어 C서로 가려니까 압혜서 다른 자동차 한 대가 쏜살가티 이쪽을 향하야 온다. 자세히 그 안을 드러다 보니 A신문사의 P군이 역

시 그 뒤를 따러 온 것이 었다.

다시 C서로 도라와서 입맛을 짹짹 다시고 잇스라니까 채 한 시간도 못되어서 아까 나갔던 Y경부보 일행의 수색대가 도라 왔다.

엽혜는 무엇인지 신문지에 쓴 커다란 보통이를 끼고 희색이 만면한 것을 보면 반다시 엇더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난 거와 가티 보혔다.

“무슨 조흔 결과가 잇섯소?”

하고 무르니

“결과가 무슨 결과! 우리는 병어리이니까 말할 수가 업소.”

하고 딱 끈어 버리고 그대로 쿵쿵거리고 이층으로 올라가 버리었다.

Y경부보 일행의 수색대가 도라온 것으로 말미암아 C서에 모혀 잇던 신문기자 사이에는 일대파문이 이리났다.

민완가 Y경부보-자동차로 출동-수색 또 수색- 신문지 보통이-희색이 만면-

여러 신문기자의 머리속에는 이와 가튼 사실이 팽팽 도랏다. 그리하여서 무슨 새로운 단서가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전부의 공통한 의견의 일치이 었다.

우리의 마음은 초조될 대로 초조되었다. 그러나 다만 이러케 마음만 조리고 잇슬 때가 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C서를 나서서 문밖게는 여전히 각 신문사와 경찰서의 자동차가 십수 대나 쪽 노혀 잇섯다.

그 때에 나의 머리에 얼른 생각나는 묘안이 하나 잇섯다.

“올타...”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를 치고 내가 타고 그 자동차 운전수를 향하여 Y경부보가 타고 갔던 자동차를 가르치며

“여보 저 자동차 운전수를 아루?”

하고 무르니 안다고 고개를 끄떡거린다.

“그럼 미안하지만은 동업자끼리이니 시침이를 딱 띄고 앓가 어디를 갔다
왔나 좀 무려다 주구려!”

하고 말을 하니 전부터 다소 호의가 있는 사이라 그 운전수는 빙그레 웃고는 서슴지 안코 즉시 갔다 오더니 자기도 단단히 부탁을 바든 터로 절대 비밀이니 아무더러도 말을 말라고 하며 아르켜 주는데 아까 갔다온 데는 G동의 XX여관이 랍디다고 말을 한다.

“올치 올치”

그 때의 나의 마음은 춤을 출드시 깃벗다. 그래서 즉시 자동차를 모라서 G동의 XX여관을 차져 가서 알아 보니 과연 그 날 낮에 와서 점심을 사먹고 간 두 명의 청년이 잇섯는데 조금 전에 C서 수색대가 차져 와서 전기 청년이 두고간 듯한 한 자루의 권총을 위시하야 수발의 탄환과 혼옷(古衣) 한 벌을 압수하여 간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즉시 그 부근 상점에 가서 전화를 비러서 사로 전화를 하니 마춤 사에 남아 잇던 P씨는 내 말을 다 드른 후에 경찰부에 가 잇는 K군으로부터 공명단원의 한 사람이 W정(町) 부근에서 수색대에게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드러 왔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합해서 호외를 내시지요.”

“암 하고 말구요.”

나는 다시 최후의 일 막을 보려고 C서로 도라 왔는데 밧게서는 벌서 제삼의

호위를 도르는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초조! 피로! 불안중에 그날 밤도 고요히 새웠다. 오전 여섯 시에는 공명단사건의 수범(首犯)인 최(崔)가 잠복해 있는 XX동을 총습격한다는 것을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알고 잇섯던 까닭에 오전 다섯 시가 채 못 되어서 C서에는 벌써 일시 사에 도라 갔던 각 신문사 기자들이 다시 모혀 들기 시작하였다.

비상소집을 바든 순사들은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다시 각반을 고쳐치고 장총을 가진 사람은 장총에 단총을 가진 사람은 단총에 가기 탄환을 재우며 지휘관들은 서로 건배를 하고 새삼스러히 악수를 하는 것이 흡사히 무슨 전장에 출전하는 병사들과도 가뵈다.

이리하여 오전 여섯 시가 되자 백여 명 무장경관은 혹은 자동차로 혹은 ‘오-트바이’ 로 혹은 ‘자전차’ 로 장사진을 느리어 여명을 뚝코 XX동으로 대거(大擧)하여 질주하는데 그 뒤에는 각 신문사의 기자와 사진반을 실은 십수대의 자동차가 일제의 뒤를 팔렀다.

큰 길거리에서 차에 내려서 몇번이나 좁은 골목을 꾸부러져서 XX동 XX번지 앞까지에는 수색대는 여기저기 몸을 감추우고 몇 사람의 형사가 작대기로 문을 두드리며 “문열우! 여보! 여보!” 소리를 연발하것마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업는데 바로 문 엽혜부터 섯든 사진기계를 가진 사진반과 신문기자들은 다만 부질업시 가슴만 두근거리고 잇섯다.

살기가 충만한 공기를 “문열우! 여보! 여보!” 소리가 몇 번이나 흔들어 낫차 비로소 안에서는 “누구 왓소!” 라는 여자의 간알푼 음성이 들리였다. 밧갓 사람들은 일제히 침을 삼키였다.

문은 용이히 열리였다. 형사와 그 집 주인인 듯한 여자 사이에 몇 마디의 문답이 오고가는 동안에 저위 뒷문에서 갑작이 와- 소리가 나드니 무장한 수색대가 “잡엇다 잡엇다!” 하고 함성을 지르고 이편으로 왓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의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무장경관대에게 체포포위되어 이 편으로 향해 오는 것이었다.

C서의 M경부는 “희생자 한 사람도 내이지 안코 잡은 것은 큰 성공이다. 성공이다” 라고 소래를 지르며 자동차가 잇는 곳으로 쏜살가티 다리났다.

여기저기서 각 신문사 사진반의 ‘프랫슈’ 태우는 소리가 요란히 나니 단단히 포승으로 박결당하고 수색대에게 이끄을리어 오든 공명단 수범(首犯) 최(崔)는 벌서 우리가 신문기자인 줄 눈치채어슴인지 우리를 향하야

“신문기자 제군! 공명단도 모르나? 밝을 명자(明字)를 몰나서 울 명자(鳴字)를 쓰다니”

라고 빈정거리고는 저 편으로 끄리어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최초에 경춘가도에 돌발한 자동차 습격사건은 상해 공명단의 소위(所爲)라는 정보를 맞고 ‘한가지 공’ ‘밝을 명’의 공명단이라 하야 공명단(共明團)으로 기사를 썼섯다. 그러나 그 후에 경찰당국의 말이 밝을 명자가 아니라 울 명자의 공명단이라고 말하는 까답에 우리는 다시 공명단(共鳴團)으로 고쳐 썼다. 그러나 공명단(共鳴團)의 두목이라고 할 만한 최(崔)가 그와 가티 말하는 것을 보면 최초의 밝을 명자(明字)라고 생각한 것이 옳흔 것 가태서 수범(首犯)마저 체포되엇다는 호외부터는 다시 공명단(共明團)으로 고치엇다. 그러나 그 후에 경찰당국의 범죄보고서에나 재판소 당국의 공판청구서의 공문서를 보면은 역시 공명단(共鳴團)이라고 쓰혀 잇는 까답에 사실(事實) 우리는 었던 것이 옳흔지를 몰라서 한참동안 망상거리엇스나 결국 당국의 주장대로

다시 공명단(共鳴團)이라고 고쳐 쓰게 되었다.

그러면 공명단 수범(首犯) 최(崔)는 왜 우리를 보고 울 명자가 안이라 밝을 명자라고 신문기자를 비우셨던가? 그러면 그 때 그의 말은 거짓말이던가. 안이 그가 우리를 보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업지 안이한가? 그러면 왜 그가 우리를 보고 밝을 명자의 공명단(共明團)이라 말하고 당국의 취조에 대하여서는 울 명자의 공명단(共鳴團)이라고 진술을 하였는가?

엇쨌든 어느 ‘명’ 자가 올튼지는 지금까지도 의문이지마는 신문기자를 향하여서는 공명단(共明團)이라 말하고 경찰관과 사법관에 대하여서는 공명단(共鳴團)이라고 진술한 그의 심리에 대하여 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업는 기이한 심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제 5 장 광복 후 국가를 위한 봉사

1. 광복 직후의 활동
2. 인천소년형무소 소장과 6·25전쟁
3. 정계 재진출
4. 나는 모국의 스파이였다고 고백한
전 내무부장관 장석운
5. 고향에 내려와 못 다한 효 실천





제5장 광복 후 국가를 위한 봉사

1. 광복 직후 선생의 활동

① 한국민주당에의 입당과 탈당

마포 경성형무소를 출옥한 이후 선생은 사촌 동생 양준(養俊)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지만 형제가 8남매가 있어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처자도 없었으므로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중국방면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한 동지의 말이 “지금부터는 독립운동이 국내에서 할 때다”라고 말하



마포 경성형무소 본관
(『대한민국교정사』(1), 1930년대)

였는데, 충청북도 괴산군 노평⁴⁸⁾에 거주하는 우순(禹淳)⁴⁹⁾이라는 동지가 생활 토대로 우마차 살 돈, 일본 돈 2,500원을 주어서 마차 3대를 사서 그날부터 마부(馬夫)가 되어 종로를 횡행(橫行)하며 그날그날을 보내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광복을 하게 되었다. 선생은 마부일을 그만두고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에 가입하여 선전부(宣傳部)일을 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한국민주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민주당은 약칭 한민당이라고 한다. 1945년 9월 16일 서울 천도교기념관에서 발기인 1,600여 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가졌다. 이에 참석한 정당·단체는 고려민주당·조선민족당·한국국민당·국민대회준비회·충칭(重慶)임시정부 및 연합군환영준비위원회 등이었다. 이들 정당·단체를 대표하는 민족지도자들은 1945년 9월 4일 서울 종로국민학교에서 대표 82명이 모여 신당발기총회를 가지고 당명을 '한국민주당'으로 결정하였으며, 9월 8일에는 한국민주당 발기인 1,000여 명 명의로 조선인민공화국 타도성명서를 발표하고 충청임시정부 절대지지도도를 밝혔다. 최양옥 선생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전선에 뛰어들었다.

9월 21·22일에는 총회위임에 따라 지역을 안배한 조선민족당·한국국민당 공동비율로 8인의 총무(후일 1인 추가)와 사무국 외 각 부서와 중앙감찰위원 30인을 선출함으로써 당의 체제를 모두 갖추고 송진우(宋鎭禹)를 수석총무로 선출하였다. 정강은 ①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② 민주주의 정체수립을 기함, ③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④ 민족문화를 양양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함, ⑤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이었다. 정책은 ① 국민기본생활

48)「수기원고」에서는 노평이라 하였으나 사리면에는 노평이라는 지명이 없다. 노송리의 노송이든가 아니면 자연마을인 노동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9) 우순이라는 사람은 괴산군 사리면의 변영회장으로 면공판(棉公販) 때 1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비상한 활약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구제사업도 행하는 기업인이었다(『동아일보』(1939.12.19), 「사리면서입금조일 이만매돌과」).

의 확보, ② 호혜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③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의 자유, ④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⑤ 중공업주의의 경제정책 수립, ⑥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⑦ 국방군의 창설 등이었다.

중앙부서에는 영수 이승만·김구·이시영·문창범·서재필·권동진·오세창, 수석총무(당수) 송진우, 총무에는 원세훈·백관수·서상일·김도연·허정·조병욱·백남훈, 사무국장에 나용균, 부서책임에는 당무부장 이인, 조직부장 김약수, 외무부장 장덕수, 재무부장 박용희, 선전부장 함상훈, 정보부장 박찬희, 농업부장 홍성하, 문교부장 김용무, 후생부장 이운, 조사부장 유진희, 연락부장 최윤동, 청년부장 박명환, 지방부장 조헌영, 훈련부장 서상천, 중앙감찰위원장 김병로 등이었다. 선생은 선전부 소속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 당은 그 창당선언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인민공화국의 타도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우리의 정부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을 당면한 대방침으로 삼았고, 임시정부의 환국 후에도 그것으로 일관하였으나, 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무렵에는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 수립운동에 동조하여 임시정부와 정치노선을 달리하고 대한민국 수립의 주요한 추진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미군정이 실시되자 군정고문 또는 군정청 요직에 다수의 당원이 앉아 미군정의 정책에 협조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이나 대외정책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러나 창당 초기에 내세웠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강·정책과는 거리가 먼 대응을 보였다.

1945년 12월 30일 수석총무 송진우가 한현우(韓賢宇)에게 암살당하고 김성수(金性洙)를 수석총무로 추대하여 당세를 유지해왔으나, 1946년 10월 좌우합작운동의 여파로 원세훈·이순탁(李順鐸)·박명환·김약수 등 창당에 참가하였던 중진간부 100여 명이 이탈하여 한때 큰 혼란에 빠졌다. 이로부터 이 당은 전형적인 보수정당으로서 한국정당사에 그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당시 정치세력은 좌우파세력 등으로 혼돈을 겪고 있었다. 1946년 5월경

국내 정치세력은 미군정의 분류 기준에 따르자면 이승만(李承晩)·김구(金九)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세력, 김규식·원세훈 등의 중도 우파세력,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좌파세력,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하는 극좌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익 탄압과 함께 우익 세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좌우합작이었다. 즉 좌익진영을 극좌와 중도 좌파로 구분하여 조선공산당과 같은 극좌 세력을 고립시키고 여운형 중심의 중도 좌파 진영을 견인하여 우익 주도의 정국 구도를 짜려고 한 것이었다. 양측 대표는 정례회의를 위한 두 차례 예비회담(7월 22일·25일)을 거치면서 7월 25일 우익대표 김규식·원세훈·안재홍·최동오(崔東晤)·김봉준(金朋濬), 좌익대표 여운형·성주식(成周寔)·정노식(鄭魯滉)·이강국(李康國) 등이 모여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고, 김규식이 주석을 맡았다.

7월 26일 제1차 정례회담을 가졌지만 합작 원칙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좌우합작 원칙 문제로 대답하던 중 10월 4일 1주일 동안의 북조선 방문에서 돌아온 여운형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절충안인 7원칙을 결정하였다.

10월 7일 좌우합작위원회 합의 7원칙이 발표되자 한민당은 전면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담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반대는 ①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뜻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② 유상매수-무상분배는 재정 파탄이 필연적인 방책이므로 기만책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결론으로 “합작위원회의 합작원칙은 동 위원회 자체 내의 결정이요 장래 설치될 입법기관이나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합작의 효과를 부정했다.

합작위원회에 참여해 온 한민당 총무 원세훈은 이에 반발, 8일 저녁 탈당계를 내었고 8~9일 동안 여러 명이 뒤따라 당을 탈당했으며, 『서울신문』 10월 13일자에는 김용국 등 17인이 11일에 탈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한민당은 12일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의논했다. 그때까지 탈당자 49인 중 30인이 중앙위원이었

다. 150석의 중앙위원회에서 30석의 결원은 작지 않은 구멍이었다. 12일 회의에서 몇 가지 기구 변경과 함께 중앙위원 결원을 보선했지만, 주류의 극우노선에 대한 반발은 아직도 다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10월 21일에 89명이 집단으로 탈당했는데, 그중에는 중앙위원 50인과 대의원 5인이 들어있었다. 앞서의 탈당자들과 합치면 중앙위원 절반 이상이 당을 떠난 셈이다. 이번 탈당자는 비교적 온건한 사람들이 사태를 관망하다가 주류 측의 대응 방향을 보고 끝내 탈당을 결심하였다. 이 제2차 탈당으로도 한민당의 탈당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1946년 11월 23일자와 28일자 『서울신문』에 “한민당에서 강인택(姜仁澤) 외 20여 명 탈당”, “한민당 중앙위원 최양옥(崔養玉) 외 20여 명이 탈당” 등 기사가 계속 나타난다. 그러나 한민당 주류는 ‘과도입법의원’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던 입법기구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경향신문』에서는 「80여 당원 한민당 탈당성명」(1946.12.7)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민주당 중앙상무집행위원 김상규(金商圭)씨를 비롯하여 중앙위원 최양옥(崔養玉)·박용희(朴容喜)·이석주(李錫柱)·신현창(申鉉彰), 대의원 신덕영(申德永)씨 외 당원 82명은 지난 5일 탈당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상규·최양옥 제씨는 한민당의 창립당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던 중견층인 만큼 앞으로도 여신(餘燼)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광복 이후 한국민주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선생은 여러 당원들과 함께 1년 여 동안 몸담고 있던 한국민주당을 떠난 것이다.

② 경성형무소 서무과장으로 근무

어느 날 정부의 부름을 받고 중앙청에 갔다. 그곳에서 “이인(李仁)의 관방(官房)으로 가라”고 하여 갔더니 그 자리에서 경성형무소(구 서대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임명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서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경성형무소는 1908년 7월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이래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광복 후 1946년에는 경성형무소로 불렸다.

그 후 1950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로 그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러다가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의 왕시로 이전함에 따라 1988년 2월 이곳은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8월 15일 구 서울구치소와 인근의 독립문(사적 제32호)을 포함한 약 3만여 평이 서대문 독립



경성형무소(구 서대문형무소) 전경



초대 법무부장관 지낸 이인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여기에서 잠깐 선생을 불러서 경성형무소 서무과장으로 임명해준 이인(李仁, 1896~1979)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본다. 이인은 호가 애산(愛山)이고 대구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성리학자였고 아버지는 한말 애국계몽운동단체였던 자강회(自彊會)와 대한협회의 중심인물이었다. 대구의 달동의숙(達東義塾)과 경북실업보습학교(慶北實業補習學校)를 졸업하였다.

1912년 일본에 가서 세이소쿠중학교[正則中學校]와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과정인 니혼대학[日本大學] 고등전공과(高等專攻科)에서 수학하였다. 대학을 마치고 일시 귀국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변호사의 꿈을 안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일본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23년 2월에 합격증을 받고 귀국하여 경성에서 변호사와 변리사를 개업하고 법정을 통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가 구출이라는 길로 들어 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애국인사들을 법정에서 변호하였으며, 1927년 조선변호사협회장에 선임되었다. 1929년 12월 6일에 이인은 선생 외 두명의 우편물수송차량습격 사건 첫 공판에서 이창휘·허헌과 함께 변호를 맡았다. 1932년 조선발명학회장에 추대되고 조



조선변호사협회 회장 취임하는 이인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선과학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한 뒤 처음 변론을 맡은 사건이 의열단사건(義烈團事件)이었다. 당시 몇 안 되는 우리나라 변호사 중 허헌(許憲)·김병로(金炳魯) 등과 함께 이 사건을 변론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항일독립투쟁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사건에는 거의 빠짐없이 관여하였다.

수원고농사건(水原高農事件) 변호 때에는 법정불온변론문제로 변호사정직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언론탄압반대연설회 등으로 여러 차례 유치장신세를 지다가 마침내 1942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사건으로 투옥되어 4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기까지 하였다.

의열단사건을 시작으로 이인은 크고 작은 독립운동의 무료변론을 통해 민족변호사로서 이름을 떨쳤다. 1920년대 중반 이래 1930년대까지 그가 간여한 재판은 대구조선은행금고폭파미수사건, 이완용암살미수사건(이동수), 사이토 총독암살미수사건(송학선), 6·10만세운동관련자, 통영민중대회사건, 고려혁명단사건, 정의부군사위원장 오동진, 통의부지도자 이응서, 원산노동자총파업, 경성전기주식회사파업, 형평사(衡平社) 사건, 간도(間島)공산당사건, 광주학생운동, 신간회민중대회사건, 철산(鐵山)혁명당사건, 근우회(槿友會)사건, 공명단(共鳴團)의 우편행낭탈취사건, 수원고등농림학교비밀결사사건(홍농사사건), ML당(조선공산당)사건, 경성제국대학반제동맹사건, 정평농민조합사건, 수양동우회사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그는 여운형과 안재홍 등 중도좌우파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민주당을 창당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주당의 당최고위원격인 당무부장(총무)의 한 사람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군정의 요청으로 10월 11일 수석대법관 겸 특별범죄심사위원장에 취임하고 이후 7개월간 대법원장서리로서 활동하였다.

또 10월 22일자로 특별검찰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자 10월 21일 연합군환영대회를 주관한 후 한민당을 탈당하였다. 12월 19일에는 임시정부 환국 환영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



임시정부 환국 환영사하는 이인(1945.12.19)

고 1946년 5월 16일 검찰총장에 취임해 미군정 아래서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이인은 경무국장 조병옥과 수도청장 장택상과 함께 ‘좌익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7월 이인은 조선공산당이 운영하는 조선정판사(朝鮮精版社)의 위폐(僞幣, 위조화폐) 사건을 수사하고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좌익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인은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는 한편 이승만을 보필하면서 다방면으로 건국기초사업에 매진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초대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법전편찬위원회부위원장으로서 육법과 부속법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아 퇴임하고 그 해 제헌국회의원(制憲國會議員)에 당선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54년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1960년 참의원(參議員)에 당선되었다.

그 뒤 5·16군사정변 때까지 민의원과 참의원을 지냈으며, 1962년 유엔인권옹호한국연맹 이사에 선임되어 활동하고, 1972년 민족통일촉진회장·통일원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민주공화당정권 때에는 야당의 원로정치인으로 야당통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언을 통하여 살던 집을 포함한 전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하여 오늘의 한글회관을 건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인이 일제강점기에 선생이 독립활동을 하던 시기에 애국인사들을 변호하는 활동을 할 때 선생의 우편수송차량 습격사건 공판도 변호하였으니, 이미 얼마나 선생을 잘 알았겠는가.

광복 후 선생은 한국민주당에 입당하였고 이인도 한국민주당의 당무부장이었으니 이 또한 선생과 이인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인이 선생을 경성형무소 서무과장으로 임명한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실 이외에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이인은 「법복(法服)을 입고 민족(民族)의 입이 되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춘가도에서 일어난 우편행낭탈취 사건은 이 해의 무력항쟁 중의 가장 큰 사건인데 중국 산둥에서 조직된 공명단 단원 최양옥·이선구·김정련 등 11명이 춘천으로 보내는 우편행낭을 탈취한 것이다.

공명단 단원들은 임정의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때 적행낭(赤行囊)이라 했던 현금행낭을 탈취하기로 했다. 1929년 4월 20일 이들은 마석우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권총을 빼들고 우편차를 세운 뒤 행낭을 모조리 빼앗았다. 이때 적행낭에 든 현금이 10만원인가 했으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치밀하게 거사를 모의했던 이들은 도피할 시간을 얻기 위해 교묘한 수를 썼다. 먼저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은 모조리 세우고 운전사와 승객들 70여 명은 모조리 눈을 가려 데리고 강원도를 향하는데 중도 산속에 이들을 연좌시켜 놓고 간다. 그들이 차편을 이용해서 재빨리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뒤이어 급보를 받은 일경(日警)은 군대(제19사단)의 지원을 받아 추격하는데 양주군 천마산에서 그들을 포위했다. 산속에 갇힌 지사들은 망우리고 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며 항전을 계속했다. 하룻밤 하룻낮을 악전고투하였으나 식량과 탄환이 다하여 모두 붙들리고 말았다.

일제는 이들의 예심을 만 1년이나 끌어 공판은 늦은 봄에야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강도죄를 적용하여 최고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때의 지사들 중에 이선구는 형기를 마치기 전에 옥중에서 순국하고 최양옥과는 출옥 후에도 각별한 교분이 있었으니 정부수립 후 그가 서울형무소(필자 주 : 경성형무소, 서울형무소는 1950년 이후의 명칭) 서무과장으로 취임한 것은 내가 법무장관을 하면서 임명한 것이다.

그는 적행낭사건 외의 민족운동사건으로 징역 7년을 살았으므로 옥살이가 전후 17년(필자 주 : 15년이다. 그런 만큼 일본 행정(刑政)의 폐단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터라 일정 때의 폐단이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 행정의 개혁을 맡길 심산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최양옥은 인천소년원장까지 역임했으나 관직을 버린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친일파 모가 출마한다는 말을 듣고는 분개하였다. 그는 모가 출마한 선거구를 찾아가 창조연설을 하는데, “만주에서 독립군을 소탕하던 일본군의 앞잡이 아무개가 일본에 가서 출마는 몰라도 한국땅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니 이게 웬말이냐”고 했다. 이렇게 최양옥이 분연히 일어난 것은 아무개 개인에 대한 원한에서가 아니요 1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도 굶힘없던 우국충념(憂國忠念)에서였다. 그러나 모든 버젓이 당선이 돼서 의정단상에 올랐다. 우리 국민의 망각이 이렇고 보면 쓸쓸한 노년의 고독이 어찌 최양옥 지사 한 사람만이겠는가.

그는 지금 인천에 건재한데 나보다 두 살 연장인 80고령이다. 요즘은 소식 두절이나 무소식이 곧 희소식인줄 알고 지낸다.

이렇듯 이인은 선생의 15년간의 옥살이 경력을 살려 계속 남아있는 일본 행정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경성형무소 서무과장과 인천소년형무소 소장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2. 인천소년형무소 소장과 6·25전쟁

① 인천소년형무소장으로 발령

1948년 경성형무소(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서무과장으로 약 6개월 근무할 즈음인 1949년 이번에는 인천소년형무소 소장으로 발령이 났다. 먼저 선생이 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인천소년형무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인천소년형무소 청사
(1960년대, 당시에는 인천소년교도소)

인천소년형무소는 소년수형자들만 수감하는 형무소이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고 전국 감옥의 수감자가 초만원을 이루게 되자 일제는 이를 계기로 감옥시설을 크게 확장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대전감옥을 신설하고 5개의 본감과 7개의 분감체제를 갖추더니 1923년 5월에 이르러 조선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을 형무소로, 분감을 지소로 개칭하고 개성분감을 개성소년형무소로 승격시켜 그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개성소년형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본래의 목적은 3·1운동 후 각종 항일운동에 뛰어든 식민지의 미성년자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일제가 고안한 제도였다. 외견상은 범죄소년을 성인과 분리하여 감금하게 하는 조치였으나 수용구분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형무소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인천소년형무소는 1936년 7월 10일 총독부령 제52호로 부천군 문학면 학익리

(현 인천시 학익동)에서 개소하여 일제강점기에 운영된 소년형무소 중 가장 늦게 신설된 형무소였다. 기존 개성과 김천의 두 소년형무소의 수감인원이 수용능력을 넘는 포화상태에 있어 불가불 인천에 소년형무소를 신축하여 이감하게 된 것이다.



인천소년형무소 시동 전경
 (『대한민국교정사』 1, 1950년대 중반)

부지는 6만평으로 개소 초기 일부건물을 지어 개성소년형무소 수감자 일부를 수용하고 착공 2년 반 만인 1938년 3월 31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전국 각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만 14~18세 정도의 소년(소학교 3학년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으로 초범에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소년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소년 6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3천 평의 운동장 그리고 가축사육장과 채소밭이 있었으나 소년수형자를 보국대라는 미명하에 가혹한 전시노동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 인천소년형무소의 당시 모습을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총독부에서 소화 10년(1935)년부터 인천교외 정승지이며 예전의 봉화대로서 역사적 고적지인 문학산(文鶴山) 산록에 6만평의 인천소년형무소는 그간 공사의 진척을 보아 오는 4월 중에 준공을 보리라는데 동형무소는 세

계에 자랑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만치 건물은 물론 벽에 이르기까지 조금 만치의 어둠이 없는 명랑한 건물이며 벽밖에는 3천 평의 운동장 설비가 있고 소년수인들에게 ‘스폰자’ 야구, 육상경기 등등종종의 ‘스포츠’를 하도록 되었으며, 명랑한 기분으로 향상기에 있는 소년의 체유를 단련시키는 한편 주위에 광대한 토지를 농원으로 하여 양, 돼지 등 다종의 가축을 사육시키고 채소원 조성 등 자연에서 교화를 시킬 방침을 취하는 것으로 수용자는 6백 명에 〇사적령의 만 14세부 18세 정도의 소년으로 초등교육 3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한다(『동아일보』 1938년 3월 10일 「신장의 인천소년형무소」).

이 기사로 보아서는 현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의 인성과 체력 그리고 인권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광복과 함께 인천소년형무소 수감자 8백여 명을 가출옥 혹은

형집행정지로 전원 석방하였는데, 미군정 초기부터 2년 남짓 미육군형무소 대용으로 사용되다가 1947년 다시 인천소년형무소로 개소하였다.

6·25전쟁 당시에는 1천 3백여 명의 소년수용자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는 여·순반란사건에 관련되어 형을 선고받은 2백여 명의 소년수용자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소년형무소의 체력행사 모습
(『대한민국교정사』 1, 1950년대 중반)

1961년에는 형무소라는 명칭을 교도소로 변경하면서 인천소년교도소로 개칭하였다. 1990년 11월 교도소 직제가 개정되어 천안교도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인천소년교도소를 폐쇄하

고 같은 건물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인천구치소로 활용하였다. 1997년 10월 동일한 부지의 다른 장소에 지상 12층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60여 년간 사용된 건물을 철거하였다. 그 후 2002



인천소년형무소 부지에 세워진 12층의 인천구치소 전경

년 기존 구치소 자리에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을 신축하였다.

이렇게 인천소년형무소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술한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수감시설이다. 인천소년형무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곳에 간 선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 대부분이 공산분자였던 것이다. 또한 옥중에는 프락치도 많아서 죄수 5·6명과 형무소 직원 9명이 결탁한 프락치 미수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장과 각 과장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선생이 이를 먼저 알아채고 적발하여(1950.3.16) 사전에 봉쇄하고 일을 일단락하고 나자 이번에는 6·25전쟁이 터졌다.⁵⁰⁾

50) 「자필수기」와 『동아일보』 1950년 3월 28일 「형무소 프락치사건 조사 중」 참조.

② 6·25전쟁과 인천소년형무소의 동향

6·25전쟁 발발 당일 당시 전직원은 비상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당시 직원의 수는 126명이며 1,300여 명의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여수·순천반란사건에 관련되어 형을 선고받은 약 200명의 소년수형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소장인 최양옥 선생이나 직원들도 사태가 곧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여 전시에 대비한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북에서 내려오는 피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시내는 점차 혼란이 일고 있었다.

6월 28일 서울이 적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형무소 내는 불안에 휩싸였다. 시내의 각 기관은 대피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지만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형무소는 수송대책이 없는 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부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못한 채 본부와의 연락은 두절되고 마침 서울지역의 형무소에서 적의 점령시까지도 정부로부터 어떤 조치가 내리지 않아 그대로 북한에 넘겨주고 철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직원들은 더욱 동요하여 피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소장인 최양옥 선생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6월 30일 많은 직원들은 정부가 머물고 있는 수원으로 갔다.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경비력이 약화된 것을 눈치챈 소년수형자들은 집단으로 탈주를 감행하였다. 이미 이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할 병력이 형무소에는 없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경무관이 좌익사상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뒷수습을 떠맡아 일부 직원들과 남았다가 직원들이 수원으로 떠난 직후 석방하였다고도 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한강방어선을 준비 중인 국군지휘부에서 치안의 혼란을 우려하여 탈주 재소자의 체포 및 형무소 직원들의 직장복귀를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인천소년형무소 형무관들은 국군과 함께 이들의 체포에 나서는 한편 형무소로 복귀하였다. 수백 명의 탈주 재소자들을 재수용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던 7월 3일 아

침 일찍부터 경인국도의 북쪽에서 포성이 진동하더니 점차 가까워지면서 후퇴하는 국군병력이 줄을 이었다. 또 다시 위급한 사태를 맞게 된 형무소 직원들은 재소자를 남겨둔 채 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인천소년형무소를 점령한 북한은 소년수형자들을 의용군에 편입시켜 전선으로 내보내 대부분이 왜관 부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그 후 생존한 소년수형자가 전함으로써 철수 후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재소자들만 끌려가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북한 치하에서 희생된 교도관들도 있었다. 간수부장 이태학·이갑성, 간수 최치준·김용대·이선호·이태용 등이 미처 후퇴하지 못하였거나 북한점령지에서 체포되어 모두 학살되었다.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제1차적으로 죄수를 버리고 간 곳이 충남 당진방면이었고 3개월 후인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았지만 또 다시 1·4후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경북 김천형무소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부산형무소로 갔다가 4·5개월 후에 인천소년형무소로 복귀했다.

③ 독립운동 동지 김시현과의 만남

인천 본소에서 근무하던 선생은 어느 날 업무 연락차 부산에 있는 법무부에 가게 되었다. 법무부를 향해 가다가 전일 동지(同志)였던 김시현(金始顯, 1883~1966)을 만났다. 그는 선생을 다정하게 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함께 살해하자”고 제의했다. 선생은 황당해 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시현은 어떤 사람이며 선생과 어떤 관계이기에 동지라고



독립운동가 김시현 선생

했고 대통령까지 함께 살해하자고까지 했던 것인가. 김시현에 대하여 알아본다.

김시현은 본관이 안동(安東), 자가 구화(九和), 호는 하구(何求)·학우(鶴右)이다.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졸업,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 길림으로 망명하여 항일비밀결사인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였다.

1922년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 등과 같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혁명단체대표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1923년 의열단의 밀령으로 국내에 잠입하여 일제 식민통치기관의 파괴, 일제요인의 암살 등을 계획하고 경기도 경찰부의 황옥(黃玉)과 제휴하여 거사하려다가 붙잡혀 징역 10년을 언도받았다.

1929년 다시 만주로 망명하여 지린[吉林]에서 독립동맹을 조직, 활동하였다. 1931년 베이징[北京]에서 활동하던 중 잡혀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압송되어 5년간 복역하였다. 출옥 후 또 다시 베이징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42년 베이징의 일본총영사관 경찰에 잡혀 투옥되었다.

1945년에는 일본헌병대에 잡혀 수감되었다가 광복으로 석방되었다. 광복 이후 귀국하여 고려동지회 회장, 전보통신사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민주국민당에 입당하여 고문으로 있다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김시현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동참을 요구했지만 아무리 독립운동가로 광주형무소와 대구감옥 등에서 알게 된 전일(前日)의 동지(同志)라 할지라도 국가에 대한 중대사인 관계로 내무부 정보과의 박춘개(朴春介) 경감(이후 치안국 경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④ 고향 후배인 내무부장관 장석윤과의 만남

김시현이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이라고 고발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 별사고가 없더니 1월 하순 썸 내무부장관 장석윤과 박춘개가 보자고 했다. 부산에 가서 내

무부장관을 대면했고 내무장관이 불러 집에
까지 방문하였다. 선생이 정황을 이야기 하
자, “증거가 불확실하니 더 정확한 정보를 얻
으라”고 하면서 “인천서 부산형무소 근무운동을
청탁하면서 알아보라”고 하여 그 후 김시
현을 만나게 된다. 당시 장석윤 내무부장관이
선생을 집에까지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면 두
사람은 보통사이가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그럼 황성에서 태어나 황성에서 보
통학교를 졸업한 독립운동가 출신의 당시 내
무부장관이었던 장석윤(張錫潤, 1904~2004)
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장석윤은 1904년 4월 13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유평리(현 청일면 유평리) 출생
으로, 호는 춘봉(春峰), 본관은 인동(仁洞)이다.

1919년 황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
등학교)로 진학해 1923년 졸업했으며, 그해 10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1924
년 안정수가 후원하는 뉴욕 감리교회 3·1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을 처음 대면해 이
후 이승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1936년 미국 테네시(Tennessee)주
에 있는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밴더빌트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보조정국(COI, Coordinator of
Information)은 중국을 통한 일본침투라는 특수첩보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1942년 3월 제1기 대원을 모집했고 이승만의 추천으로 한국인 COI대원 제1호로
선발되었다. 하지만 COI부대 계획은 1942년 6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1942년
7월 11일 전략첩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으로 개편되었다.



장석윤 전 내무부장관의 노년 모습

OSS소속으로 1942년 7월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미얀마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중경 임시정부와 이승만의 한국위원부를 연계시킬 계획으로 이승만과 김구 간의 비밀문서 연락업무도 은밀히 수행했다.

1944년 가을 OSS에 우호적이었던 웨드마이어(Albert Wedemeyer)가 중국전구 미군총사령관으로 부임하며 OSS 중국지부 활동이 활발해지자, 중국 쿤밍[昆明]의 미국 14공군기지와 충칭[重慶]을 드나들며 직접 김구와 접촉해 통신연락책을 맡았다.

OSS소속으로 활동 중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1945년 11월 16일 미군 군속의 신분으로 귀국했다. 초기 정보참모부(G2)에 배속되었으며, 육군본부 의무감(醫務監)을 지낸 윤치왕(尹致旺)의 딸 윤선희(尹善姬)와 결혼했다.

1948년 7월 이승만이 조직한 정보공작기관인 대한관찰부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49년 1월 대한관찰부가 사정국(司正局)으로 변경되어 사정국장이 되었다. 1950년 6월 17일 내무부 장관 백성욱(白性郁)의 권유로 제3대 내무부 치안국장에 기용되었고, 부임 1주일 후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상황을 경찰로부터 먼저 보고받았다. 당시 38도선 일대에는 경찰들도 배치되어 있었다. 6월 25일 04:00시, 북한이 38선 일대에 대해 전면남침을 개시하자, 일선 경찰들은 남침상황을 치안국상황실로 신속히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안국장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시간이 25일 05:00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전쟁 발발 1시간 뒤였다. 거의 육군본부 상황실에 보고된 것과 비슷하다. 채병덕 육군총장도 05:00시경 보고를 받았다. 군에서는 이보다 앞선 06:00시에 전군에 비상령을 발령했다.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06:30분에 전국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투태세로 들어가도록 조치했다.⁵¹⁾

51) 국방부, 『한국전쟁사』제1권(개정판), 631쪽.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백성욱(白性郁) 내무부장관은, “6월 25일 아침에 장석운(張錫潤) 치안국장으로 부터 북괴의 전면남침으로 38선 일대의 지서(支署)와 경찰초소(哨所)가 유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비상경계령을 하달하여 군과 협조해서 질서 있는 작전을 수행토록 했다”고 회고했다.⁵²⁾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의 모습과 묘소

이렇게 치안국장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를 하여 전쟁 준비를 한

인물이 바로 장석운 치안국장이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즉시 구속과 형무소 경비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국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비상통첩을 전국 도 경찰국에 경찰무선전보로 보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재직 30일 만인 7월 17일 사임했다.

내무부 치안국장을 사임한 후 임시수도 부산에서 전쟁으로 휴간했던 『국도신문』의 판권을 인수해 국도신문사 사장이 되었으며, 1951년 2월 1일부터 신문을 속간했다. 같은 해인 1951년 12월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1952년 1월 내무부장관 서리로 전임되어 그해 5월까지 제7대 내무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재임 중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헌하는 「발췌개헌안」 통과에 앞장섰다.

장관 퇴임 후 국도신문사 사장으로 계속 활동했으며,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원도 횡성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1958년 5월에는 자유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도 횡성 선거구에서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52) 국방부, 「백성욱 내무부장관 증언」, 『한국전쟁사』제1권(개정판), 631쪽.

1961년 5·16군사정변 당시 「정치정화법」에 적용되었으나 1963년 2월 해금되었고 이후 공화당에 가입했으나 공화당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이후 고향인 횡성으로 내려가 임업장을 경영했다. 2004년 1월 16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선생은 11살이 적지만 이렇게 훌륭한 같은 고향 사람인 내무부장관 장윤석을 만난 것이다. 동향 사람인데다 서로 장소는 달랐지만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댄 것이다. 장윤석 장관은 선생에게 “김시현의 행동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선생은 김시현을 찾아갔고 김시현은 선생이 고발한 사실을 미리 알고 불쾌하게 대하였다. 선생은 장장관을 찾아가서 ‘내가 고발한 사실을 경찰이 누설했다’고 하자 각 경찰 책임자를 불러 호통을 쳤다.

선생은 그 길로 인천으로 갔다. 몇 달 후 김시현이 인천에 다시 왔을 때, 선생은 고발한 죄가 있어 당황스러워 했다. 그러나 김시현은 태연했고 또 “이대통령 살해할 목적으로 일선장병을 달래러 갔다 온다”면서 또 선생에게 “동조(同調)해 달라”고 하였다. 이 때 단호하게 “안될 말이니 가라”고 하여 보냈더니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 6·25전쟁2주년기념식장에서 김시현과 유시태(柳時泰) 두 사람이 이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라디오방송을 통해 들었다. 중앙정보부원이 와서 따라 가보니, 김시현에 대한 사실을 묻기에 ‘내무부에 고발한 것 이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시현이 인천에 왔을 때 왜 잡아주지 않았고 동정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것이 죄다”고 하였다. 결국, 선생은 그들과 같이 형무소로 가서 3개월간 고생하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출감하였다.

⑤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그럼 여기에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1952년 6월 25일, 6·25전쟁2주년기념식장에서 김시현과 유시태 두 사람이 이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알아보기로 한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6월 25일 임시수도인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는 ‘6·25멸공통일의날’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이승만 대통령의 훈시도중 단상 뒤 VIP석에



유시태 이대통령 암살하려는 순간 모습(사진은 미군 첩보부대(CIC)가 만든 사진첩에 실림)

앉아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 대통령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겼다. 거리는 불과 3m 남짓, 하지만 탄환 불발로 저격은 실패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의열단(義烈團) 출신 유시태(柳時泰, 1890~1965)였다.

62세의 유시태는 민주국민당 소속 김시현(金始顯, 1883~1966) 의원의 양복을 빌려 입고 김 의원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 행사장으로 들어왔다. 유시태와 김시현은 같은 경북 안동 출신이며 두 사람은 일제 때부터 의열단원으로 상하이를 비롯해 해외 각처에서 일본인들을 공격했다가 10여 년의 옥고를 치렀던 애국지사들이었다. 유시태에 이어 그에게 권총과 양복을 제공한 혐의, 사실상 암살 사주 혐의로 김시현 의원 역시 체포됐다. 그리고 뒤이어 경찰은 백남훈·서상일·정용환·노기용 의원과 인천소년형무소장이었던 최양옥 선생, 서울고법원장 김익진, 안동약국 주인 김성규 등을 공범으로 체포하였다. 이때 부산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발췌 개헌’을 추진하면서 정치파동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1952년 7월 27일 영남지구계엄사령부 법무처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송된 이대통령저격사건은 그동안 부산지방검찰청 김달기(金達起) 검사에 의하여 조사가 거듭되어 오다가 8월 6일 검사취조를 전부 마치고 김시현 등 전원 12명에게 살

인미수와 살인예비, 안녕질서에 대한 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다. 즉 김시현(국회의원, 70세, 살인예비·살인미수·안녕질서에 대한 죄), 최양옥(전인천소년형무소장, 59세, 살인예비), 유시영(일명 시태, 무직, 62세, 살인미수), 서상일(제헌국의원, 66, 살인미수·방조·계엄법위반 무허가집회), 백남훈(무직, 68세, 살인미수·방조·계엄령위반·무허가집회), 김성규(약종상, 57세, 살인미수·방조·안녕질서에 대한 죄), 방주혁(한의사, 74세, 살인미수·방조·안녕질서에 대한 죄), 김익진(전서울고검검찰장, 57세, 안녕질서에 대한 죄), 노기용(국회의원, 56세, 살인미수·방조), 정용환(무직, 27세, 법령 제5호위반, 무기불법소지), 유희공(의사, 44세, 법령 제5호위반·무기불법소지) 등이다.⁵³⁾

1952년 8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저격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시현은 사실심리에서 암살시도 동기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이며 정실인사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민생문제를 해결할 역량도 없다”고 답한다. 그리고 “6·25 발발 6개월 전부터 북한은 전쟁준비로 분주했음에도 정보에 어두웠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개전 이튿날 방탄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백성들에게는 안심하라고 뱃속에도 없는 말을 하고 한강 철교를 끊어 시민들의 피란을 막았으면 국가원수로서 할복자살을 해도 용납이 안 될 판에 한마디 사



공판 때의 김시현(좌측에서 두 번째)과 유시태(우측에서 두 번째) (『경향신문』2011.7.11)

53) 『동아일보』(1952.8.7), 『이대통령 저격사건 관련자 12명수기소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등 죄목』.

과도 하지 않으니 어찌 대통령이라 하겠는가”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방위군사건·거창양민학살사건 등으로 민족 만대의 역적이 된 신성모(申性模, 1891~1960, 전 국방장관)를 죽이기는커녕 되레 주일대사를 시키는 그런 대통령을 그냥 둘 수 없었다”며 “암살 후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둔 사람은 없으나 누가 하더라도 이승만보다는 나를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김시현은 자신은 30년간 조국광복을 위해 살인·파괴를 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70세의 노인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기력으로 명쾌하게 응수했다고 전한다.

당시 첫 공판에서 그의 살해동기를 밝혔는데, 『동아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다.

이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 동기에 대하여 김시현씨는 자기경력에 관하여 30년 동안 조국광복을 위해서 살인파괴를 일삼아왔다고 전제한 다음 이대통령살해를 결행하기에 이른 동기에 언급하게 되자 노안에 핏기를 띠우면서 -이대통령은 독재자이며 정실인사를 자행할뿐더러 민생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고 추단하였다. 그러한 심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6·25동란 발발을 전후해서였다. 북한괴뢰군들은 이미 동란발발 6개월 전부터 전쟁준비에 분망하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국방부와 경찰은 기밀비를 무엇에 쓰고 그렇게도 어두웠는가. 그리고 용납 못할 선은 동란이 발발하자 이대통령은 그 이튿날인 6월 26일 독차(독차)를 타고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 보고는 안심하라 뱃속에도 없는 말을 하고 한강철교까지 끊어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남하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일국의 원수로서 9·28수복 후에는 의당 할복자살을 해도 용납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으니 그게 대통령이란 말인가. 그 후에는 또 방위군사건이며 거창사건 등으로 민족만대의 역적이 된 신성모(申性模)를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주일대사까지 시켰으니 그런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살해한 뒤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시켰으면 좋겠다고 마음 속에 정해 놓은 사

람은 없다. 그때는 누구를 시키더라도 이대통령보다는 나을 줄 안다(『동아일보』 1953년 8월 23일 「이승만대통령 저격사건공판개시」).

이어서 유시영(유시태) · 최양옥 선생과 공모한 경위를 말하였다.

유시영은 어렸을 때부터 이는 친구이며 최양옥은 기미년독립운동 이후에 안 사람이지만 의열단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작년 9월경부터 이제는 도저히 이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는 심경에 도달하여 최양옥이와 누차 논의한 즉 찬동을 얻었으므로 계획을 실행해 왔지만 나중에 최의 가정이라든가 그 환경을 살펴본즉 결행할만한 의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되었기 때문에 유시영이와 협력하기로 변경한 것인데 이제 알고 보니 최는 금년 1월경에 이미 치안국에 내통하였던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일을 많이 해 온 관계로 이런 일은 사람이 많을수록 실패하는 것이므로 이번에도 나 혼자 결행할 것이었지 최와 유 양인과 상의한 것조차 후회가 날 정도이다(『동아일보』 1953년 8월 23일 「이승만대통령 저격사건공판개시」).

이렇듯 김시현은 선생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결행할 의사가 없는데다 치안국에 고발까지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의한 것조차 후회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에서 김시현에게 인천소년형무소장인 최양옥과 만나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작년 10월경에 그를 만나 불평을 말하고 민족을 위해 일하려면 정복을 벗으라고 하니 그는 정복 입고서 민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그 집을 방문하니 가정에 낙(樂)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허 이 사람

은 일하기는 힘들군'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기를 단념했다"고 하였다.⁵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김시현, 유시태, 최양옥 세 피고인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으로써 다른 9명의 피고는 이에 부대(附帶)된 몇 가지씩의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하였다.

유시태는 법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권총 탄환을 일부러 물수건에 적서 두었다가 불발탄으로 만들었다”고 진술, 살해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4·19혁명 이후 석방될 때는 “그때 권총이 발사되기만 했더라면 이번에 수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을 터인데, 한이라면 그것이 한이다”라고 출소 소감을 밝혔다.

김시현과 유시태 두 사람은 1953년 12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다 1960년 ‘4·19 혁명’ 후 과도정부에서 국사범 제1호로 출소했다.

⑥ 증인 장석윤 전장관 입회하에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무죄

1952년 7월 3일 이내무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암살미수사건의 중요한 배후자로 유시태(柳時泰, 국민당원), 김시현(金始顯, 전민국당상무집행부위원장, 현 국회의원), 공모 서상일(徐相日, 민국당상무집행부위원장) · 김성규(金性圭, 안동약방주, 민국당원), 공모협미 노기용(盧企容, 민국당상무집행위원, 현 국회의원) · 정용환(鄭容煥, 민국당상무집행위원, 김태주의 처남), 최양옥(崔養玉, 인천소년형

54) 『동아일보』(1952.8.26), 「전피고심리일단락! 문제는 물수건의 비밀」.

무소장) 등이 중요한 피의자로 밝혔다.⁵⁵⁾

6·25전쟁 2주년기념석상에서 발생한 이대통령 저격사건은 계엄사령부로부터 부산지검에 이송되어 지난 8월 6일 기소된 바 있거니와 이에 대한 첫 공판이 8월 22일 오전 9시 50분부터 부산지방법원 4호법정에서 개정케 되었는데 바 동재판은 부산지법원장 김용식, 재판장 강안희·김영세 두 판사배석, 김달기 검찰관 입회하에 김시현(국회의원), 유시태(민국당원), 최양옥(전 인천형무소장), 서상일(민국당원), 백남훈(민국당원), 김익진(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최태현, 정용환, 방주혁, 노기용, 전성규, 유희공 등 12명이 출정한 가운데 재판장의 개정으로 열렸다. 당시 재판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명이 출정한 가운데 재판장의 개정선언으로 개정하자, 즉시 유시태의 발언요청이 있었으나 재판장은 이를 취하하고 인정심문한 후 전달기 검찰관의 기소문낭독이 있는 다음 기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성취하였는데 살인예비 살인미수 안녕질서에 관한 범위반협의를 가진 김시현 피고는 「안녕질서에 관한 법」의 위반될 혐의는 없다"고 말하였고 살인예비의 혐의자인 최양옥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살인미수방조와 계엄범무허가집회위반의 혐의자 서상일씨는 살인미수방조한 일 없다고 부인하였고 무허가집회 위반사건(국제구락부사건)은 이미 기소유예결정을 내렸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재심리할 필요없다고 말하였다(『경향신문』 1952년 8월 24일 「불발탄인 줄 알고 쏘다 피고 김시현이 진술」).

55) 『경향신문』(1952.7.5), 「의원 빨리 출석하오 이내무부장관기자회견담」.

위의 내용과 같이 선생은 살인예비의 혐의가 없다고 부인하였다. 1952년 8월 26일 대통령저격사건의 제3회 오전공판은 피고 김익진과 선생에 대한 사실심문으로 끝마쳤는데, 인천소년형무소장이었던 선생은 김시현의 암살계획을 믿고하고 했으니 살인미수방해면 방해지 방조란 말이 안 되는 기소혐의죄명이라고 진술하였다. 제3회 오후공판은 1시 40분부터 개정되어 증거조사와 변호인측으로 증인신청과 증거품신청이 있었다. 선생은 박춘개와 장석윤을 신청했다.⁵⁶⁾

선생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시현은 대정 10년(1921)때 대구감옥에서 알았고 유시태는 사건발생 때까지 몰랐다. 김성규는 그 집에서 소개받고 술을 마실 때 김시현이가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우물쭈물하고 말았다. 좀 더 그의 불평내용을 알아 가지고 수사기관에 밀고해 주기 위해 김씨의 집에 갔다. 그랬더니 김시현은 “정복벗고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없느냐”고 하면서 대통령 살해 얘기를 하고 “권총을 샀다”는 말까지 그는 말하고 있었다. “5월 1일 메이데이 의사당에 이박사가 나올 터이니 그 때 하자”는 말도 하기에 그 말을 들은 후 약 1주일간은 혁명선배를 믿고 할까 말까에 대해 몹시 고민했다. 그러다 그 후 정보수사과에 밀고했다. 1월 하순에는 전 장내무장관이 불러 집에까지 방문하였었다. “증거가 불확실하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라”고 하면서 “인천서 부산형무소 근무운동을 청탁하면서 알아보라”고 하여 김시현을 만났다. 그는 만나는 즉시로 “너를 만나면 때려죽이려 했다. 왜 함부로 주둥이를 놀

56) 『경향신문』(1952.8.27), 「오후공판」.

렸나”하면서 술 취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5월 30일 김시현이가 찾아와 펍 공포를 느꼈다. 그는 “군대를 한 대대 병력을 동원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하기에 “경무대 경찰은 움직여 보았나”하고 반문하였다. 내가 살인 방해면 몰라도 살인방조란 말이 안 된다(『경향신문』 1952년 8월 26일 「최양옥피고심문」).

선생은 장석윤 전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가운데 살인방조자라는 누명에 억울해하듯 호소하였다. 결국 선생은 1952년 9월 17일 무죄판결을 받고 보석 결정이 있어 출감하였다. 이때 선생은 인천으로 돌아가 인천소년형무소장직을 그만두고 처자와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대통령저격사건 공소심이 1953년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회공판으로 들어가 이날 피고 김시현과 피고 선생의 불구속에 대한 사실심리가 있었는데 선생은 “가족은 5명. 재산은 전무. 학력은 서울중동중학교 2년 중퇴. 일제시 20년 복역, 김시현은 광주형무소에서 알았다. 유시태는 이번사건으로 법정에서 보았다”고 하였다.⁵⁷⁾

1953년 4월 6일 대통령저격사건 제2심 언도공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10:45~12:00까지 진행되었다. 재판장 김종규(金宗奎)와 판사 정영조(鄭永祚)·권오규(權五奎) 배석, 검사 주운화(朱雲化) 입회로 개정된 공판에서 재판장은 김시현과 유시태에게 사형을, 서상일과 백남훈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김성규, 방주혁, 노기용, 김익진, 최태현, 그리고 선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⁵⁸⁾

57) 『경향신문』(1953.1.12), 「최김양피고심리」.

58) 『경향신문』(1953.4.8), 「김시현·유시태에 사형」.

이후 1953년 9월 3일 피고 전원에게 유죄구형이 있었던 이대통령 저격사건 언도 공판은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개정되어 김용식(金龍式) 재판장으로부터 김시현과 유시영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서상일·백남훈·김성규 등에 대해서는 각기 징역 6년·3년·7년, 최태현 등 세 피고인해 대해서는 30만원으로부터 10만원 사이의 벌금형, 최양옥·노기용·김익진·방주혁 등 4명은 무죄의 판결이 언도되었다.⁵⁹⁾

1954년 1월 30일 이대통령에 대한 저격사건에 대한 대법원 제3심판결공판이 1시에 김대법원장실에서 대검찰청 김윤수(金潤壽) 검사 입회하에 개정되어 재판관들 합의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렸다. 피고인 김시현·유시영 두 피고만을 유죄로 판정하여 사형, 선생은 무죄로 단정하였다. 서상일과 백남훈 피고인은 「계엄법」에 의한 무허가집회로 인하여 유죄의 판정이 내려 각각 징역 6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언도되었다. 그리고 김성규·최태현·방주혁·김익진·노기용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대통령저격사건에 대한 판결은 종막을 고했다.⁶⁰⁾

3. 정계 재진출

① 민정당 가입과 군정연장반대투쟁위원회 지도위원

선생은 이대통령암살미수사건에 휘말려 직장과 정계를 떠난 지 10년이 지난

59) 『동아일보』(1952.9.16), 「어제 이대통령 저격사건 언도」.

60) 『동아일보』(1954.1.31), 「이심판결을 채택 대통령저격사건 어제 삼심판결」.

1963년에는 민정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민정당은 군정세력에 반대하는 범야 집결체를 목표로 1963년 6월에 발족하여 1965년 5월까지 존속하였던 정당이다. 1963년 1월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될 여당에 대결하기 위한 단일정당 형성운동으로 윤보선(尹潽善)과 김병로(金炳魯) 등을 중심으로 구신민당·구자유당·구민주당·무소속 등 4개 정파연합의 단일야당 형성공작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들은 1963년 1월 27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군정 당국의 실정을 비난하고 민정이양에 관한 공약의 실천을 요구하는 한편, 온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발기취지문을 선언하였다. 그 뒤 창당 과정에서 지구당의 조직을 에워싸고 구신민당계와 비신민당계간의 알력이 있어 정식으로 발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선생이 속해 있는 민정당 경기도제1지구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3년 3월 22일 오후 3시부터 시내 인현동 1번지 소재 자매다방 2층에 소재하고 있는 민정당 경기도제1구당 사무실에서는 동당 당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군정연장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투쟁위원장에는 하상훈씨가 선출되었고 지도위원에는 양재박·이열현 그리고 선생 3명이 선정되었다.⁶¹⁾

1963년 4월 20일 민정당 경기도제2지구당결성대회가 인천노동회관에서 대의원 139명 가운데 104명이 참석하여 시종 혼란 속에 4시간 만에 대회를 마쳤다. 이때 선생은 위원장직을 얻기 위한 대의원 포섭에 부정사실이 있다고 판단, 그 진상을 규명한 후에 선거에 임하자고 주장하였다. 의장단에서 이를 반대하자 의장단 중의 한 사람이었던 선생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퇴장을 선언했다. 이때 따르던 대의원 29명도 함께 퇴장했다.

이러한 진통 속에 5월 14일 출범한 보수야당 민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적

61) 『경향신문』(1963.3.23), 「군정연장반대 투쟁위원회 결성」.

정권교체 실현을 기본노선으로 삼고 대표최고위원에 김병로, 대통령 후보에 윤보선을 선출했다. 윤보선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으나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에게 15만여 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그 여세를 몰아 6대국회의 제1야당이 되고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야당공동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단일야당 창당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1964년 11월 26일 자유민주당을 흡수, 통합한 데 이어 제2야당인 민주당과 합당, 1965년 5월 3일 제3공화국 출범 후 최초의 통합야당인 민중당(民衆黨)을 출범시켰다.



민정당 창당대회 모습(1963.5.14)

② 신한당 가입과 인천을지구 조직책

1963년 3월 22일 오후 3시부터 시내 인현동 1번지 소재 자매다방 2층에 소재하고 있는 민정당 경기도제1구당 사무실에서는 동당 당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군정연장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투쟁위원장에는 하상훈씨가 선출되었고 선생은 지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민정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중당을 출범시키자, 이곳을 탈퇴하고 이번에는 신한당에 등지를 틀게 된다. 1966년 3월 17일 신한당(가칭) 창당운영위는 제1차 각지구당조직책 79명을 확정, 임명하고 인천을지구에는 선생을 조직책으로 임명하

였다.⁶²⁾

이 신한당은 1966년 3월 30일 '선명야당(鮮明野黨)'의 기치를 들고 창당하였다가 1967년 2월 7일 민중당(民衆黨)과 통합하여 '신민당(新民黨)'을 창당함으로써 자동 해체된 정당이다.

1966년 10월 24일자 『경향신문』에는 제6대 대통령 선거를 7개월 앞두고 확정된 후보 3인의 목소리를 전했다.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민중당은 유진오 박사, 신한당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후 야당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다시 '단일화'에 성공하며 정권교체 꿈을 키웠다. 1967년 2월 민중당과 신한당은 통합전당대회를 열고 양당통합을 만장일치로 선언하며 당명을 신민당으로 결정한 뒤, 당헌과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윤보선 전 대통령, 대표위원에 유진오 고려대 전 총장을 추대했다. 그러나 1967년 5월 3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는 40.9% 득표에 그쳐 51.4%를 얻은 박정희 대통령에 패배하였다. 1971년 4월 27일 선거에서도 신민당 김대중 후보 역시 박정희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이후 신민당은 유진산-김홍일-유진산-김영삼-이철승-김영삼 대표위원들이 이어가며 대어투쟁을 전개하다가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되었다.

③ 민주회복국민회의 가입과 고문

1975년 3월 7일 민주회복국민회의 인천시지부가 7일 오전 11시 40분 인천시 화평동 덕성반점에서 결성되었는데, 선생은 김진두(전신민당인천시당부위원장) 조철

62) 『동아일보』(1966.3.17), 「지구당조직책 신한당 79명 발표」

구(의사)와 함께 고문에 위촉되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11월 27일 민주화운동의 결집을 위해 발족시킨 조직이다. 민청학련사건 이후 활발해진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결집하기 위해 1974년 11월 27일 이병린, 함석헌, 천관우, 김홍일, 강원룡, 이희승, 이태영의 7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야인사 71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발족시키고, 「민주회복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현행 헌법은 최단시일 안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 민주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반정부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역·구속·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신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발족되었다. 1974년 12월 25일 서울 YMCA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범민주진영의 연대기구로서 비정치적이며 정치활동이 아닌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자주, 평화, 양심'을 행동강령으로, '민주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윤보선·백낙준·이인·정구영·이희승·김홍일·유진오·김재준·김수환·이정규·윤제술·정일형·강신명·정화암·정석해·진헌식·홍익표·김대중 등을 고문으로, 윤희중(상임대표), 함석헌, 이병린, 강원룡, 천관우, 김정한, 이태영, 김영삼, 양일동, 김철 등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홍성우·함세웅(대변인)·한승헌·김병걸·김정례 등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그 외 지속적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1975년 3월 초까지 7개 시도지부와 20개 시군지부를 결성했다. 국민회의의 결성에는 재야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던 민주수호협의회가 큰 역할을 했으나 김영삼·양일동 등 야당 총재들이 참여함에 따라 재야와 야당이 함께하는 반유신운동단체로의 성격을 보였다.

4. 나는 모국의 스파이였다고 고백한 전 내무부장관 장석윤

선생과 동향인으로 선생이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범정에 출석까지 하며 무죄를 인정해준 장석윤 전 내무부장관의 '조국사랑 황성사랑'을 『선데이서울』(제1권 제7호, 1968년 11월 3일)에 실린 기사를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 밖에 없는 개인 임업장을 사재를 털어 꾸며놓은 전 내무부장관(제6대) 장석윤(張錫潤)(65)옹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미군에 협조한 국제 '스파이'였다. 그는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을 어기고 김종원(전 치안국장)씨의 기용을 거부한 경무대의 반항투사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10만 공무원 대신 10만 그루의 나무를 호령하는 나무장관이 되었다.

① 동남아 휩쓸던 청년 시절, 이젠 10만 그루 나무 호령(號令)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마산리 15번지 3만 5천 평의 땅에 1백 50종의 나무를 질서정연하게 심어놓고 하루 4시간씩 잠자면서 10만 그루의 각종 나무를 돌보는 장석윤(張錫潤)옹. 그는 횡성군 갑천면(현 청일면) 유평리에서 태어나 서울 제일고보(경기고교 전신)를



밴더빌트대학 전경

졸업한 뒤 1923년 미국으로 건너가 테네시(Tennessee)주 밴더빌트대학(Vanderbilt University)을 졸업했다. 유색인종 박해 속에서 갖은 고생을 겪으며 장웅은 이승만(李承晩) 박사와 함께 교민생활 지도를 해오던 중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당시 미국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 부인과 친교가 두터웠던 이승만 박사의 소개로 비밀리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직한 COI(OSS 및 CIA 전신) 제1기생으로 조직에 가담, 소정의 교육(스파이 교육)을 마친 장웅은 한국인으로서는 단신 미국 21명과 함께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시에 공수되어 첩보 활동에 나섰다.

② 2차대전 때 미의 COI 대원, '버마(현 미얀마)' 전투에 참가하여 활약해

히말라야산맥을 낀 버마(현 미얀마)전투에 참여한 장웅은 일본군 전선에 잠입, 정보를 수집하여 무전으로 미국 세넬(Bride R. Shenel) 장군에게 타전, 작전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또한 일본군 포로 신문, 포로수용소 안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 007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사선을 넘나드는 활동 속에서도 장웅은 이박사 김구(金九)주석 간의 비밀문서 연락을 맡아 「티베트」고원지대를 넘어 충칭(重慶)을 넘나들었으며 때에 따라 미군 장교와 일본군 장교 및 외교관 신분을 마음대로 붙이고 활동했다.

1945년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하지(John Reed Hodge) 장군과 함께 귀국한 장웅, 군정 당시 좌익계열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쳐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지 장군에게 건의해 왔으며 이승만 박사를 측근에서 도왔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며칠 전 1950년 6월 18일 당시 내무부장관 백성욱(白性郁)씨의 권유로 치안국장에 기용된 장웅은 서울이 괴뢰들의 발굽에 짓밟히던 날 노동자로 변장하여 가족을 서울에 둔

채 홀로 적정을 살피고 한강을 넘어 아군 진지로 탈출했다. 대전에 도착한 장웅은 일선 경찰 정보망을 통해 괴뢰군의 선발대 동태를 파악하여 육군에 정보를 제공, 큰 공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때의 에피소드로 당시 괴뢰군이 천안, 온양을 거쳐 공주 방면으로 대전을 침공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치안국장 장웅은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연락했으나 국방부장관은 허위정보라고 대발노발하며 정보제공자인 온양경찰서장을 총살하겠다고 으르렁거리다가 후에 정확한 정보임을 확인한 장관이 사과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치안국장 재직 30일만에 사표를 낸 후 1952년 1월 내무부장관에 발탁된 장웅은 국군이 당시 총부처장의 지프와 프란체스카(Francesca Donner Rhee, 이부란) 여사의 지프를 강제로 징발하였음을 폭로했고 국군 장병들의 가슴에 명찰을 달도록 권유, 실행케 했음을 회고하면서 부산 정치파동 때 장면(張勉) 총리의 사표를 직접 받아 오기도 했다는 장웅의 회고담.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행했으며,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하는 산파 역할도 맡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무부장관 때 거창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온 김종원(金宗元)씨의 경무관 기용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이나 명을 받은 장웅은 매번 공무원 자격문제를 들고 거절했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과신한다고 대통령의 약점을 밝히는 장웅은 그래도 대통령을 부모와 같이 섬겼다면 미국에서의 인연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뒤 국도신문(國都新聞)사 사장을 역임했고 3대 국회의원으로 고향 횡성군에서 당선된 무소속 민의원으로서 자유당의 만행을 보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로 말 못하는 병어리 국회의원으로 생애에 오명을 남겼다는 장웅이었다. 그래서 4대에는 자유당 공천 국회의원으로 역시 병어리 의원을 지냈다는 장웅은 3년 뒤쯤 나올 자서전을 통해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고 버르고 있었다.

4·19혁명 후 고향에 내려온 장웅은 당시의 마산리 15번지 3만 5천 평을 구입하

여 자신이 밥을 지어먹고 빨래를 하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 태기산(泰岐山)의 정목 등 1백 50종 10만 그루의 나무를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나무와 씨름하면서 찾아드는 농민들에게 일일이 접목·진지 방법을 비롯하여 이식재배와 시비방법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각종 수목이 자연스럽게 꽉 들어찬 장용의 임업장에는 멀리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의 관광객들이 찾아들 뿐 아니라 인근 각급학교 어린이들의 소풍터로 알려졌고 심지어 미군들까지 찾아와 놀다 가는데 하루 보통 1백여 명의 구경꾼이 오고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 방문하였다.

③ 잣나무 4년 만에 결실케, 산림 물려줄 젊은이 찾아

임업과 목축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고된 줄을 모르고 일한다는 장용은 지난 해 목초로는 최고의 영양가를 지녔다는 ‘코리언·레이스·패스자’라는 풀을 발견하여 재배하고 있다.

이 풀은 30년 전 미국 선교사가 개성지방에서 채취하여 본국에 보냄으로써 영양가가 제일 많은 목초로 밝혀져 현재 미국에서는 목초지의 20%가 이 풀을 재배하



옛 임업장(마산리 보숲 안에 위치한 대화제약 정문과 도로 옆 갖가지 나무로 우거진 보숲) 전경

고 있으며 자꾸 번지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당시 아직 풀의 이름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옹은 앞으로 임업장에 5백 종의 수목을 더 심고 농림학원을 세워 자신이 직접 후배 양성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5~2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잣나무들이 장옹의 임업장에서는 불과 4년 만에 잣이 달리도록 비배관리 및 이식재배 기술을 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넓은 초원과 하늘이 안보이는 숲길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한다. 임업장은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젊은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장옹의 가족으로는 부인과 딸 셋이 있었다.

5. 고향에 내려와 못 다한 효 실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 저격사건에 휘말려 고생을 하다가 인천소년형무소 소장직을 그만두고 잠시 공직과 정계를 떠나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정계에서 고문으로 이름은 올라 있었으나 연세가 고령인 탓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하다가 부모님과 형제들, 처자들에게 소홀히 했던 선생은 1980년에 선친이 묻혀있는 황성군 갑천면 전촌리로 처와 함께 내려왔다.

선산에 묻혀있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매일 집 앞의 선산 즉 직선거리로 230m 거리에 있는 산을 지팡이 짚고 늘 오가며 혼신을 다해 못 다 한 효를 실천하였다. 때로는 전촌 저수지에 낚시를 드리우며 보내기도 하고 동지들과 기념사업에 참석하거나 옛 동지인 이선구의 묘소를 찾는 등의 활동을 하며 보내다가 1983년 6월 14일(음력 5월 4일) 91세를 일기로 격동의 생애를 마쳤다.



갑천면 전촌리 전경과 최재건·양옥 부자가 묻혀 있는 선산 모습(2016)

선생은 국립묘지보다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 산 164번지에 묻히기를 희망하였다. 지금 선생은 전촌리의 낮은 야산 선친의 묘소 아래 남향의 양지바른 곳에 안장되어 조국의 발전된 앞날을 기원하고 있다.



선친(최재건)과 선생의 묘(2016)

1982년 8월 박순엽(당시 횡성초등학교 교사, 현 횡성문화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이 광복된 훗날 매년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던 횡성 3·1공원 느티나무 밑을 찾아 순국한 동지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였다.”⁶³⁾

63) 박순엽, 『강원일보』(2003.7.1), 「횡성독립운동가 최양옥지사(강원의 인물·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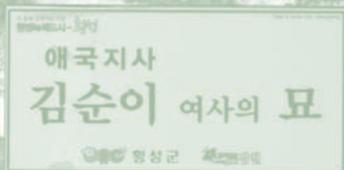
독립운동할 당시에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일제와 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선생에게는 후세에 남기기 위한 기록이나 자료가 별로 없다. 그것은 오직 항일 그 자체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생은 국내 또는 이역 만주에서 독립운동으로 15년간의 옥살이를 증명하듯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살다 간 애국지사이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일제의 잔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에 몸 바친 선생의 행적을 조명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을 빛내는 것은 후세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제 6 장 애국지사 김순이와의 만남

1. 횡성과의 인연
2. 슬픈 횡성 의병 소식
3. 애국지사 최양옥과의 운명적 만남
4.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애국지사
최양옥
5. 김순이 여사의 가족 이야기
6. 묻혀버릴 뻔한 김순이 여사의
독립운동 선양사업
7. 횡성군 3·1만세운동 도운
주모(酒母) 김순이 여사 묘소 단장
8. 강원을 빛낸 이달(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순이 여사





제6장 애국지사 김순이와의 만남⁶⁴⁾

1. 횡성과의 인연

나라 안팎은 어수선하고 국력이 소진하여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어려운 시절인 1879년 5월 15일 김순이 여사는 경주 서부리 김해김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19세가 되던 1898년 10월



횡성을 옥동리 쪽에서 본 한치고개

64) 『횡성문화』 통권 제27호 「애국지사 김순이 삶 고찰」 (박순엽, 2012, 22-29쪽)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19일 안흥면 안흥리 박영화씨와 결혼하면서⁶⁵⁾ 횡성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안흥에서 횡성 옥동리와 구방리로 거처를 옮기며 어려운 생활이 이어졌다. 그래서 생계수단도 되고 뜻한 바도 있어 횡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경계인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경영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 한치고개를 고개 위에 마을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마당재고개 또는 장현(長峴)⁶⁶⁾ 이라고 불렀다.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에서 옥동리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한 고개이다. 응달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고개가 높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대치(大峙)'로 부르기도 한다.

한치고개 밑에는 한치마을이 있다. 예전에 이 마을을 놓고 해마다 구방리 사람들과 중금리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해서 이기는 마을에 속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측량을 하면서 구방리에 속하게 된 이래로 지금까지 구방리에 속해 있다고 한다.

지도상에는 중금저수지로 표기된 저수지가 있는데, 중금리와 구방리 사람들은 한치저수지라고 한다.⁶⁷⁾

지금은 갑천, 청일, 서석을 통과하는 구룡령을 넘어 영동을 잇는 2차선 포장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한적한 무인지경의 오솔길로 사람들이 걸어서 이 길을 왕래하여 찾는 길손들이 꽤 있어 생계에는 지장이 없었다.

65) 김순이 여사 묘비명.

66) 정운기(1935년 음력 2월 24일생)의 증언.

67)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지명).

2. 슬픈 황성 의병 소식

일본의 계획에 의하여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황성에서도 권대문, 박성묵, 홍재구 등이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5년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활동은 더욱 거세지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황성에서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원용팔이 있었는데,⁶⁸⁾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하기까지 일제에 항거했다.

주춧돌이었던 의병활동은 1907년 조선군 강제해산과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폐위를 당하는 비극으로 인해 의병활동이 더 거세졌다.⁶⁹⁾

황성면 범주리 최인순과 문암리 한상렬이 의병을 모집하여 목숨 바쳐 일본군에 저항하였다. 원주진위대 출신 민근호 의병장은 강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 전사



강림의병총(좌)과 금대리의병총(우)

68) 원용팔은 원주의 배신으로 원주의 궁곡[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서 체포되었다. 동지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원용팔이 체포된 곳에 대해서는 『황성신문』과 『회당집』 「여원서암서(與元愬庵書)」, 『동고록(同苦錄)」, 『송운행적(松雲行蹟)」, 『매천야록』 등에는 황성에서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활동한 동료 박정수의 『의사원용팔을사의병사(義士元容八乙已義兵史)』에는 원주 궁곡을 지나 이튿날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69) 『황성군지』(2011), 885쪽.

하였다. 그때의 흔적인 강림의병총이 그때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서원면 금대리에도 무연고 의병총이 있어 황성에서의 치열했던 의병활동을 증명해주고 있다. 주막을 운영하면서 길손에게서 조금씩 들은 의병활동 소식들은 김순이 여사에게도 슬픔과 걱정으로 다가왔다.

3. 애국지사 최양옥과의 운명적 만남

지금은 황성댐으로 인하여 수몰되었지만 갑천면 화전리에 최양옥 지사가 살고 있었다. 물에 잠긴 화전리, 구방리, 부동리, 중금리는 김순이 여사가 사는 한치와 같은 생활권으로 이곳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려면 한치고개를 넘어야 했다.

최양옥 지사는 서울 중동중학교에 유학하던 중 3·1운동을 맞이하였다. 선각



황성 3·1운동 기념비

자로서 나라를 걱정하던 최양옥 지사는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인 횡성으로 내려와 횡성4·1만세운동에 앞장섰다.

고향에 온 최양옥 지사는 오고가는 길목인 한치고개의 김순이 여사가 운영하는 주막을 자주 찾게 되었다. 희생되는 의병 소식에 가슴 아파 애국심이 싹트던 여사는 지사를 만날 때마다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부소식을 들으며 애국운동에 동화되어 갔다. 빼앗긴 나라를 찾는 일에 몸을 던지려는 지사를 적극 도우려고 여사도 결심을 하였다.⁷⁰⁾

오스한 곳에 위치한 주막은 횡성4·1만세운동의 모의 장소를 제공하였고 어렵게 푼푼이 벌은 돈의 일부는 지사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쓰기로 하였다.

나라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제와 싸우고자 하는 지사의 뜻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양옥 지사는 천도교 지도자, 청년회 지도자, 감리교 지도자 등 동지들과 함께 횡성장날 횡성군민4·1만세운동을 치밀하게 준비해 갔다. 4·1만세운동 당일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하영현 의사는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고 뒤늦게 밝혀진 매일리의 김치정도 그 날 순국하였다(제자 신건수의 증언). 그리고 많은 지사가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고 태형을 당했던 1919년 4월 1일 횡성장날 만세운동은 김순이 여사도 빠질 수가 없었다. 총소리에 놀라 숨어드는 군중을 규합 독려하며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이는 애국지사 최양옥을 만남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70) 『동아일보』 1990년 2월 28일자 「횡성을 3·1만세운동 도운 주모(酒母) 김순이(金順伊) 여사 묘소 단장」이라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김씨는 30대에 남편과 사별한 후 남매를 키우면서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차려 생계를 꾸려갔다. 김씨는 6척 거구에 힘 또한 웅만한 장정보다 세 주민들 사이에 ‘황소 아줌마’로 불렸다. 김씨가 3·1운동과 관련을 맺은 것은 1919년 3월 초 독립선언서를 휴대, 이 지역에 독립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김씨의 주막을 찾아든 천도교신자 이채일씨를 만나면서 비롯됐다. 이씨는 김씨의 편의로 주막 뒷방에서 이 지역 천도교신자와 지식인 등과 비밀리에 만나 횡성 만세운동을 의논했다.” 이처럼 『동아일보』에서는 김순이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로 이채일씨를 들고 있다.

4.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애국지사 최양옥

1919년 4월 1일 횡성장날에 거행된 만세운동에서 동지들이 총탄에 쓰러진 아수라장에서 최양옥 지사도 그 옆에 죽은 척 누워 있다가 야음을 틈타 빠져나왔다. 그러나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상안리 처가에서 체포되어 압송도중 다시 탈출하였다. 이후 도합 15년간 옥고를 치르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한편, 많은 매를 맞고 풀러나온 김순이 여사는 일제의 감시로 생업에 종사하기도 힘들었으며, 그 후 최양옥 지사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지금은 수몰된 화성초등학교 교문 앞 수방상회 터에서 1952년 12월 19일까지 살다가 73세에 한 많은 생을 마쳤다.



김여사가 살던 집터
(수몰된 화성초등학교 교문 앞 수방상회 터로 사진 정 중앙부근)

5. 김순이 여사의 가족 이야기

『황성군지』 등의 모든 자료에는 자손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남매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만이로 태어난 아들은 박태옥씨로 결혼도 하지 않고 모친이 작고한 후 홀로 계속 구방리에 살다가 70년대 말 원주지역에 있는 양로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같은 마을에 살았던 구방리 주민들이 말하고 있다.

둘째로 태어난 딸은 박덕원씨로 13세에 황성군 황성읍 학곡리 임씨 가문으로 출가하였고 외증손자 임채호(62세)가 현재 읍하3리에 살고 있다.

임채호씨에 의하면, “할머니의 오빠 박치옥씨가 생전에 가끔 다녀갔으며, 할머니도 외증조할머니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었다”고 말했다.⁷¹⁾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불행을 넘어 파멸로 이어졌으니 일찍 남편을 여윈 여사는 어려웠던 시절 남매 양육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순이 여사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은 이웃 사람들도 몰랐다고 하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자랑이 아니라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당시 천시하던 주막운영, 어려운 형편 등의 이유로 딸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71) 임채호씨 증언(2012년 11월 17일).

6. 묻혀버릴 뻔한 김순이 여사의 독립운동 선양사업

김순이 여사의 독립운동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1972년 당시 춘천교육대학 조동걸 교수가 저술한 『황성과 3·1운동』에서 당시 관련 생존자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황성군 옥동리 한치고개에서 술을 팔던 여자 황소아짐마(황소갈보)도 술판에서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한다”⁷²⁾고 기술되어 있다.



붕분마저 허물어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김순이 여사 묘소
(김여사묘소성역화추진위원들이 김여사의 묘소를 확인한 후
이전을 논의하는 모습, 『동아일보』 1990.2.28)

광복 후에도 김순이 여사는 자기의 만세운동에 대해 입을 다물어 이웃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며, 오히려 알려질까 걱정을 했을 것이다. 6·25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952년 12월 19일 세상을 뜨자 마을 사람들의 울력으로 구방리 공동묘지에 장사된 다음 잊혀져 버렸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1990년 부동리 정연덕씨(전 황성군 농업협동조합장)와 이복군씨(전 군의원)에 의해 선양사업 건의가 황성군청에 전달되어 1990년 4월 27일 공동묘지에서 한치저수지 앞 오르막길 옆에 옮겨⁷³⁾ 높은 뜻을 기리고 있다.

72) 조동걸, 1972, 『황성과 31운동』, 현대인쇄문화사.

73) 구방리 이복군씨 증언(2012년 10월 2일).

한편, 당시 막상 이장을 하려 하였지만 묘를 찾을 길 없었다. 당시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당시 참여했던 지창선씨(구방리, 작고) 등의 증언으로 묘를 찾아 옮길 수 있었으니 그 때 시기를 놓쳤으면 영원히 잊혀질 뻔했다고 당시 이 사업의 주무 사회계장이던 고 김윤수씨가 생전에 증언하였다.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 묘소는 망향의 동산, 호숫길 5구간 가기전 한치고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한치저수지 앞 국도에 접한 곳에 단장되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황성 관내 각급 학생들의 열 선양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접근성이 좋아 많은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외증손자 임채호씨도 가족과 가끔 성묘를 간다고 하였다. 황성 여성단체의 하나인 예림회에서는 해마다 묘소를 찾아 헌다례(獻茶禮)를 하고 있다.

7. 황성군 3·1만세운동 도운 주모(酒母) 김순이 여사 묘소 단장

(『동아일보』 1990년 2월 28일)

황성군 3·1만세운동 도운 '주모' 김순이 여사 묘소 단장
주막 열어 독립투사 뒷바라지
군 예산 6백만원 책정 주민들 모금운동

1919년 3월 12일부터 20일 동안 계속된 강원도 황성읍 만세운동에 주막 뒷방을 거사 논의장소로 제공하고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름없는 한 주모의 묘소를 성역화할 움직임이 주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황성군민들은 1919년 황성군 갑천면 중금리 속칭 한치고개 마루턱에서 주막을

하며 3·1운동에 기여한 김순이씨(당시 41세)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정연덕씨(62 갑천면 부동리) 등 지역유지 10여 명으로 지난해 7월 「김순이 여사 묘소 성역화작업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의 묘역

이 추진위는 지난해 말 김 여사 묘소의 성역화작업을 군에 건의, 군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서는 올 예산에 성역화 1단계 사업비로 6백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도 커 윤만복씨(52, 삼척군 농산물검사소 소장)가 옛주막터 뒤편 밭 1천 5백 평을 성역화작업부지로 기증했고 홍기선씨(37 여, 황성읍 읍하리)가 20만원, 김인희씨(38 여, 황성읍 읍하리)가 5만원을 각각 회사하는 등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인 김씨는 1878년 10월 15일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1898년 10월 강원도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 박영화씨와 결혼, 황성에서 살았다. 김씨는 30대에 남편과 사별한 후 남매를 키우면서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차려 생계를 꾸려갔다. 김씨는 6척 거구에 힘 또한 웅만한 장정보다 세 주민들 사이에 ‘황소 아줌마’로 불렸다.

김씨가 3·1운동과 관련을 맺은 것은 1919년 3월 초 독립선언서를 휴대, 이 지역에 독립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김씨의 주막을 찾아든 천도교신자 이채일씨를 만나면서 비롯됐다. 이씨는 김씨의 편의로 주막 뒷방에서 이 지역 천도교신자와 지식인 등과 비밀리에 만나 황성 만세운동을 의논했다.

당시 횡성을 지역에 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난 것은 3월 12일, 그날 읍내장터에 독립선언서가 뿌러지면서 시작된 항쟁은 다음달 7일까지 약 20일간 계속됐다.

1986년 발간된 『횡성군지』에는 김씨가 당시 장터부근에서 일본경찰의 총소리에 놀란 남자들이 부근 술집으로 들어가 숨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남자들을 위협, 시위현장으로 내몰았다고 기록돼 있다. 김씨는 이같은 활동 때문에 일본경찰에 체포돼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김씨는 풀려난 뒤에도 자신의 주막에서 번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헌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1952년 74세로 숨진 김씨의 묘는 현재 갑천면 구방2리 공동묘지 산32에 봉분도 제대로 없이 흔적만 남아 있다. 김씨의 남매는 생사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추진위는 김씨의 묘가 공동묘지에 있어 비석이나 상석을 세우기 어려워 성역화할 장소를 물색중인데 옛 주막터 등이 거론되고 있다.

8. 강원을 빛낸 이달(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순이 여사

- 횡성 만세운동 선봉에 섰던 황소이춤마

(『강원일보』 2013년 4월 1일 6면)

자신이 운영하는 주막을 독립투사들의 모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4·1 횡성 만세운동을 이끈 ‘황소이춤마’ 김순이 여사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김순이 여사는 1919년 4월 1일 횡성장터에서 1,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이고 일경 주재소 등 일본 시설을 파괴했다. 만세운동 당시 일경의 총소리에 놀라 숨는 군중을 규합하고 독려하는 등 선봉에 섰다. 당시 교통의 요지인 횡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경계인 한치고개에 위치한 주막에 최양옥 애국지사 등 독립운

동가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이들로부터 안타까운 독립운동 소식을 듣고는 가슴 아파했던 김순이 여사는 애국지사들에게 모의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4·1 만세운동 자금 모금에도 협력했다.

4·1 만세운동으로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하영현 애국지사는 일제의 총탄에 맞아 순국했고 강만형 의사는 옥중에서 순국했으며, 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돼 옥고를 치르고 태형을 당했다. 김순이 여사도 투옥돼 고초를 치른 것으로 전해지지만 정확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옥고를 치른 이후 평범하게 살다가 1952년 12월 19일 숨을 거뒀으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 황성군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이후 김순이 여사의 공훈을 알고 있던 일부 인사의 건의로 황성군은 1990년 당시 김 여사가 주막을 운영하던 한치저수지 인근 지금의 장소로 여사의 묘를 옮겼다.

김순이 여사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조동걸 춘천교대 교수가 1972년 발간한 『황성과 3·1운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다. 만세운동을 함께 했던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김 여사의 업적이 이 책에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나마 선양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춘천보훈지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황성군의 지원을 받아 예림회 황성지회에서 선양 사업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지원이 끊긴 상황”이라며 “잊혀 가는 김순이 여사의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제 7 장

애국지사 최양옥 · 김순이 여사의 유적 탐방

1. 극일(克日)을 위한 최양옥의 독립운동 고찰
2. 한치고개와 주막
3.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 묘역
4. 망향의 동산 내 화성 옛터 전시관
5. 애국지사 최양옥 선생 공덕비와 묘소
6. 횡성호 속의 유적 답사





제7장 애국지사 최양옥 · 김순이 여사의 유적 탐방

1. 극일(克日)을 위한 최양옥의 독립운동 고찰

2016년 9월 23일 오전 9시 필자를 비롯하여 횡성문화원 원장, 이사 9명과 직원들이 문화원 문화사랑방에 모였다. 먼저 오늘 답사에 앞서 박순업 원장님으로부터 「극일(克日)을 위한 최양옥의 독립



박순업 원장님의 특강 모습

운동 고찰」에 관한 특강을 먼저 듣게 되었다.

특강 자체가 기존의 연구 내용이나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과 새삼 달랐다. 횡성에서 그리고 횡성인만이 할 수 있는 강의였다. 최양옥 선생에 관한 일대기를 9개 주

제로 분류하여 말씀하셨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선생의 출생 및 신문학 수학으로 최양옥 선생은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하였고 부친 최재건과 모친 진주강씨 사이에서 4남4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특히 아버지 최재건은 법부 주사를 지낸 양반이었다. 서울에서 관료생활을 했으므로 선생도 아버지에게서 신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원주에서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에 서울중동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선생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과고다공원에 가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그 후 곧바로 중퇴를 하고 낙향하였다. 그리고 황성4·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 ② 독립운동 일람으로 서울 3·1운동 참여, 황성4·1만세운동 주도, 국내에서 독립군 자금 모금활동, 만주 망명 공명단 조직, 항일 향토사 인멸에 따른 황성의 향토사 발굴의 필요성, 일본 우편 수송차량 습격, 황성을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게 된 배경 등에 대한 내용을 피력했다.
- ③ 4·1만세운동에 대하여 황성만세운동 개요, 만세운동 주도, 사지에서의 탈출, 순국 및 수형인물에 대해 말씀하셨다. 특히 4·1만세운동 때 현 황성군청 옆 느티나무 밑에 죽은 척했다가 야음의 소원한 틈을 타서 안흥면 상안리(당시 상안흥리 641번지 배나무골) 처남인 안경춘(일명 안승훈, 당시 20세)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안경춘이 체포(뒤에 8개월형 받음)되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연고지에 배치된 일경에게 체포되어 압송되어 가던 중 추동리 주막에 이르러 “목이 마르니 막걸리 한 사발 먹고 가자”하면서 선생을 옆에 세워 놓고 막걸리를 마실 때 “이때다” 생각하고 수갑을 찬 채로 일경의 칼(집)을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일경들은 선생이 얼마나 빠르니 포기하고 “칼집이라도 두고 가라”고 소리쳤으나 아랑곳 않고 용둔·정금리 방

향으로 달리다가 친구집에 들어가 친구 아버지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친구 아버지는 난색을 표하며 “옛날 같으면 삼족이 멸하네. 도와줄 수 없네”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선생은 훗날 “그때 참 씩씩했다”고 하며,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거나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같은 동포, 가까운 이웃도 일제의 선전에 동화되어 마치 범죄자처럼 보고 질시하는 일부가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던 것”이라고 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어찌든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양옥 선생은 만세운동 후 탈출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일제에 기록물이 없으므로 정황은 확실하지만 문서기록에 의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날 만세운동은 최대 규모로 펼쳐져 하영현,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강만형(3·27 만세운동, 서대문감옥에서 순직) 등 5명이 일본군의 총탄에 숨지고 20여 명이 중상을 입거나 옥고를 치렀다. 수형자는 천선재(1년), 정해경(1년 6개월), 김성서(1년 6개월), 조상열(8개월), 김운신(8개월), 전성수(8개월), 김운배(8개월), 김연의(김순서, 8개월) 등이었다.

- ④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활동으로, 독립운동단체 가입, 전남에서 독립군자금 모금, 상해임시정부 송금, 체포되어 7년 형 만기출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선생은 대동단에 가입하여 신덕영, 노형규 등과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1920년 11월 동지들과 함께 담양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7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6년 출옥하여 집에 와 보니 부친은 수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집안은 엉망이었다. “독립운동을 할만큼 하였으니 이제 집안을 일으켜 세워 달라”는 가족들의 간곡한 하소연과 일경의 회유 속에 몇 개월 동안 집안일을 돌볼 즈음에 만주에서 “동지가 꼭 필요하니 빨리 와 달라”는 연락을 접하게 되자, 허리춤을 잡는 가족들의 눈물어린 만류를 뿌리치고 낯선 이국땅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⑤ 국외 독립운동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 공명단 설립 단장 피선, 군자금 모금, 우편물 수송 차량 습격, 10년 형 만기출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히 만주로 망명하여 공명단을 설립하고 단장에 피선되어 군자금과 비행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내에 잠입했다. 만국박람회를 폭파하여 일제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려 하였으나 경비가 삼엄하여 포기하고 일제의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던 중 지금의 남양주 마석고개에서 우편물·현금수송 차량 등 차량 4대를 습격하다가 체포되어 10년형을 받고 만기출소 하였던 것이다.

⑥ 황성 4·1만세운동 증언자인 박순기 어르신은 황성 반곡리 출생, 4·1만세운동 목격, 당시 황성읍 재무서기, 4·1만세운동 순국자 처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박순기 어른의 나이는 최양옥 선생과 비슷하였다고 하니, 당시 26세 정도였을 것이다. 4·1만세운동 당시 하영현과 강달회 시신은 둔둔리 사람들이 모시고 갔지만 나머지 시신이 방치되어 있자, 박순기 어르신이 광목을 끊어다 시신을 처리하는 등 뒷수습했다고 한다.



4·1만세운동 증언자인 박순기 어르신 생전의 모습

⑦ 광복 이후 최양옥 선생의 삶으로, 서울 경성형무소(구 서대문형무소) 서무과장, 인천소년형무소장, 끈질긴 인연 형무소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1929년 우편물 차량습격 사건을 변호하였고 광복 후 같은 당인 한국민주당의 총무를 맡다가 정부수립 이후 법무장관이 된 이인(李仁)의 배려로 경성형무소 서무과장을 지냈고 6개월 후인 1949년에는 인천소년형무소 소장을 지내다가 6·25

전쟁을 맞이했고 1952년 형무소장을 그만 두었다. 일제강점기에 대동단원으로 5년형, 대한독립공명단원으로 10년형 등 15년을 형무소에서 보냈던 선생은 광복 후 경성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약 5년동안 형무소에 근무하였다. 이에 최양옥 선생은 약 20년을 형무소에서 근무한 셈이 되어 형무소하고 끈질긴 인연을 보였다.

⑧ 고향정착으로, 황성군 갑천면 전촌리 2반에 정착하였다. 생전에 못한 효도를 하기 위해 1980년대 초 선친이 묻혀있는 전촌리로 내려와 선산 뒤편(당시 전촌리 316번지)에 광복 이후에 재혼한 아내와 살면서 생전에 못다 한 효도라도 하기 위해 선친



선생이 선친의 묘에 부인, 세 아들과 함께 상석을 설치하고 찍은 사진(박순업 문화원장 찍음)

의 묘소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아들 셋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보훈처에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 드리고 싶은 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하자, “나에게 말이나 한 필 사주면 좋겠다”고 하여 말을 한 필 선물 받았다.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아들들이 말을 팔고 오토바이를 사 주었다고 하였다. 어쨌든 선생은 젊었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신 것이다.

⑨ 독립운동 예화로, 사지에서 탈출, 딸의 죽음, 출옥·망명·독립운동으로, 현 군청 옆 느티나무 옆에서 죽은 척 하다가 안흥면 상안리(당시 상안흥리) 처남댁으로 피했다가 며칠 후 잠복한 경찰에 체포되어 압송되던 중 추동리에서 수

갑을 찬 채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선생은 대동단 단원으로 전남에서 독립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 받고 5년 복역하고 출소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대한공명단 단장으로 피선 활동하다가 독립자금과 비행학교 설립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하여 우편수송차를 습격하게 되었다. 이때 선생을 체포하려고 한창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일경이 양동에 갓시집을 간 딸의 집에 잠복하였다. 딸이 집안에 들어오는 일경을 제지하다 높은 뜰 아래로 밀쳐져 척추가 부러졌고 그로 인해 1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다가 숨을 거두었다. 옥중에서 딸의 비보를 듣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이후 광복될 때까지 오직 독립운동에만 전념하였던 것이다.

2. 한치고개와 주막

특강을 마친 후 일행은 승합차와 승용차 두 대에 분승하여 최양옥 지사와 김순이 여사의 유적을 찾아 떠났다.

시내 중심가 회전교차로를 지나 두 애국지사가 횡성군민들과 만세를 외치던 시장을 지나 19번 도로를 따라 서석 방향으로 달렸다.

날씨는 따스하고 길가에 군데군데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옛 흥취를 자아내게 하였다. 개전리를 지나 10여 분 정도 왔을 때 옥동 4거리에 도착했다. 이 옥동 4거리를 보자 6·25전쟁 때 우리 국군 제5사단과 제3사단의 북한군과 중공군과의 격전이 생각났다.

이곳은 제5사단 35연대가 북한군과 악전고투 끝에 적의 1개 중대 규모를 물리친 곳이기도 하다. 북쪽으로 보이는 국사봉에서도 북한군을 물리치고 점령을 하였다.

이후 투입된 제3사단 22연대와 18연대가 이곳 옥동리 주변과 국사봉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곳 옥동 4거리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생각하며 2.5km 정도 고개를 오르자 황성읍과 갑천면의 경계인 한치고개가 보였다.



황성읍과 갑천면의 경계인 한치고개
(주막은 도로 좌측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

9시 58분, 문화원에서 출발한지 13분(7km 정도)이 지나 한치고개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하차하여 원장님으로부터 “당시 이곳에서 김순이 여사가 주막을 운영하였고 은밀히 독립지사들을 도왔는데, 특히 최양옥 지사에게 독립자금도 후원해주었고 독립사상도 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김순이 여사(당시에는 황소갈보 또는 황소 아줌마로 불림)가 이곳에서 주막을 하게 된 계기는 3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 이 고개 이름은 한치마을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과거에는 마당재마을 이름을 따서 마당재고개 또는 장현(場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길이 넓지 않고 수레가 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었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지명)에 의하면 한치(寒峙)고개에 얽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 중금리에서 옥동리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한 고개이다. 응달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고개가 높아서 붙여진 이

름으로 '대치(大峙)'로 부르기도 한다. 한치고개 밑에는 한치마을이 있다. 예전에 이 마을을 놓고 해마다 구방리 사람들과 중금리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해서 이기는 마을에 속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측량을 하면서 구방리에 속하게 된 이래로 지금까지 구방리에 속해 있다고 한다. 지도 상에는 중금저수지로 표기된 저수지가 있는데 중금리와 구방리 사람들은 한치저수지라고 한다.

3.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 묘역

한치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을 1.5km 내려가자 도로 오른쪽에는 중금저수지가 보였고 왼쪽에는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의 묘역이 있었다.

1972년 당시 춘천교육대학 조동걸 교수가 지은 『황성과 3·1운동』에서

“황성군 옥동리 한치고개에서 술을 팔던 여자 황소아짐마(황소갈보)도 술판에서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다, 당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여사의 업적이 드러났다. 1986년 발간된 『황성군지』에는 “김씨가 당시 장터부근



애국지사 김순이 여사의 묘역

에서 일본경찰의 총소리에 놀란 남자들이 부근 술집으로 들어가 숨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남자들을 위협, 시위현장으로 내몰았다”고 기록돼 있다. 김씨는 이 같은 활동 때문에 일본경찰에 체포돼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도 한다.

횡성군민들은 1919년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한치고개 마루턱에서 주막을 하며 4·1만세운동에 기여한 김순이씨(당시 41세)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정연덕씨(당시 62세, 갑천면 부동리) 등 지역유지 10여 명으로 1989년 7월에 「김순이 여사 묘소 성역화작업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추진위는 1989년 말 김여사 묘소의 성역화작업을 군에 건의하여 군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횡성군에서는 1990년 예산에 성역화 1단계 사업비로 6백만 원을 책정하였고 윤만복씨(당시 52세, 삼척군 농산물검사소 소장)가 옛 주막터 뒤편 밭 1천 5백평을 성역화작업부지로 기증했으며, 홍기선씨(당시 37세 여성, 횡성읍 읍하리)가 20만원, 김인희씨(당시 38세 여성, 횡성읍 읍하리)가 5만 원을 각각 회사하는 등 성금이 계속 담지되어 오늘의 이 여사의 묘소가 단장된 것이다.

묘역에는 상석, 장명등과 두 개의 망주석이 서 있으며, 묘비도 세워져 있다. 이 묘비를 통해 이 묘 주인공의 일대기를 알 수 있다.

묘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국지사 김순이여사 묘비문

여사께서는 1878년 10월 15일 경주읍 서부리 김해김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1898년 10월 19일 안흥면 안흥리에서 박영화씨와 결혼하여 횡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구방리를 거점으로 가난과 세파에 시달리면서 애국의 일념으로 생활하시다가 1952년 12월 19일 한 많은 삶을 마쳤다.

기골이 장대한 여사(일명 황소갈보)께서는 뜻한 바가 있어 당시 천대받던 주막을 경영하면서 푼푼이 받은 돈으로 애국지사인 갑천면 화전리 최양옥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우셨고 자금 모금에도 협력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3·1운동 시에는 자신의 주막을 모의장소로 제공하여 하영현,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강만형 의사가 순국하시고 많은 지사가 투옥되었던 4월 1일 황성장날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일경에 쫓겨 장터 술집에 숨어든 동지들을 규합 군중을 진두지휘하다 투옥됨으로써 황성3·1독립만세운동을 성취시킨 전설적인 여인이다.

자손은 절손되고 난중에 소실된 기록을 챙기는 후사가 없어 찬연한 공적에도 보훈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서 실묘의 지경에 이르니 실로 애석함을 금할 길 없던 바 다행히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국민의 뜻이 있어 이곳에 안장하고 여사의 드높은 애국의 뜻을 기리며, 후세에 귀감을 삼고자 이 비를 세우노라

1990년 4월 27일

황성군민 일동

김순이 여사는 1878년 10월 15일 경주읍 서부리 김해김씨 문중에서 태어났다. 21살에 안흥에 사는 박영화씨와 결혼하였지만 가정이 어려워 주막을 하게 되었다. ‘황소갈보’라고 천시는 받았지만 애국지사들을 위하여 자금모금에 협력하였으며, 4·1독립만세를 지휘한 인물이었다. 김 여사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뒤에도 자신의 주막에서 번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헌납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형성문화원 이사 일행의 김순이 여사 묘 앞에서의 기념과 묘역

지난 1952년 74세의 일기로 숨진 김씨의 묘는 갑천면 구방2리 공동묘지 산32에 봉분도 제대로 없이 흔적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자손은 절손되었다고 하지만 문화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딸이 열서너 살 되어 임씨에게 시집을 갔고 외손자가 당시 이장할 때 참여했으며, 현재 외증손자가 읍내에 살면서 명절에는 참배도 하고 간다”고 말씀하였다.

김순이 여사는 2013년 3월 「강원을 빛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어 강원도민의 주목을 받으며 기려지고 있다.



애국지사김순이여사묘비문 후면

4. 망향의 동산 내 화성 옛터 전시관



화성의 옛터 전시관

10시 10분 김순이 여사 묘소를 출발하여 4분 정도 거리 (1.7km)에 있는 화성의 옛터 전시관에 도착하였다. 이곳 갑천면에 있는 화성의 옛터 전시관은 구방리 옛 화성초등학교 옆 야산 망향의 동산 내에 있다. 이곳에는 횡성의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옛날 우



전시관 앞에서 김순이 여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한중기 기념관 근무자(좌) · 정운기 어른(중) 박순업 문화원장(우) 모습

리 부모님들께서 소박하게 살았던 모습을 꾸며놓았고 옛 농기구, 가재도구들, 오래된 목기와 물레, 낡은 이발기와 흑백TV,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며 가슴을 파고든 풍금 등을 전시해 놓았다. 특히 횡성댐을 만들기 위해 수몰되었던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이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어릴 때 김순이 여사를 보아 온 정운기(1935년 음력 2월 24일생, 만 81세) 어른, 기념관에서 근무자하는 한중기(1939년 음력 4월 4일생, 77세) 어른을 만났다. 이 어르신네들과 박순업 원장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려서 보고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김순이 여사가 마당재에서 주목을 하면서 3·1만세운동 당시 최양옥에게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뒷바라지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범접도 못했지만 최양옥 선생과는 가깝게 지냈다. 김순이 여사는 당시 황소갈보 또는 황소할머니로 불렸으며, 체격이 크고 골격이 장군 체격 같았고 눈이 큰데다가 한 번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면 아주 무서웠다. 자녀는 1남 1녀가 있었는데, 아들 박태옥은 첫 번째 부인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부인과 살았다. 그 부인은 네 명의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세 아들은 수몰되기 전에 떠났고 맏이인 조진명은 댐공사로 수몰된다고 할 때 떠났다.

3·1운동 당시 김순이 여사는 왜경[日警]이 말을 타고 다니며 제지하자 말의 뒷다리를 잡아채서 쓰러뜨리기도 했다고 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보면 온 동네 집을 내집처럼 사용했는데, 들어가 누우면 내집이고 내방이었다.

딸은 열 서너 살 때 학곡리 임씨에게 시집을 갔으나 사돈이나 사위가 천하게 보았는지 발길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딸이 김순이 여사 집에 온 것을 본적 없다. 외손자는 연락이 되어 공동묘지에서 이장할

때도 왔고 읍내에 살고 있는 외증손자가 명절 때면 지금도 묘소를 찾는다.

1990년 당시 묘소를 이장할 때 공동묘지에 묻힌 김 여사의 묘소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도 당시 생존자 중에서 직접 장사에 참여했던 조원철(1935년생, 7·8년전 사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조씨가 같은 마을의 박재수, 김용복 등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서 공동묘지에 있는 묘소를 찾았던 것이다.

세분의 어른들과 약 30분 대화를 나눈 후 주위를 보니,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두 개의 탑[쌍탑]이었다. 육안으로 보아도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석탑 같은데, 어찌 이곳에서 있는지 궁금하여 안내문을 읽어 보았다. 이곳 탑은 중금리 삼층석탑이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9호이고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에 소재하고 있다.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탑들의 원래 위치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갑천면 중금리 탑둔지의 옛 절터였으나, 횡성담 건설로 인해 탑이 물에 잠기게 되자 1998년 8월 이곳으로 옮겨왔다.

하층 기단 각 면의 양쪽에 모서리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버팀기둥을 1개씩 두었다. 상층기단도 같은 구조이나, 각 면에 불교의 법을 지킨다는 2구씩의 팔부중상(八部衆像)을 돌을새김으로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모든 층의 몸돌에는 별다른 무늬없이 양쪽에 모서리기둥만 두었다. 지붕돌 받침은 5단을 두었는데, 윗면 경사가 완만하고 추녀선은 수평이며 네 모서리에서 살짝 들려 있다. 상륜부(탑의 맨 위에 놓인 장식)는 노반부재(탑의 각 부분에 쓰인 재료)만 남아 있다. 특히 상륜부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러

한 양식은 매우 드문 예이다.

강원도에서 쌍탑은 원주시 치악산의 상원사에 있고 팔부중상이 새겨져 있는 탑으로는 양양군 진전사 3층석탑(국보 122호)과 선림원지 3층석탑(보물 444호)이 있다. 신라 석탑 양식을 충실히 이어받은 석탑으로, 균형이 잘 잡힌 우수한 작품이다. 건립시기는 팔부중상의 조각 수법, 기단부와 지붕돌 등의 형식으로 볼 때, 9세기말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5m이다.”

라고 안내판에 쓰여 있다.



화성의 옛터 전시관과 중금리 3층석탑

이곳에서 일행은 정운기와 한중기 어른들로부터 주변의 마을 이야기를 들었고 김순이 여사가 살던 집터 위치도 알려 주었다. 특히 동북 방향 도로 건너편 먼 곳을 가리키며, 공동묘지의 위치도 알려 주었다. 최양옥 선생이 태어난 화전리도 물에 잠겨 있는데, 반대편 펜션단지가 화전리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어 그곳이 화전리를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었다.

5. 애국지사 최양옥 선생 공덕비와 묘소

화성의 옛 터 기념관에서 11시에 최양옥 선생 공적비 및 묘소를 향해 출발했다.

푸른 하늘에 뭉개구름이 뭉실뭉실 떠다니는 전형적인 가을날씨에 길가엔 코스모스가 싱싱 달리는 차들에게 손짓이라도 하듯 하늘



갑천면 길가의 코스모스와 황금들녘

거리며, 들녘에는 누른 벼가 따스한 햇살에 눈이라고 부신 듯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길손에게 겸손한 인사라도 건네는 듯하다. 깨끗한 갑천면내의 청정로매일길을 지나는데 문자 그대로 면내가 너무 깨끗하였다. 방앗간도 새롭게 갈아입었고 식당과 카페도, 정육점이나 편의점도 모두 새롭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갑천면사무소를 가리키는 안내판도 특이하거니와 안내판 위에 귀엽게 올라앉은 흰토끼는 앙증맞기까지 하였다.

11시 25분에 어답산(789m) 아래 전촌리에 들어왔고 곧바로 애국지사최양옥선생공적비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공적비 쪽을 향하여 우회전할 때 도착한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는 어른들이 계셨다.

마을에 사시던 분으로 어릴 때 최양옥 선생을 만난 적이 있으며, 당시 생활하는 모습도 보아왔다는 조덕진 어르신(1936년 11월 12일생)과 황순철(1942년 양력 12월 3일생) 어르신이다.



지팡이를 짚고 선친이 묻힌 선산을 오르내리던 생전의 선생 모습
(1982년, 박순업 황성문화원장 제공)

두 어르신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양욱 어르신은 아내와 붉은 색 기와집에 살았다. 당시 연세(90세 전후)가 많으셨고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 산소를 늘 오갔으며, “아버지 산소 반대편 언덕에다 정자를 짓고 싶다”고 하면서 “이번에 올라가면 준비해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어느 날 인천으로 올라간 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언제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였지만 떨어진 다음에는 아들이 말을 팔고 오토바이를 사 주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1년에 3~4차례 세 아들이 다녀가기도 하였고 앞집의 20살 아래인 유영선씨와 친하게 지내며 교류하였다”고 하였다.

한평생 조국의 독립에만 전념했던 선생이 남은 생애 못 다한 효도라도 하기 위해 이곳 전촌리 선산에 묻혀 있는 아버지를 찾아 와서 약 3년 남짓 머물렀던 것이다.



최양욱 선생이 살던 집(1982)과 집터에서 본 앞으막한 선산(선생과 부친이 잠들어 있는 곳)

우리 일행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공적비를 살펴보았다. 1992년 11월에 세운 비로,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한설 교수가 글을 짓고 횡성군민이 정성을 모아 세운 비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애국지사최양욱선생공적비

선생의 자는 길준이요 호는 추강이니 본관은 강릉이다.

1893년 음력 12월 5일에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부친 최재건공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17년 2월에 강원(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3월에 서울의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청년들을 규합한 뒤 천도교인들과 함께 횡성의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왜경들의 발포로

사상자가 나고 검거가 시작되므로 선생은 이를 피하여 상경한 후 본격적인 독립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1920년 7월에 선생은 서울 소격동에서 신덕영, 노형규 등과 부한청년회를 조직한 후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전남의 담양 곡성 등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로 보냈는데 이해 11월 5일에 동지 노기준 등과 함께 왜경에게 체포되어 다음해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애국지사최양옥선생공적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에 출감하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산서성 태원부에서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이 용필 등과 공명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는데 1927년에 북만주에 독립군 비행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그 기금모집과 공명단 지부 설치를 목적으로 1929년 4월에 서울에 잠입하였다. 선생은 동지 김정련 이선구와 함께 동월 20일 서울근교 망우리에서 춘천으로 왕래하는 일제 우편수송차 등을 권총으로 습격하여 왜인의 우편물을 소각하고 많은 금품을 압수한 후 천마산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이 급보를 받은 일제는 경기 강원 황해 충북 충남 5도의 경찰과 왜군 19사단병력을 동원하여 천마산을 포위하니 선생일행은 이

들을 상대로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며 1주야를 악전고투하였으나 탄환이 떨어지고 기진맥진하여 왜경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을 거쳐 9월 20일 선생은 10년, 김정련은 8년, 이선구는 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는데,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하고 선생은 만기출옥하였다. 광복 후 선생은 서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인천형무소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1983년 음력 5월 4일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구국활동에 대하여 1962년 3월 1일에 건국공로훈장 수여하였고 1967년 2월 28일에는 건국훈장국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1990년 1월 13일에는 건국훈장독립장으로 승격하여 선생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이제 황성군민일동은 선생의 애국정신과 구국활동을 만세에 기리고 국민의 사표로 삼고자하여 이 비를 세운다.

단기 4325년 임신 11월 20일 문학박사 박한설 지음

황성군민일동 세움

이어서 최양옥 선생의 묘소를 행하였다. 수십 계단을 올라가서야 묘소가 보였다. 묘 앞에는 상석과 두 개의 망주석 그리고 묘비가 서 있었다. 상석에는 건국애국지사 '강릉최



최양옥 지사의 묘역

공양옥[배경주김씨정덕(靜德)지묘]라고 쓰여 있었다.

이 묘비는 1984년 4월 15일에 세웠으며, 아들 돈용(墩用), 돈수(墩壽), 돈진(墩辰) 삼형제가 세웠다. 이곳 묘비에도 공적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애국지사강릉최공양옥지묘

지사(志士)는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하시어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에 입학하시어 1917년 동교(同校)를 졸업하셨고 동년(同年) 3월에 서울중동중학교(中東中學校)에 입학하시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民族精神)과 항일사상(抗日思想)이 투철한 지사는 독립투쟁(獨立鬪爭)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가시어 동지(同志)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天道敎人)들과



애국지사강릉최공양옥지묘

합세(合勢)하여 동월 11일 횡성읍 장날에 만세시위 운동을 전개하셨다. 그 후 지사는 일경(日警)의 추적을 피하여 갖은 고생을 겪다가 상경(上京)한 후 만주(滿洲)에서 이동녕(李

東寧)·박은식(朴殷植)으로부터 군자금모집(軍資金募集)의 지령(指令)을 받고 서울에 와서 표면상으로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창립하던 신덕영(申德永)을 만나 1920년 7월 서울 소격동(昭格洞) 신덕영의 집에서 신덕영·노형규(盧衡奎) 등과 부한청년단(扶韓靑年團)을 조직하였고 지사는 농림주식회사(農林株式會社)의 주식 모집원(募集員)으로 가장하고 전남(全南) 각지(各地)에서 많은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여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로 보내었다. 지사는 다시 신덕영(申德永), 노기준(盧基準)과 같이 전남 담양군(潭陽郡) 및 곡성군(谷城郡)에서 군자금 모금에 진력(進力)하던 중 동년 11월 5일 노기준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광주(光州)로 가던 도중에 일경(日警)에게 피체되어 1921년 5월 7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 출감(出監)하였다. 출감 후 귀향(歸鄉)하여 부친은 4개월 전에 별세(別世)하였고 가족들은 사망으로 흩어져서 형편은 말할 수 없었으나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몸을 바친 지사는 불고(不顧)가사하고 고국(故國)을 떠나 만주(滿洲)로 망명하여 중국(中國) 산서성(山西城) 태원부(太原府)에서 안창남(安昌南)·이용화(李容華)·김정연(金正連) 등 여러 동지(同志)와 더불어 공명단(共鳴團)을 조직한 후 단장(團長)에 피선되었다. 1927년 안창남·신덕영·김정련 등과 북만(北滿)에서 독립군(獨立軍) 비행사(飛行士)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학교(飛行學校) 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모집과 서울에 공명단지부(共鳴團支部)를 설치(設置)하고자 김정련(金正連)·이선구(李善九) 등과 같이 1929년 4월 서울에 잠입하여 첫 번째 행동으로 동월 20일 지사는 김정련·이선구와 함께 서울교외 망우리(忘憂里)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가는 일우편물수송차(日郵便物輸送車)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정치사켰다. 그리고 지사의 일행은 차 속에 실었던 우편낭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일인(日人)의 우편물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동포(同胞)의 우편물만 남겨두었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모조리 정지시킨 후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 속으로 끌고 가서 열좌시키니 70여 명이었다. 이같이 산 밖으로 정보(情報)가 새지 않게 한 후 지사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이어) 이 급보(急報)를 받은 일경(日警)은 경기·황해·강원·충북·충남 등 5도의 일경과 일군(日軍) 제19사단의 응원을 얻어 천마산·양주를 포위함에 지사의 일행은 이를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일주야(一晝夜)를 악전고투(惡戰苦鬪)하였으나 탄환은 떨어지고 배는 고과 세군력진하여 일경에게 포제되었다. 그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간의 예심을 거쳐 지사는 징역 10년의 언도를 받고 김정련은 징역 9년, 이선구는 징역 6년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病死)하고 지사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만기(滿期)출옥하였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서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인천형무소장에 승진(昇進)되어 근무하였다. 서기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을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받았다.

서기 1893년 음력 12월 5일생

서기 1983년 음력 5월 4일졸

아들[자] 돈용(墩用) 돈수(墩壽) 돈진(墩辰)

서기 1984년 4월 15일 건립

최양옥 선생의 묘소를 둘러보고 일행은 바로 위에 묻혀 있는 선생의 선친의 묘를 찾았다. ‘강릉최공행법부법률기초위원겸주사재건지묘(江陵崔公行法部法律起草委員兼主事在建之墓) 배안동권씨(配安東權氏)’라고 쓰여 있었다.

『승정원일기』 1902년(임인년) 8월 8일, 고종 39년 양력 9월 9일에 “최재건(崔在建)을 법부 법률기초위원에 임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1902년 당시 선생

의 아버지가 위의 관직에 임명될 때 나이가 5살이었으며, 이 때는 가족들이 아직 화전리에 살고 있을 때였다. 어찌하여 화전리 사람인데 선산이 이곳 전촌리에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지만 화전리에서 이곳 전촌리가



최양옥 선생의 선친 최재건 묘

지는 직선거리로 3km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생의 아버지가 이 산을 사서 선산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묘소 반대편에는 아들 양길의 묘도 있고 최병직(崔秉直)이라는 사람의 묘도 양길 묘 위에 있다.

선생이 바로 이곳에 묻혀있는 아버지를 그토록 찾고 또 찾았던 것이다. 이 묘소 뒤쪽으로 직선거리로 230m 지점에 선생이 살던 집이 있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생전에 못다 한 효성이라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묘소를 오갔다. 때로 세 아들이 내려올 때면 가족 모두가 함께 찾기도 하였다. 선생이 살았던 곳은 지금의 주소로는 외갑천로 347번지이며, 양옥집의 옆 마당 겸 밭이 집터이다.



북쪽 집터에서 선산의 묘소까지의 거리는 230m로 가까움

이렇게 최양옥선생의 공적비와 묘소, 그리고 선친의 묘를 둘러보고 내려왔다. 그



애국지사최양옥선생공적비에서 기념

리고 내려오면서 못 내 아쉬워 애국지사최양옥선생공적비 앞에서 모두 우리도 선생처럼 나라를 위하고 고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사진을 찍으면서 기념하고 유적답사 일정을 마쳤다.

6. 횡성호 속의 유적 답사

최양옥 선생과 김순이 여사의 유적의 답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의 배려로 배를 타고 선생의 유적을 답사하게 되었다. 소형선박 1척과 고무보트 1척에 분승하여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배를 타기 전에 본 횡성댐 규

모가 배를 타고 바라보는 규모가 훨씬 크게 느껴졌다. 이 횡성댐은 횡성군과 원주시의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건설(1999년 준공)되면서 중금리, 부동산, 화전리, 구방1리, 포동리 5개리 253세대 938명이 정든 고향을 떠났으며, 1946년에 개교한 화성초등학교는 1997년까지 17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52년간의 개교역사를 마감했다.



일행이 타고 횡성호를 누빈 보트와 소형선박 횡성호



수몰 되기 전의 화전리와 수몰 후의 화전리 펜션단지 전경

한편 배를 타고 가면서 동승한 분들이 여기는 무엇이고 저기는 무엇이고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지만 수몰되기 전의 지역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자신으로서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문화원장님이나 이사들께서 “이곳이 중금리이고 저곳이 부동리야”라고 하면서 알려준다. 한참 가서는 “저 펜션이 보이는 곳이 화전리인데 우

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화전리야”하면서 최양옥 선생이 태어난 곳을 강조한다.

저 멀리 화전리 언덕 위에 펜션단지가 줄지어 시야에 들어왔다. 화전리는 원래 큰 강줄기가 마을을 휘어 감고 흘러갔다. 따라서 강을 따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화전리의 강가 언덕에서는 짝개, 새끼개, 연모 등의 구석기시대 뼚석기가 발견되었고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조각, 고인돌, 집자리, 도랑유구, 원형구덩이 등도 화전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우수 깊은 곳기에 배를 타고 수몰된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등을 돌아보노라니 옛 모습이 사라진 것 자체가 너무 아쉽게 느껴졌다. 호수에서 본 저 언덕 위 망향의 동산이 더 쓸쓸하게 보이는 것도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최양옥 선생의 출생지가 없어서 그 향취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선생의 전촌리에서 말을 타던 모습, 오토바이를 타던 모습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를 오가던 모습을 호수 위에 비쳐본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성 그리고 내 고향 사랑 이 3가지를 91세까지 살면서 몸소 실천하여 ‘애국의 고장 횡성’을 온 누리에 알린 선생의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교훈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양옥 선생의 돌아가시기 1년 전의 모습
(1982년, 90세, 박순업 문화원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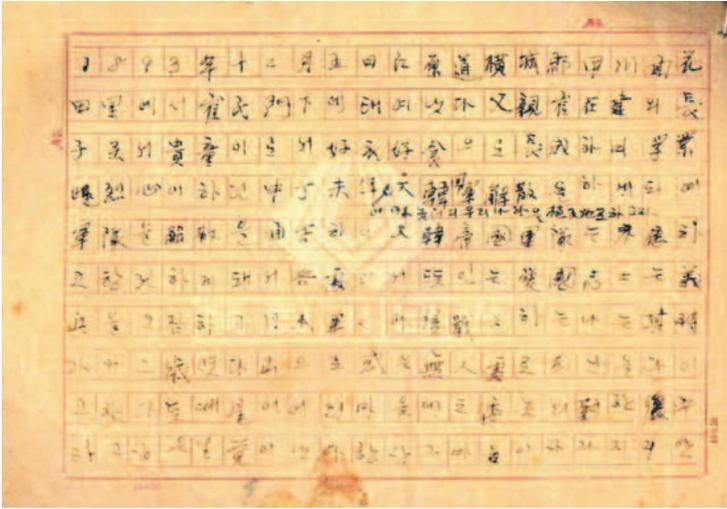
부 록

부록1 최양옥 선생의 수기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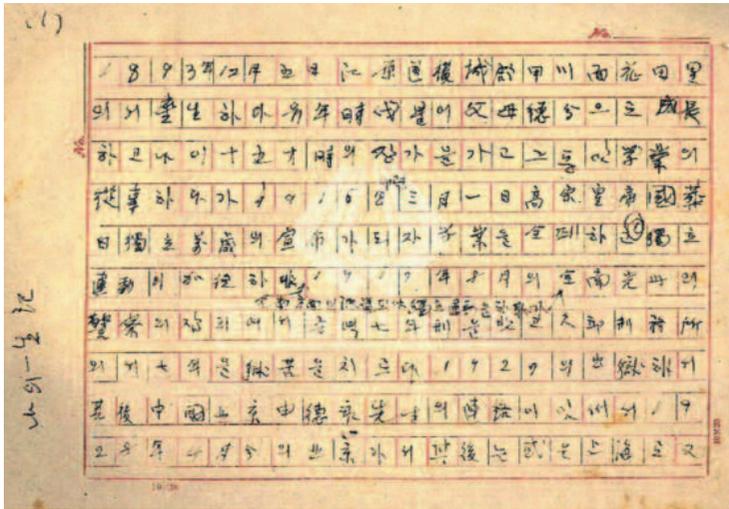
부록2 최양옥 선생의 연보

참고문헌

부록 1 | 최양옥 선생의 수기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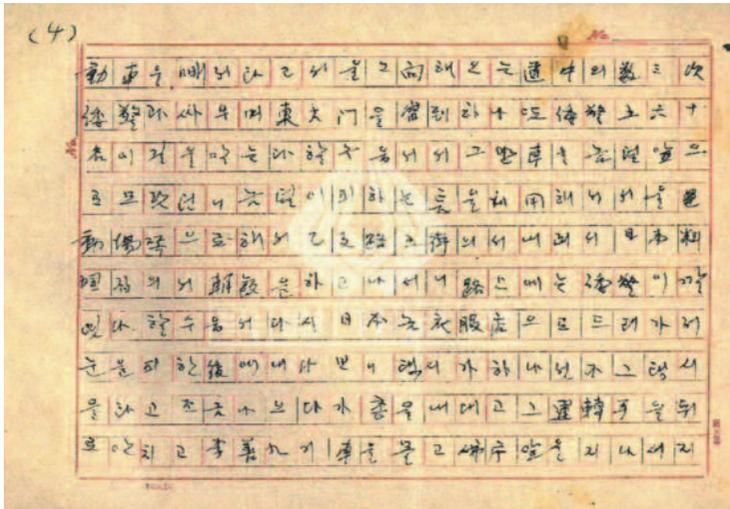
1893년 12월 5일에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최씨 문하에 태어났다. 부친 최재건의 장자로서 귀동으로서 호의호식으로 성장하여 학업을 열심히 하던 중 정미년에 일본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고자 대한국군 해산을 하게 되어 군대를 해산을 통고하여 대한제국 군대는 불응하고 항전하게 되서 각처에서 뜻있는 애국지사는 의병을 모집하고 일본군인과 접전을 하는 나는 그 때가 12세였다. 산으로 혹은 무인처로 피난을 다니고 했다. ○○○○ 어린마음에도 왜놈의 대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항상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하였다. 유년시대부터 부모 덕분으로 성장하고 나이 15세 때에 장가를 가고 그동안 학업에 종사하다가 1919년(본문에는 1916년으로 되어 있음) 3월 1일 고종황제 국장일 독립만세의 선포가 되자 학업을 전폐하고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1920년(본문에는 1917년이라 되어있음) 8월에 전남 광주의 경찰에 잡히어서 징역 7년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르다. 1927년 출옥해서 그 후 중국 북경 신덕영 선생의 연락이 있어서 1928년 4월경에 북경에 가서 그 후는 혹은 상해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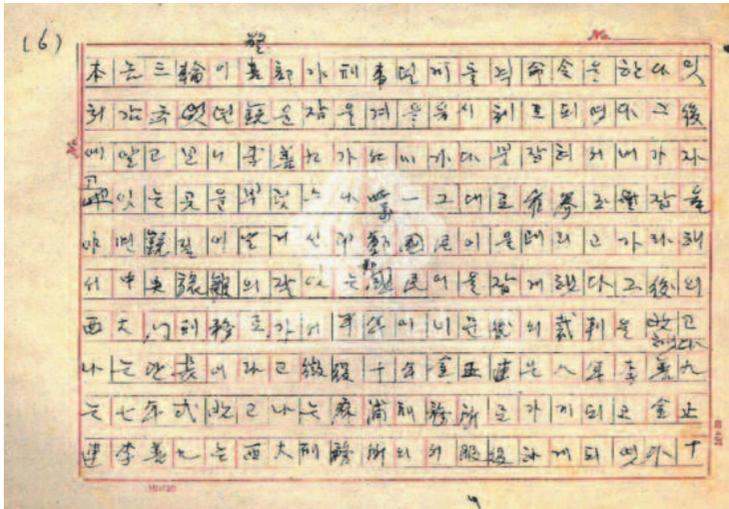
경춘간 왕래하는 우편자동차를 습격하기로 결정하고 나와 김정련 이 선구 삼인 동지가 경춘간 철마산 마치고개에서 춘천서 서울로 오는 자동차를 습격했다. 그리고 바로 자동차 한 대를 타고 서울 와서 은신 하려고 한 것이 동지일인이 잘못해서 차를 놓치고 산중에 은신했다가 왜경을 만나 산중에서 접전을 하다가 김정련 동지는 산중에서 잡히고 나와 이선구 동지는 산중에서 하루밤을 새고 그 다음날 양주군 덕소를 지나 망우리로 오다가 또 왜놈의 경찰을 만나 또 서로 접전하다가 망우리에서 다시 자



동차를 빼앗아 타고 서울로 향해 오는 도중에 수차 왜경과 싸우며 동대문을 당도하니 또 왜경 5·60명이 길을 막는다. 할 수 없어서 그만 차를 놔들 앞으로 몰았더니 놈들이 피하는 틈을 이용해서 서울운동장 쪽으로 해서 을지로5가에서 내려서 일본요리집에서 00을 하고 나서니 노상에는 왜경이 깔렸다. 할 수 없어서 다시 일본놈 의복점으로 들어가서 눈을 피한 후에 내려다보니 택시가 하나 섰다. 그 택시를 타고 조금 나오다가 총을 내대고 그 운전수를 뒤로 앉히고 이선구가 차를 몰고 부청앞을 지나서지



금 중앙청이다. 그 앞을 지나 바로 그 옆 북일여관에서 내리어 본즉 그
 운전수도 일본놈이었다. 할 수 없이 그 녀름 더러 경찰대에 고발하라고 한
 즉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갔다. 그 후에 알고 보니 과연 고발하지 않았
 다. 그 길로 하숙집에 가서 나는 그곳에서 자고 이선구는 인천으로 보
 냈다. 그 다음날 식전 일찍이 잠이 깨었다. 기침을 하노라니 문밖에서
 우리 동지인 정국민이가 와서 나를 부른다. 문을 막 열고 보니 일본놈
 의 경찰대가 전후좌우에 수 없이 섰고 기관총을 문 앞에 대놓고 형사
 대는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순간에



일본놈 삼륜 경부가 형사들에게 돌격명령을 한다. 미처 감추었던 총을
 잡을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이선구가 인천에 가
 다 붙잡혀서 내가 자고 있는 곳을 불었으나 만일 그대로 최양옥을 잡
 으려면 총질이 날 것인즉 정국민이를 데리고 가라해서 중앙여관에 잘
 있는 정국민이를 잡게 했다. 그 후에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반년이 넘은
 후에 재판을 했다. 나는 단장이라고 징역 10년, 김정련은 8년, 이선구
 는 7년씩 받고 나는 마포형무소를 가게 되고 김정련 이선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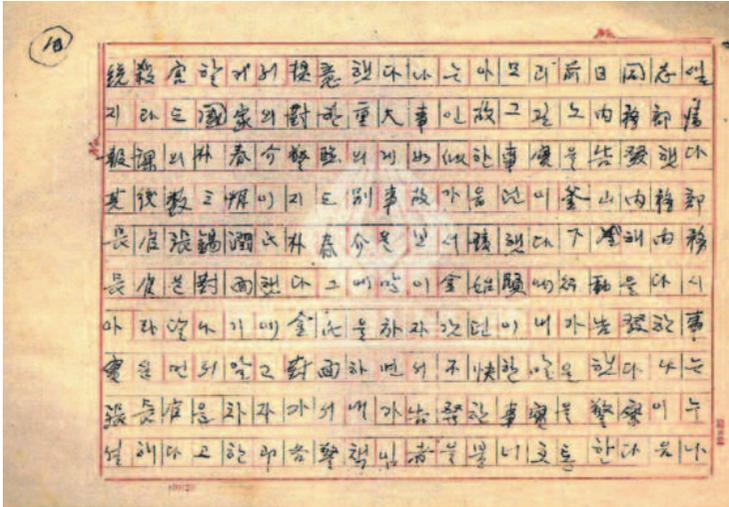
년이라는 장구한 시일 그 고통이라는 말은 입으로 다 할 수 없고 지필
 로 다 쓸 수 없다. 10년을 지나고 출옥하니 형제가 많다 해도 나에게
 는 처자도 누구 도움 없다. 그 길로 중국방면으로 갈려고 한즉 동지
 들이 말리며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할 때인즉 만
 류하면서 생활토대로 우마차 살돈을 충청북도 괴산군 노평에 거주하
 는 우순이라는 동지가 일화 2,500원을 주어서 마차 3대를 사서 그날
 부터는 마부가 돼서 종로를 횡행하며 그날그날을 보내면서 기회를 보
 노라니 8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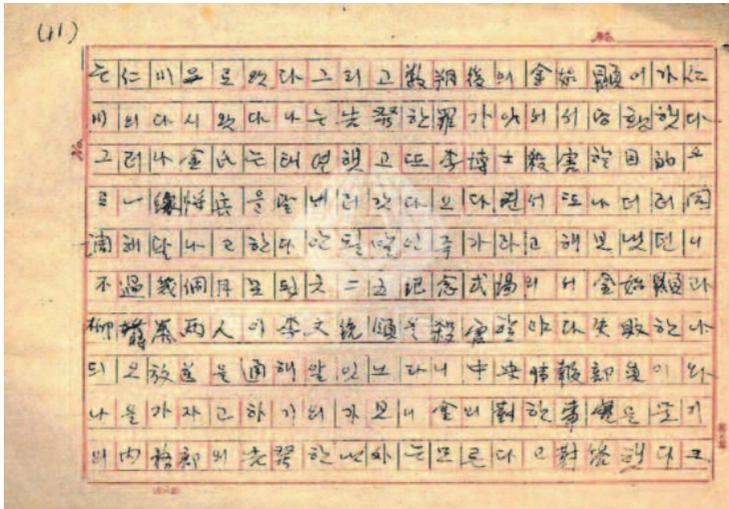
일이 되었다. 그날부터는 마부가 변해서 정헌00에 나섰다. 한국민주당에서 선전부 일을 보다가 졸지에 정부에서 부른다기에 중앙청에 출두한즉 이인씨 관방에 가리기에 간즉 그 즉석에서 서대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날로 서무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니 다시 인천소년형무소 발령을 받고 인천을 갔다. 소장으로 가고 보니 그 당시 각처 공산분자 죄수가 다수였다. 옥중 프락치가 많아서 그 중에 직원들도 공산분자가 죄수가 합세해서 소장과 각 과장을 살해하고 무기



를 빼서 탈출할터 책을 선지하고 그 프락치를 정리하고 나니 6·25가
 났다. 제1차적으로 죄수를 버리고 충남 당진방면으로 피난했다. 4개
 월 후에 9월 15일 인천에 상륙과 동시에 와서 집무하노라니 또 다시 1
 ·4후퇴를 하게 되었다. 경북 김천형무소에서 집무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부산형무소로 합했다. 4·5개월 후에 인천 본소를 수복했다. 근
 무 중에 부산 법무부에 연락차로 내려갔다. 법무부로 향해 가다가 전
 일 동지였던 김시현을 만났다. 그분이 다정하게 대하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승만대



통령 살해 할거라 제의했다. 나는 아무리 전일 동지일지라도 국가에
 대한 중대사인 고로 그 길로 내무부 정보과의 박춘분 경감에게 여사한
 사실을 고발했다. 그 후 수 삭이 지나도 별사고가 없더니 부산 내무
 부 장관 장석윤씨 박춘분을 000했다. 하부(下釜, 부산으로 내려감)
 해 내무부장관을 대면했다. 그의 말이 김시현의 행동을 다시 알아달
 라기에 김씨를 찾아갔더니 내가 고발한 사실을 먼저 알고 대면하면서
 불쾌한 말을 했다. 나는 장장관을 찾아가서 내가 고발한 사실을 경찰
 이 누설했다고 한즉 각 경찰 책임자를 불러 호통한다. 곧 나



는 인천으로 왔다. 수석 후에 김시현이가 인천에 다시 왔다. 나는 고 발한 죄가 있어서 당황했다. 그러나 김씨는 태연했고 또 이박사 살해 할 목적으로 일단 장병을 달래러 갔다온다면서 또 나더러 동조해달라고 한다. 안될 말인즉 가라고 해 보냈더니 불과 몇 개월 못된 6·25 기념식장에서 김시현과 유시태 양인이 이대통령을 살해하려다 실패하 라 디오방송을 통해 알았노라니 중앙정보부원이 와 나를 가자고 하기에 가보니 김에 대한 사실을 묻기에 내무부에 고발한 것 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



러나 김씨를 인천왔을 때 왜 잡아주지 않았냐고 동정하지 않았냐고 그것이 죄라고 그들 같이 형무소로 가서 3개월 간 고생하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출감하다. 인천에 돌아와서 형무소장도 그만두고 평민으로 처자와 함께 향락을 누리고 생활의 고난은 기뻐했다. 1962년(본문에 1961년이라 함) 3월 1일에 정부에서 독립의 공로가 있다고 해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그 후는 별다른 일 없다.

부록 2 | 최양옥 선생의 연보

1890~1910년대

- ▶ 1893년 12월 5일(음력)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하다.
- ▶ 1908년경(15세) 안씨와 결혼하다.
- ▶ 1913년(20세) 4월 원주보통학교 입학하다.
- ▶ 1917년(24세) 원주보통학교 졸업과 함께 서울 중동중학교 입학하다.
- ▶ 1919년(26세) 3월 1일 파고다공원 만세운동 참가하다.
- ▶ 같은 해 3·1운동 후 아버지 친구 신병선 집에 거주할 때 만주에서 돌아 온 그의 아들 신덕영에게 독립운동 참가 권유 받고 독립운동 참여 결정하다.
- ▶ 같은 해 낙향과 함께 황성4·1만세운동에 참여하다.
- ▶ 같은 해 음력 11월경 대동단의 조선지부 책임자 신덕영이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로 찾아오자, 대동단에 입단할 것을 약속하였다.

1920~1940년대

- ▶ 1920년(27세) 음력 4월 하순 선생은 '상경하라'는 신덕영의 편지를 받고 음력 5월 3일 상경하여 신덕영의 집에 동거하였다.
- ▶ 같은 해 7월경 신덕영은 선생을 비롯하여 노형규, 노석중 등과 자기 집에 모여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조직하였다.
- ▶ 같은 해 음력 8월 신덕영은 자신의 첩인 정수현으로 하여금 모의권총 2정을

입수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광주에 있는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 ▶ 1920년(27세) 음력 9월 21일에는 선생이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노석정과 함께 신대선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
- ▶ 같은 해 음력 9월 22일경에도 선생은 노석정과 함께 신유선의 안내를 받아 곡성군 겸면(兼面) 칠봉리(七峯里) 심상홍(沈相洪) 집에 가서 동인을 마을 앞의 작은 산으로 나오게 한 후 “우리는 광복단원인데 군자금 1,500원을 내라”고 요구하였다.
- ▶ 같은 해 9월 26일 선생은 단독으로 전남 광주에 내려가 이춘수(李春秀)의 집에 투숙한 후 노석중(盧錫中)과 전치영(全稚英)을 소집하고 이들에게 신덕영 등의 남하계획을 통고하고 이들과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 ▶ 같은 해 9월 28일 선생은 신덕영의 남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노석중과 전치영으로부터 10원씩을 받아 서울의 신덕영에게 송금하였다.
- ▶ 같은 해 10월 1일 신덕영, 박일봉이 송정리에 도착하여 광주 금계리(錦溪里)의 조명석(趙明錫)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선생은 이들의 지휘를 받아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 ▶ 같은 해 10월 15일 선생은 광주군 본촌면(本村面) 일곡리(日谷里)의 이윤호(李允鎬)의 집에서 신덕영, 박일봉, 노기준(盧基準) 등과 협의할 때 권총을 구해오라는 임무를 받았다. 선생은 다음날인 16일 상경하여 권총을 구하려 하였으나 권총을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선생은 신덕영의 애인인 이경민(李敬敏, 여)이 입수한 장난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이경민과 함께 광주로 내려왔다.
- ▶ 같은 해 11월 2일에 선생은 곡성군 제면(第面) 칠보리(七寶里)의 심운택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 1,500원을 요구하고 1,000원은 11월 10일, 500원

은 11월 15일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곡성군 화면(火面, 현 오산면) 조양(朝陽)의 신대선(辛大善)의 집에 가서 1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11월 10일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 ▶ 1920년(27세) 11월 3일에는 곡성군 삼기면(三岐面) 월경리(月境里)의 정호억(鄭鎬億) 집에 들어가 100원을 요구하여 11월 16일 임곡역(林谷驛)에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에도 월경리의 정호필(鄭鎬弼)의 집에 가서 200원을 요구하여 100원을 수령하였다.
- ▶ 같은 해 11월 4일에는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유곡리(維谷里)의 박종호(朴宗鎬)의 집에 가서 집안사람을 전부 묶고 장난감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하여 1,000원을 요구하여 40원을 모금하였다.
- ▶ 같은 해 11월 5일 자동차로 전남 광주로 가던 도중 노기준과 함께 체포되었다.
- ▶ 1921년(28세) 4월 26일 신덕영 외 14명의 제령위반에 대한 공판이 오전 9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 ▶ 같은 해 5월 31일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선생은 징역 7년을 받았다.
- ▶ 같은 해 12월 13일에 개최된 대구복심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 결국 선생은 대구형무소에서 수년간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 ▶ 1926년(33세) 11월 15일 선생은 7년형을 받았지만 대정 13년(1924)의 은사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나왔다. 이 당시에 아내 안씨(33세)와 합의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자기가 큰 뜻을 품고 해외로 건너가 활동할 때에 자기 장래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 ▶ 1928년(35세) 음력 4월 서울에 올라와 신덕영의 처 오씨를 만났다. 오씨는

선생의 출옥 사실을 허베이(河北省)의 스자좡(石家莊)에 있는 신덕영(申錫榮)에게 알렸고 신덕영은 선생에게 연락하여 곧 중국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선생은 1928년 4월(음력) 신덕영의 처 오씨와 함께 베이징으로 갔다.

- ▶ 1928년(35세) 음력 6월에서 9월 사이 타이위안에서 신덕영, 안창남 등과 함께 ‘함께 소리내어 알린다’는 ‘공명(共鳴)’의 의미를 따서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을 조직하였다.
- ▶ 같은 해 음력 9월 대동단 조선지부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정련(金正連, 1894년생)을 스자좡(石家莊)에서 만나 공명단에 가입시켰다.
- ▶ 같은 해 음력 9월 하순에 최양옥 선생은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등과 만났을 때 국내에 사람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 ▶ 같은 해 음력 10월 산시성 타이위안에 있던 안창남으로부터 600원을 받은 후 1928년 음력 12월 15일 신덕영과 작별하고 김정련과 함께 입국하기 위해 스자좡(石家莊)에 갔다.
- ▶ 1929년(36세) 2월 18일 다롄(大連, 중국 동베이(東北)지방 라오닝성(遼寧省) 라오둥반도(遼東半島) 끝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였다가 갖고 있던 돈이 문제가 되었던지 수이상경찰서(水上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선생은 텐진(天津)의 일본총영사관에 압송되었으나 안창남에게 34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월 25일 석방되었다.
- ▶ 같은 해 3월 6일(음력 1월 25일) 선생은 베이징으로 가서 김정환으로부터 권총 세 자루를 수취한 후 베이징을 출발하였다.
- ▶ 같은 해 3월 7일 밤 8시 경 안동역(단동역)에서 김정련을 만났다.
- ▶ 같은 해 4월 4일 김정련과 함께 평북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봉덕리(鳳德里) 43번지에 위치한 김정련의 17촌 조카인 김인옥(金仁玉)의 집에 찾아가 강도로 위장하고 160원을 마련하였다.

- ▶ 1929년(36세) 4월 7일 하이둥여관에 모여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40원을 여비로 삼아 서울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 ▶ 같은 해 4월 8일 오후 2시 경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양복 안의 복부에 은닉하고 김정련은 한복을 입고 실탄 12발을 장전한 총 1정을 왼쪽 무릎 밑 안쪽에 봉대로 감아 숨기고 신의주로 들어왔다.
- ▶ 같은 해 4월 9일 오전 1시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7시 5분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 ▶ 같은 해 4월 8일 김정련은 오후 6시 조금 지나 신의주를 출발하여 9일 오전 1시 10분 경 황해도 사리원역에 도착하여 송실대학 동창생인 이남식(李南植)을 방문한 후 다시 사리원을 떠나 10일 오전 7시 5분에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 ▶ 같은 해 4월 10일 이선구는 오후 10시 17분 신의주를 출발하여 11일 오전 9시 50분 경성에 도착하였다.
- ▶ 같은 해 4월 16일 선생은 김정련, 이선구와 사직공원 등에서 거사를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거사가 지체되자 김정련과 함께 이선구를 설득하여 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 같은 해 4월 17일 오전 11시경 선생 일행은 서울역 황금정(黃金町) 2정목(二丁目)에 위치한 이명구(李命九)의 집을 출발하여 방산정(芳山町) 63번지 잡화상에서 삼숫줄 등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차를 타고 양주군(楊州郡) 구리면(九里面) 교문리(橋門里)에서 내려 양주군 미금면(漢金面) 평내리(坪內里)의 안칠성(安七星)이 경영하는 여인숙에 도착하여 1박하였다.
- ▶ 같은 해 4월 18일 오전 7시경 아침을 먹고 선생 일행은 양주군 미금면(남양주시 호평동)과 화도면(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경계인 마석(麻石, 마치고개)에 도착하였다.

- ▶ 1929년(36세) 4월 18일 춘천을 출발한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의 제7호 차량이 오후 1시 40분 경 고갯마루 아래의 계획된 지점에 이르자 계획에 따라 김정련은 망을 보고 이선구는 손을 들어 차를 정차시켰다. 우편차량이 정차하자 선생과 이선구는 즉시 차에 뛰어올라 선생은 운전사 김영배(金泳培)에게 총을 겨누고 삼남줄로 그를 묶어 조수석에 앉힌 후 이선구가 운전을 하여 금곡(金谷, 현 남양주시 금곡동)방면으로 차를 몰았다
- ▶ 같은 해 4월 19일 새벽 양주군 화도면(和道面) 녹촌리(鹿村里)의 임희중(任熙宗)의 집에 도착한 후 인근의 암굴에 은거하면서 그로부터 식사와 의복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저녁에 한강을 통해 서울에 들어가려고 오후 8시경 임희중의 집에 이르렀을 때 경찰에게 발각되어 추적을 받게 되었다.
- ▶ 같은 해 4월 20일 김정련은 오전 0시 20분 그곳 인근의 독립아육에서 체포되었지만, 선생은 이선구와 20일 오전 6시 양주군 와부면(瓦阜面) 덕소리(德沼里) 동쪽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구리면 수석리(水石里, 현 남양주시 수석동)에 상륙하여 아차산에 숨었다. 이후 선생과 이선구는 20일 오전 9시 30분경 망우리 고개로 나와 남상진(南相鎭)이 모는 내선자동차(內鮮自動車) 경(京) 제408호를 정지시켜 빼앗은 후 이선구가 직접 운전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 ▶ 같은 해 4월 20일 철통같은 경비를 뚫고 서울의 황금정(黃金町) 5정목(丁目)에 도착한 선생과 이선구는 본정통(本町通) 4정목 경성암(京城庵)에서 닭고기계란밥과 맥주를 마신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무장경관대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인지경처럼 오전 10시 경 감옥에서 알게 된 정국민(鄭國敏)이 있던 적선동 어구에서 내려 택시 요금으로 1원을 주고 두 사람은 작별을 하였다.
- ▶ 같은 해 4월 20일 이선구는 11시경 이명구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주인 여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이선구는 즉시 들어가서 건너 방으로 들어갔고

주인 여자와 이야기를 할 즈음에 잠복하였던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 ▶ 1929년(36세) 4월 21일 선생은 오전 5시 30분 최상하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종로서원에게 체포되었다.
 - ▶ 같은 해 4월 21일 피체된 일행은 그날에 종로경찰서에서 1차 신문을 받다.
 - ▶ 같은 해 4월 30일에 선생의 동생인 최양길(崔養吉)과 원주에서 걸어올라 온 모친 등 가족 5명이 경기도경찰부로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 같은 해 5월 2일 선생 일행은 경기도경찰부로부터 2차 신문을 받다.
 - ▶ 같은 해 5월 10일경 선생 일행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졌다
 - ▶ 같은 해 5월 18일 선생 일행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3차 신문을 받다.
 - ▶ 같은 해 7월 2일 선생의 여동생 최양희는 동대문 밖 창신동 693번지에서 경기도경찰부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 ▶ 같은 해 12월 6일 선생 일행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 ▶ 같은 해인 1929년(36세) 12월 13일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우편법 위반, 강도의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 ▶ 1939년(46세) 12월 13일에 만기출옥하였다. 선생은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10년이라는 장구한 시일(時日) 그 고통이라는 말은 입으로 다 할 수 없고 지필로도 다 쓸 수 없다”고 그 심경을 토로했다.
 - ▶ 1940년(47세)에 동지의 도움으로 마부가 되어 종로를 횡행하며 기회를 엿보다.
 - ▶ 1945년(52세)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고 9월 8일에는 한국민주당에 입당하였다.
- 이 무렵을 전후로 김씨와 재혼을 하였다.

- ▶ 1945년(52세) 9월 8일에는 한국민주당 발기인 1,000여 명 명의로 조선인민 공화국 타도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칭임시정부 절대지지태도를 밝혔다. 최양옥 선생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전선에 뛰어 들었다. 선생은 선전부 소속으로 활동을 하였다.
- ▶ 같은 해 9월 16일 서울 천도교기념관에서 발기인 1,600여 명이 모여 창당대회를 가졌다.
- ▶ 같은 해 12월 5일 선생은 중앙위원으로 한민당의 창립당초부터 당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다가 신덕영 등 82명과 함께 탈당성명서를 제출하다.
- ▶ 1947년(54세) 청총(靑總) 동대문구 지부장을 맡다.
- ▶ 1948년(55세) 경성형무소(구 서대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임명되다.
- ▶ 1949년(56세) 인천소년형무소 소장으로 발령이 나다.

1950~1980년대

- ▶ 1950년(57세) 6·25전쟁 발발이후 소장인 최양옥 선생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많은 직원들은 정부가 머물고 있는 수원으로 갔다.
- ▶ 같은 해 7월 2일 전쟁이 발발한지 7일째에 인천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제1차적으로 죄수를 버리고 충남 당진방면으로 피난하다.
- ▶ 같은 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
- ▶ 1951년(58세) 1월 4일 또 다시 1·4후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경북 김천형무소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부산형무소로 갔다가 4·5개월 후에 인천소년형무소로 복귀했다.

- ▶ 1952년(59세)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으로 체포되다.
- ▶ 같은 해 9월 17일 무죄판결을 받고 보석 결정이 있어 출감하였다.
- ▶ 1953년(60세) 4월 6일 2심언도 공판에서 무죄판결 받다.
- ▶ 1954년(61세) 1월 30일 이대통령에 대한 저격사건에 대한 대법원 제3심판결 공판에서 무죄선고 받다.
- ▶ 1962년(69세)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 ▶ 1963년(70세) 3월 22일 오후 3시부터 시내 인현동 1번지 소재 자매다방 2층에 소재하고 있는 민정당 경기도제1구당 사무실에서는 당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군정연장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투쟁위원장에는 하상훈씨가 선출되었고 지도위원에는 양재박·이열현 그리고 선생 3명이 선정되었다.
- ▶ 1966년 3월 17일 신한당(가칭) 창당운영위는 제1차 각지구당조직책 79명을 확 확정, 임명하고 인천을지구에는 선생을 조직책으로 임명하였다.
- ▶ 1975년 3월 7일 민주회복 국민회의 인천시지부가 7일 오전 11시 40분 인천시 화평동 덕성반점에서 결성되었는데, 선생은 김진두(전신민당인천시당부위원장) 조철구(의사)와 함께 고문에 위촉되었다.
- ▶ 1980~1982년 선산이 있는 황성군 갑천면 전촌리로 내려와 선친의 묘소를 오가며 마지막 효성을 다하였다.
- ▶ 1983년 6월 14일(음력 5월 4일) 오전 11시 55분 별세. 장지는 강원도 황성 선산. 인천시 북구 산곡1동 10-73 자택에서 향년 90세 별세. 부인 김정덕(金靜德)여사와 3남이 있다.

참고문헌 |

- 강대덕 외 2인, 2003, 『횡성 민족운동사』, 횡성문화원.
- 광복회 강원도지부, 『강원항일독립운동사』(Ⅰ·Ⅱ·Ⅲ·Ⅳ).
- 국가기록원, 「1921년 노석중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
- 국가기록원, 「1921년 신덕영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
- 국가기록원, 「1921년 정수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
- 국가기록원, 「1921년 최양옥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
-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지명).
- 국방부, 1997, 「백성옥 내무부장관 증언」, 『한국전쟁사』제1권(개정판)..
- 국방부, 1997, 『한국전쟁사』제1권(개정판).
- 국방부, 1971, 『한국전쟁사』제1권.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의병항쟁사』.
- 국사편찬위원회, 1986~1988, 『주한일본공사관기록』5~10, 영인본.
- 국사편찬위원회, 1969, 『한국독립운동사』3.
- 김두백, 「공명단과 신문화외전」, 『삼천리』제7호(1930.7.1).
- 김상현, 1977, 「법복을 입고 민족의 입이 되어」, 『분노의 여울』, 한샘 출판사.
- 김후경·신재홍, 1971,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한국민족운동연구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6, 「전직 내무부장관을 찾아서 : 장석운 전 장관에게 듣는다」, 『지방행정』35-39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5.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1(의병항쟁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자료집』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독립운동사자료집』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10.
 박순업, 2012, 「애국지사 김순이 삶 고찰」 『황성문화』 통권 제27호, 황성문화원
 박순업, 「황성독립운동가 최양옥지사(강원의 인물 · 7월)」, 『강원일보』
 (2003.7.1).
 법무부 교정본부, 2010, 『대한민국교정사』 I, 문턱인쇄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시평사.
 심지연, 1982, 『한국민주당연구』 I, 풀빛.
 오영교 · 왕현종, 2005, 『원주독립운동사』, 해안.
 유광렬, 「경찰이상, 전보이상 활동」, 『삼천리』제7호(1930.7.1).
 이인, 1974,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 출판부.
 정병준, 2009, 「광복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56, 한
 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조규태, 2002, 「대한독립공명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33.
 조동걸, 1989,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조동걸, 1972, 『橫城과三一운동』,三一운동기념비건립황성군협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정당사』1집.
 최승순 외 7인, 2007, 『강원 항일사』, 강원일보사.
 최운무, 「공명단사건활동이면기」, 『별건곤』제73(1934.6.4).
 한지희, 1996,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학살」, 『역사비평』37.
 홍종인, 「호외전선에 서서」, 『삼천리』제7호(1930.7.1).
 황성군, 2001, 『황성군지』.
 황성군, 1996, 『화성의 옛터』, 강원일보사

『한국근현대잡지자료』, 『동아일보』, 『신한민보』, 『매일신보』, 『자유신문』, 『중외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일제침략하한국 36년사』, 『자료대한민국사』, 『국내 항일운동 자료』(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국외 항일운동 자료』(일본 외무성기록),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⁴¹, 『한민족독립운동사』, 『해외사료총서』 등의 자료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

독립기념관(www.i815.or.kr)



김 동 정

〈약력〉

강원도청 강원도사면찬위원회 상임위원(현)
 문학박사(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전임연구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겸임교수
 강릉원주대 · 강원도립대 · 중앙대 등 외래교수
 강원도인재개발원 · 강원여성대학 · 한국분권아카데미 강사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집필위원
 강원경찰전사 감수위원
 강릉경찰70년사 감수위원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실무위원
 강릉소방50년사 감수위원
 강릉학도의용군사 집필위원(현)
 강원도의회60년사 자문위원(현)
 원주문화원 이사(현)
 의암학회 이사(현)

〈저서〉

『역사와 문화』(공저)
 『정선군지』(공저)
 『국역 봉서유고』(공역)
 『역주 자치통감』(32책, 공역)
 『강원의 역사와 문화』(전자책, 공저)
 『국역 의암집』(공역)
 『국역 습재선생문집』(공역)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황성전투』
 『황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
 『강릉경찰70년사』(공저)
 『양구군지』(공저)
 『인제군지』(공저)
 『강원도사』(1~17, 공저)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그 외 논문 다수.

향토사료 제29집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인 쇄 | 2016년 12월 25일 발 행 |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 박 순 업 편저자 | 김 동 정

발행처 | 황성문화원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황성로 371

(033)343-2271

인쇄처 |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033)260-9400

ISBN 978-89-6602-096-6 03090

〈비매품〉

